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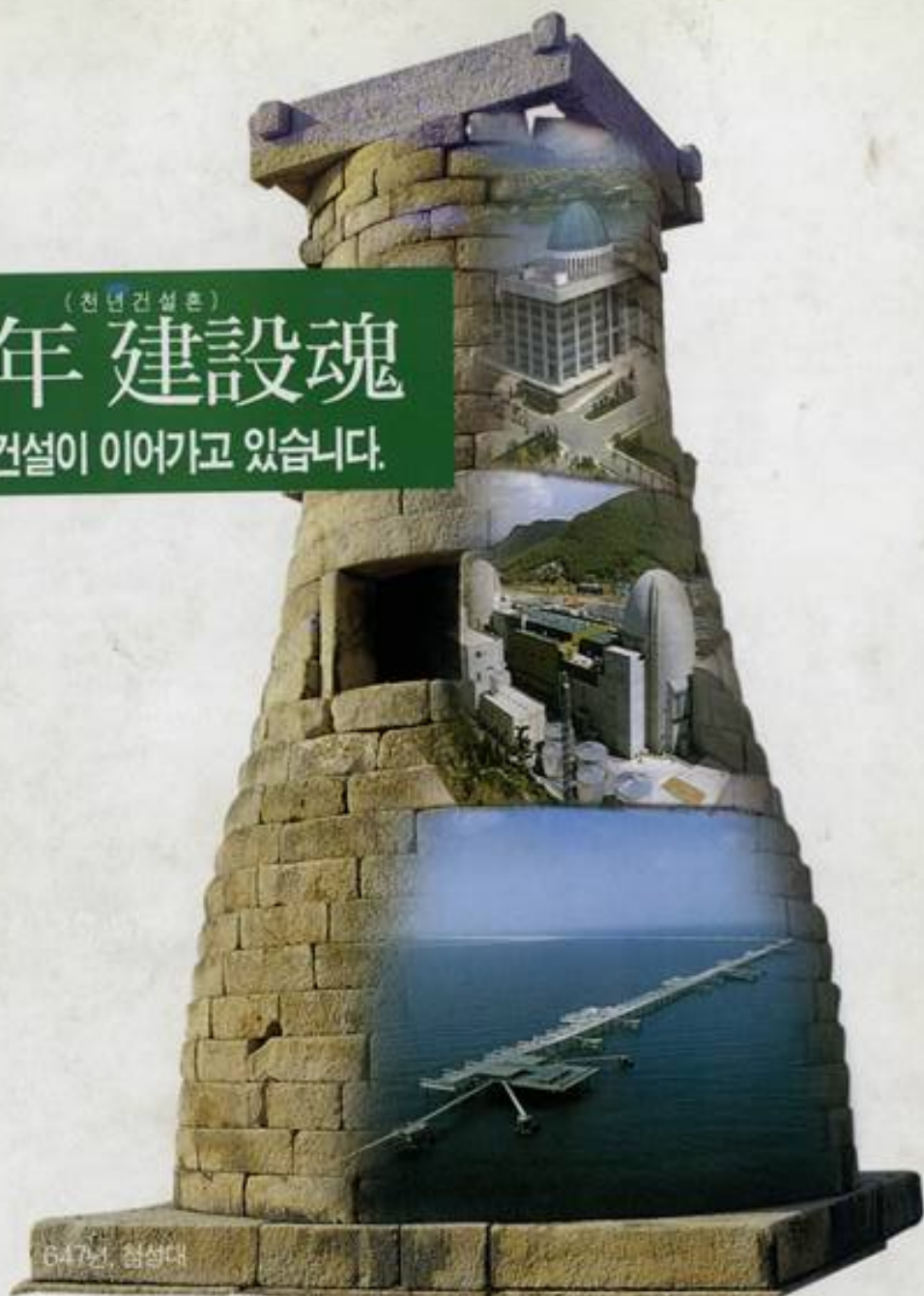


지구를 아름답게
인류를 행복하게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천년건설혼)
千年建設魂

현대건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647년, 첨성대

동양最古의 천문대—첨성대

130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변함없는 견고함과 품격으로
가장 앞선 과학기술과 장인정신을 이어주고 있는 첨성대.
현대건설은 선조들의 불멸의 건설혼을 이어받아
자랑스런 우리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불박이



분당 일방합발전소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싱가폴 연세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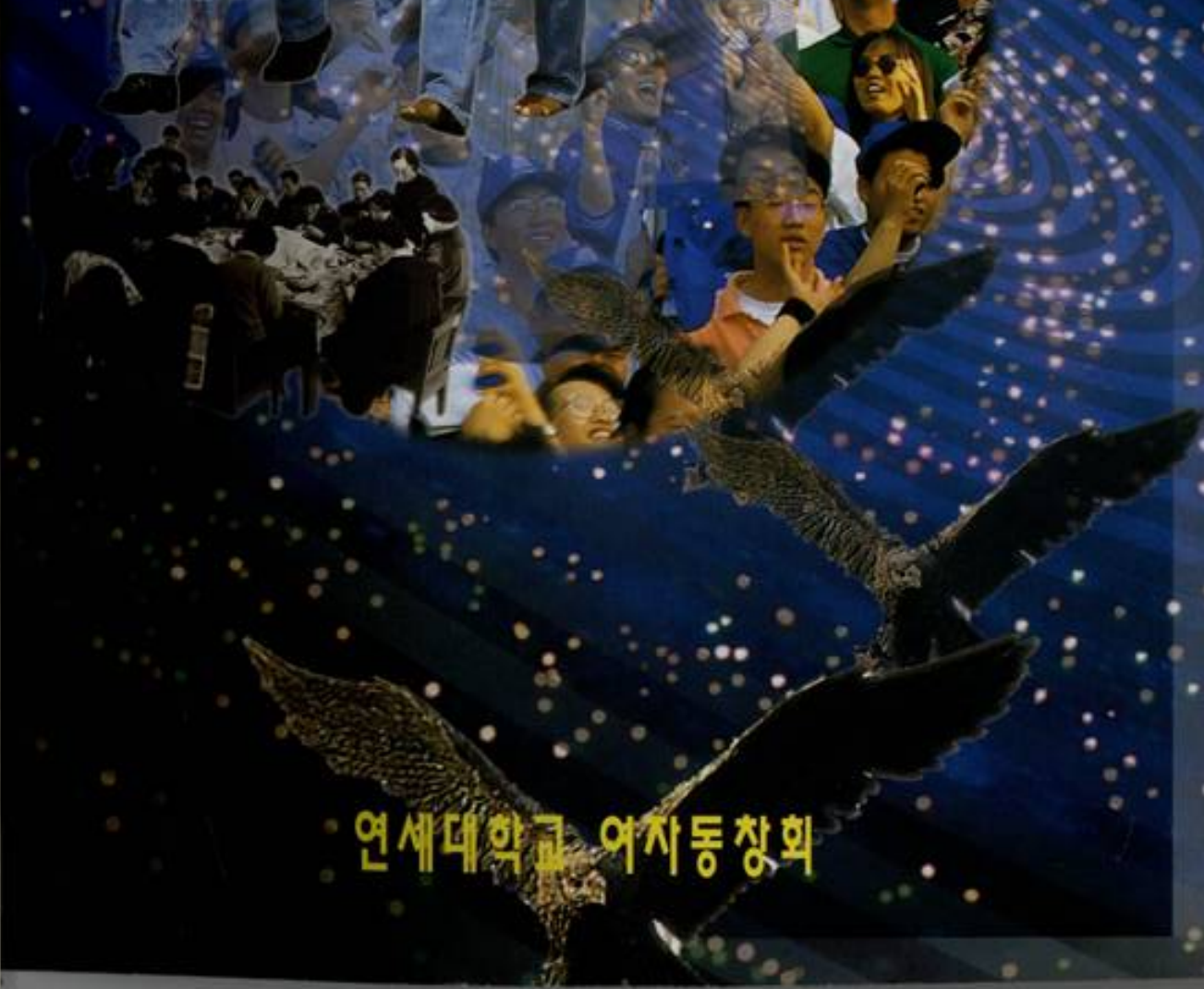
現代建設株式會社

연세백양

1996.5 제4호

남녀공학 50주년

Toward A Century of Women's Leadership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서울힐튼에는 세계의 풍미가 가득합니다



서울힐튼에서의 만찬은 새로운 만족을 드립니다. 맛깔스런 찬풍이 가득한 전통 한식에서 이태리 정통 파스타, 북경 오리 요리와 태판야끼, 그리고 다양하고 고급스런 부페까지— 세계 각국의 특선요리와 풍미가 가득한 서울힐튼 식당가로 오십시오. 품격높은 분위기와 상냥한 미소가 만찬을 더욱 빛내드립니다.

서울힐튼 식당가에서의 멋진 만찬— 예약을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예약 및 문의전화

- Seasons 불란서식당 씨즌즈 (02) 317-3060/1
- Garden View 가든뷰 레스토랑 (02) 317-3062/3
- Palm Court 팜코트 라운지 (02) 317-3058/9
- Sura 한식당 수라 (02) 317-3226/7
- Genji 일식당 겐지 (02) 317-3240/1
- Taipan 중식당 타이판 (02) 317-3237/8
- Il Ponte 이태리식당 일폰테 (02) 317-3270/1
- Orangerie 부페식당 오랑제리 (02) 317-3143, 3145
- Oak Room 영국풍 바 오우크룸 (02) 317-3234/5
- Pharaoh's 클럽 & 디스코텍 파라오 (02) 317-3244/5
- Le Gourmet 프구어메 제과점 (02) 317-3064



THE HILTON · THE HOTEL

Adelaide · Bali · Batang Ai · Bangkok · Beijing · Brisbane · Cairns · Colombo · Guam · Jakarta · Kuala Lumpur · Kuching · Kyongju · Melbourne · Nagoya · Osaka · Perth · Petaling Jaya · Shanghai · Singapore · Seoul · Sydney · Sydney Airport · Surabaya · Taipei · Tokyo · Tokyo Bay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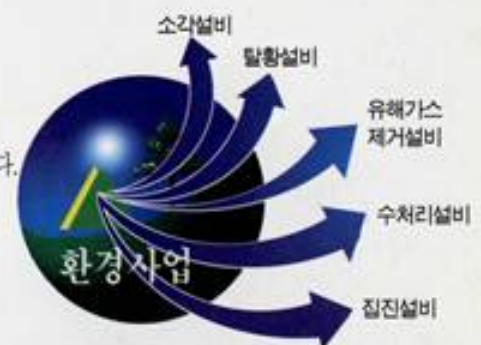


깨끗한 강을 되찾는 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문명은 강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베품으로서 인류의 발전이 있었듯 강이 인류를 위해 베풀수 없게 되면 문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강물오염의 80%가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라고 합니다. 특히, 편하다고 쉽게 쓰고 버리는 세제성분이 강을 무력하게 합니다.

강을 살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강을 오염시킨 것처럼 강을 살리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첨단기술의 환경설비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맑은 강이 살아야 인간도 삽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현대중공업



그녀의 이름은 아시아나

좋은 시를 쓸 수는 없지만
들려드릴 수는 있어요.
[제 시를 좋아해요,
시는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좋은 시를 쓸 수는 없지만
들려드릴 수는 있어요.
시의 아름다움을
제 미소에 담고 싶어요.]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그녀의 이름은 아시아나.

한정 한정에게만 —
아시아나항공

■ 항공예약: (02)774-4000 ■ 자동예약서비스(ARS): (02)774-6688

도서출판 삶과꿈이 기획 · 창단한 국내 최고의 성악 앙상블

삶과꿈 싱어즈 제6회 정기연주회

창단 3주년기념 Life & Dream Singers

일시 · 1996. 6. 2 (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예술의전당 음악당

1. Schütz / T. Victoria / W. A. Mozart
2. F. Schubert / Messa 반주 [서울 바로크 합주단
울겐 박인숙]
3. 한국 창작곡과 가곡
4. Trio. Villanella & Siciliana
Flute(이혜경) Cello(백희진) Harp(유지혜)
5. 러시아 가곡과 민요



대표 · 기획 / 신감순



음악 코치 · 지휘
Nodar Tcharba (러시아)



소프라노/배성희, 최신자
임현지, 윤이나
엘토/최미옥(총무), 홍정희, 이희영
테너/김남희(리더), 이태원, 박상규
베이스/권영대, 장봉찬, 강종영
피아노/김귀정

주최 : 도서출판 **삶과꿈** 후원 : **한겨레신문**

협찬 : **대우전자** 동아출판사 : **Hansol** **동원산업(주)**

제1회 삶과꿈 성악 콩쿨 제정 (96년 가을)

오스트리아 건립 1000주년 기념음악 축제 참가 (96년 8월)

■ 회원권: S석/30,000, A석/20,000, B석/10,000, 학생석/5,000

■ 티켓 판매처 : 브명명화점 6층서점(756-0108) 대한음악사(776-0077), 교보문고(736-1444), 종로서점(733-0731), 명동문고(399-0003), 을지서점(757-0991), 태평서점(777-7551), 신촌문고(333-2971), 동화서점(562-0962), 월드북센터(517-0770), 서울문고(503-0000), 예술의 전당 배프소(590-1451-4)

삶과꿈

■ 공연안내 : 도서출판 삶과꿈 756-0108,
삶과꿈 싱어즈 318-1735

法律學·政治學·行政學·經濟學·貿易學·財政學·統計學·保險學·經營學·會計學
마케팅·社會學·歷史學·哲學·教育學·心理學·語學·文學·教養·自然科學



도서출판 박영사는
세계속에 지성을 선도하며
살아숨쉬는 양서만을 추구합니다.



博英社

서울특별시 중구 경동 13-31번지
전화: 02-733-6771-3 FAX: 02-736-4818
GO HP 88. 도서 전체검색 09. 도서 종합정보검색

代表: 安鍾萬 (충남대학교 1회 졸업)

1996년 5월 제4호

기도문	8	오혜식
인사의 말씀	10	여동창회장·유승미
	12	총장·송자
	14	총동문회장·방우영
	16	여학생처장·이영
특약칼럼	18	여성의 양보와 희생만을 미화시키지 않는 사회·장영
연세남녀공학 50년 역사	20	
특집①/논단	24	남녀공학의 긴 여정: 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조혜정
	30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험한 남녀공학 반세기·문은희
	34	허와를 변호하는 여성신학·최만자
특집②/역사의 창	38	연세 남녀공학을 돌아보며·한양순
	41	여동문회의 활동을 돌아보며·주은희
	44	한알의 밀알되어·전산초
특집③/연세! 우리의 연세, 연세, 연세!	46	연세의 자유, 그리고 삶의 열쇠·최성자
	49	찬란한 무늬와 발전일변도·이기옥
	52	연세,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기억의 장·박금자
	55	연세인의 특혜·강경화
좌담회	62	남녀 공학초창기의 모습
	70	모녀 동문과의 대화
만화로 보는 남녀공학 50년사	78	
동문탐방	88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논설위원·신동식
	90	대한 YWCA 사무총장·강교자
	92	차병원 건강증진센터소장, 의학박사·안명옥
	94	소설가·김인숙
재언	96	신배님에게 바라는 재학생의 변·신유정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연대	104	새로운 교육문화를 일구는 학부모연대·전종자
	107	인간적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호루라기' 상담전화운영
특약수필	108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문숙
동문수필	110	속 돌보기·이성훈
해외동문칼럼	112	인생은 풍요한 가능성의 실험실·최선옥
	114	최고보다는 최선을·홍인숙
동문칼럼	116	Better Half가 결여된 사회·조우철
	120	교양과 더불어 개성을·김형석
모교소식	124	
동문회소식	125	
안내	126	
주소록	128	
편집 후기		

● 발행인: 유승미
● 발행처: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TEL: 364-6800, 361-2137)
● 발행일: 1996년 5월 16일
● 편집위원: 문은희, 추애주, 왕세경, 주은희, 박남미, 이종현, 현지혜
● 편집디자인: 유니온 이트라인(717-2303)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택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이 세우신 연세대학교에 보내주시고,

거기서 신앙이 깊이 뿌리박아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자리에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많은 달란트를 노력하고 갈고 닦아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기르며 사회와 가정을 동시에 섬기면서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른 지금도 중단없이 전진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가운데,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도와 복되게 하는 삶을 통하여 스스로 보람차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저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50년전 연세대학교에, 이미 남녀공학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저희 여학생들을 학교에서

특별히 택하고 가르쳐서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도력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드릴 수

남녀공학 50주년을 축하하며

있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삶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배들, 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칠 때

이 사회가 더욱 밝은 사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히 연세대학교를 통하여

더욱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연세 백양을 통해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안에서

자매의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이 사회를 최선 다해서 섬겨살 때 민주사회로, 밝은 정의로운 사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쁜 동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며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혜식/ 이화외국어고 교장, 목사, 59년 영문학 졸업





인사의 말씀

유승미/ 여동창회장, '63 정외 졸업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오래로 창립 111주년을 맞는 우리 연세는 사학재단으로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또한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하여 일찍이 남녀동등의 장을 열고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는 사실은 연세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많은 연세인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훌륭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갖춘 많은 여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훌륭한 삶을

우리 여동문 모두가 단합하여 선배와 후배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서 많은 재학생 후배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위해 감을 볼 때 우리 연세가 남녀공학을 실시한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배출된 총 졸업생수가 약 17만 정도이고, 여동문의 수는 3만 3천 정도라고 하니 여동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이고 앞으로 계속 여학생의 비율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여동문들은 남자동문들 못지않게 모교를 사랑하고 모교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시절 두뇌싸움에서 남학생을 이기고 1등 하던 실력으로 졸업 후에도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 우리 연세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여동문 모두가 단합하여 선배와 후배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서 많은 재학생 후배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은 올해로 50년째이지만 여동문들이 독자적으로 동창회를 '백양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친목모임 형식의 미약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여동문들은 기금조성을 위해서 김밥 판매나 티셔츠 판매 등을 했었고 회원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여동문회가 크게 활성화됐다고는 보지 않지만 3-4년 전부터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평생회비 연회비 찬조금을 받고 이사제도를 도입해서 단과대학 별로 이사를 선출해서 이사회비도 받아서 지금은 전보다 기금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동문회의 그간의 중요사업으로는 모교에 대한 발전기금 헌납, 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연세백양지 발간, 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세미나 개최(여학생처와 공동으로), 여동문을 위한 교양강좌, 창립기념 불고기파티, 산업시찰, 망년회 개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연고전 때 응원단을 후원했고 농구협회에도 약간의 도움을 주

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여성연구소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여동문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여학생처와 공동으로 여동문 언론인 모임, 여동문 교수 모임을 개최해서 많은 여동문들을 발굴해 내어 결속시켰습니다.

총동문회에서는 동문회관의 건립과 아울러 우리 여동문회가 사무를 볼 수 있는 터전을 회관 내에 마련해 주어서 우리 여동문화 발전을 위한 기틀을 잡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한달에 한 번씩 동문회관 회의실에 모여서 임원회를 갖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세웠으며 여동문들의 주소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총동문회에서는 우리 여동문회의 위치를 여자동창회로 동문회 산하의 기관으로 정식으로 인정해 주었고 운영위원회나 임원회의, 이사회, 조찬기도회, 총동문회, 신년새해인사의 밤 등 모임이 있을 적마다 우리 여동문들의 참석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여자동창회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동문들도 남성동문들과 동등하게 모

교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모교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연세가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까닭에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에 이끌리어 모여든 많은 여학생들이 재학사에 남학생들의 보호 아래 주동적인 역할을 사양한 것이 졸업 후에도 이어져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보다 더 좋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느라 애쓰고 사회적으로는 남성우위의 제도하에 적응하느라 기량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우리 여동문들도 이제는 여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셔야 하겠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꼭 참석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우리 여동문회를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여동문회의 발전이 곧 우리 연세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믿고 세계 100위권 안에 연세가 들 수 있도록 여동문 모두가 힘써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세 남녀공학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잔치에 모두 모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우리 여동문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 사 의 말 씀

송자/총장, 59년 상학과 졸

남녀공학 50주년을 축하하며

만물이 생동하는 5월, 연세백양 4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연세백양은 연세 여동문간의 소식지이자 교류지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진솔한 글들을 실어 왔습니다. 올해는 연세대가 남녀공학을 실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남녀공학을 실시한 연세대는 현재 여동문이 총동문의 2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우 선각적이고 활동적인 소수의 여

성들만이 입학했으나, 현재 연세대는 그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말미암아 재능 있는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동안 배출된 연세의 여동문들은 교육, 예술, 언론, 문학 등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인기에도 불구하고 졸업후 연세 여동문들의 사회활동이 남동문들에 비해 미약하며 여대졸업생보다도 활발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들려옵니다. 몇몇 지도자급 여동문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여동문들의 사회활동이나 모교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남녀 대학졸업생의 숫자가 모두 증가한 고학력 사회에 들어서면서, 격심한 경쟁 속에서 대학교육의 성과를 무엇으로

연대의 여동문들이
남동문들과 나란히 자신의 길을
올바로 파악하고,
자기 인생행로에 걸맞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몸으로 부딪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남녀공학 50년의
교육목표라고 봅니다.

평가해야 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기대와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때로 상충되는 지
금, 여성 고등교육의 성과를 평가하

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결실기를 맞을 때가 되었습니다.

연대의 여동문들이 남동문들과 나란히 자신의 길을 올바로 파악하고,

자기 인생행로에 걸맞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몸으로 부딪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남녀공학 50년의 교육목표라고 봅니다.

이제 연세의 여동문들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생각하고, 다양한 논의를 결집하고, 후배들에게 보다 풍성한 여성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중

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 위상, 여성 고등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풍성한 호기심을 지닌 청년기에 다양한 사고방식의 남녀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50년의 역사를 엮어온 연세대학교 이야말로 이제 그 지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과도기의 논의를 결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은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한 연세 여동문들의 돈독한 교류와 모교에 대한 관심은 연세대의 발전에 필수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연세백양은 여동문들의 이러한 모습을 담아, 우리 여동문들이 참여하는 여동문, 21세기를 끌고가는 여동문, 사회와 직장가 가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이며 지도자로 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

방우열/총동문회장, 49년 상학과 졸업

평범한 여동문들도 모교를 도울 수 있습니다

51 세대학교는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대학으로서 또 한 남녀공학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대학이 남녀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동문회 전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1946년 처음으로 남성 위주의 학풍에서 여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개방한 이래 연세대학교에는 가장 우수하고 전취적인 여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졸업한 49년 당시만 해도 여학생은 교내에 10여명 안팎이었는데 50년이 지난 현재 재학

생 중 30%가 여학생이며, 3만3천여 여성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연세교육의 큰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백낙준 총장님의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적 혜안으로, 남학생과 동등한 조건하에 우수한 여성들이 학문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 여성교육의 커다란 진일보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연세는 최이순 선생, 심치선 선생, 이기열 선생, 한양순 선생, 김모임 선생 등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을 모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 학계 언론계 의학분야 등 각 분야에 수많은 여성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흔히 '연세대학교' '연세인'을 생

남녀공학 50주년을 함께 축하하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모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축제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각했을 때 첫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주 조화로운 남녀공학입니다. 이처럼 연세대학이 성공한 남녀공학의 대표격으로 연상되는 것은 여학생들의 역할이 다른 대학에 비해 훌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교는 그 동안 세계적인 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 동문회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회는 그 동안 모교의 여러 행사에 긴요하게 쓰이는 '개교 100주년 기념관'을 지어 헌납했고, 용재 백낙준박사 동상을 건립했으며, 동문회관을 지어 동문들의 사랑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매월 동문회보를 만들어 동문들의 집이나 직장에 우편으로 배달, 학교 근황과 동문회 활동, 그리고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동문부부 수천 명이 참석하는 '새해 인사의 밤'을 열고 있으며, 거의 매월 동문회관에서 조찬

기도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작년 동문의 날엔 KBS 열린 음악회를 모교 노천극장에서 열도록 해 감동적인 경험을 갖기도 했으며, 금년 동문의 날엔 KBS 가요 캠퍼스 대축제를 유치하여 흥겨운 동문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열심히 참여하는 동문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여동문들의 모교를 위한 참여와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여동문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모교발전에 기여하고 동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지면을 통해 여동문 여러분께 모교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쉬운 일은 동문회를 통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중 아직 동문회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곧 총동문회(전화:365-0631)에 전화를 걸어 동문회보를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졸업년도와 학과, 이름,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독료는 없습니다. 동문회보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연세인임을 매일 확인시켜줄 것입니다.

다음엔, 동문회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사들은 동문회보를 볼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새해 인사'의 밤 '조찬기도 모임' '동문의 날' 행사 등. "나는 평범한 졸업생일 뿐인데," 이런 생각은 결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문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또 동문이 주인공인 행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참여하다 보면 더욱 친근해지고 친구도 사귄 수 있는 행사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문회비를 내주시는 일입니다. 동문회에 납부하는 동문회비는 1년에 2만원입니다. 동문회가 펼치는 모교를 위한 여러 사업과 행사, 그리고 동문회의 운영경비, 동문회보의 제작과 발송 비용 등에 쓰이는 아주 기본적인 회비입니다. 작년에는 1만 명의 동문이 2만원씩의 동문회비를 내주셔서, 2억원의 회비가 모였습니다. 17만명의 동문 중 아직은 1만 명만이 회비를 내신 것입니다. 금년엔 2만 명의 동문이 회비를 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동문 여러분의 참여가 이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동문회는 이번에 모교를 위한 또 한 가지 큰 사업을 벌이면서 동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음의 고향인 모교의 노천극장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노천극장은 지금의 재학생 수에 비하면 너무 작고, 잔디를 심었던 계단은 거의 무너져, 앉기가 불편할 정도

로 황폐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단계는 아니지만, 계단을 더욱 확대해 현재의 7천 명 수용능력을 약 1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도록 화장암 좌석을 계단식으로 놓을 계획입니다. 이처럼 노천극장을 재건해 모교에 봉헌한다면, 우리 동문들이 모교와 후배 학생들을 위해 또 한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1만5천 개의 화장암 좌석 하나씩을 한 구좌로 정해 동문들의 성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화장암 좌석에는 구좌성금을 내신 동문의 이름과 졸업년도, 학과를 새겨 넣어 모교를 위한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이 영원히 기록되어 남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능력과 재능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동문이란 사실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을 입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내 가정 외에도, 우리 이웃, 우리 사회로 관심을 돌려 봉사와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교에 대한 봉사와 기여는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공학 50주년을 함께 축하하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모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축제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인 사 의 말 씀

이명/ 여학생처장, 아동학과 교수

연세백양 - 남녀공학 50주년 기념 특집호 - 발간을 축하하며

연 세가 111년의 역사 속에 50년 전 남자대학에서 남녀공학으로 탈바꿈한 일은 여성교육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에 있어서도 용기있는 결단이었으며 선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서양의 경우처럼 여성들이 투쟁을 하여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거의 초창기 남성 지도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남녀동등권 실현을 위해 내린 용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학교 본부에서는 숫적으로 열세한 여학생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학생 전용 공간(논지방, 알로하 등)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여학생을 위한 교양과목을 설치하고 학교 행정 본부에 여학생 전담 가구인 여학생처를 두고 여학생처장을 임명하는 등 국내의 다른 어느 대학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당시로서 획기적인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남학생들에게는 남녀평등 이념을 가진 '서구식 신사도'를 발휘하도록 교육시킴으로써 단연 시대를 앞서가고 선도해 가는 역할을 하였음을 자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축과 함께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돌아켜 보면 그 연속선 상에서 나타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연세 가족과 동문, 그리고 연세를
아끼며 사랑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채찍질하여
학교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녀공학 제도를 도입하고, 그동안 많은 우수 여학생들을 입학시켰으나 여학생을 위한 조기의 특별배려 정신은 점차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사회의 남성 위주 문화가 캠퍼스에 그대로 전파되어 여학생들은 아직도 여성비하나 성차별의 두터운 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주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연세의 남녀평등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학생처가 중심이 되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대학 구성원 모두의 무관심과 학교 당국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상징적인 역할 이상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더욱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5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연세가 키워낸 수많은 여동문 중에는 사회에 나가보기도 전에 학교에서부터 남성 위주의 문화에 순응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지도자의 길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여동문

들은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거부받으면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활약해 왔으나 남자 동문에 가려서 모교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우수한 여학생들의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르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키워내고 또한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에게는 영원한 울타리가 되고 동문간의 연결고리를 맺어 줌으로써 더욱 영향력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각 계 각 층에 흩어져 있는 연세 여동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연세여성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다가올 21세기는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남녀가 함께 책임도, 부담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도록 교육받은 연세대학의 인재들이 지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연세여성이 이끄는 21세기, 이제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훌륭한 여성 인력들이 배출되기만 할 뿐, 사회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이는 연세대학교의 큰 손실이자 역사에의 역행입니다. 이들 연세의 우수한 여성 두뇌들이 사회에서도 우수한 두뇌로서 지도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빛나는 연세여성의 21세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세 가족과 동문, 그리고 연세를 아끼며 사랑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채찍질하며 학교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세백양 특집호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다짐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이 특집호 발간을 위해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세백양 특집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여성의 양보와 희생만을 미화시키지 않는 사회

남녀 대졸자 비율은 60대 40인데
50대 대기업에서의 여대생 채용비율은
8.6%에 불과하다. 여대생의 취업부진은
여성 자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성인력이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여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전체의 발전이 저해되어
남녀간의 평등이 이룩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장영/ 연세대 강사
71년도 경제학과 졸업

지 하철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광고들 속에는 나
를 씹쓸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다. 세계 일류
로 가는 길이라는 공익광고는 그 의도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 듯
하다. 대기업의 사원인 젊은이는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시계를 5분 일찍 맞춰 놓는다고 말한다.
한 대학생은 컴퓨터 앞에서 플로피 디스켓을 들고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중년의 한 택시기
사는 운전 중에도 영어회화 테이프를 들으며 영어공
부를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모두 남자들이다. 그들
옆에서 가정주부인 듯한 한 여인은 자신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로 가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광고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
이 어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은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자신
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보다는 남성이 사회에
서 활동하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눈에 안보이는
곳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된다는 기대를 읽을
수 있다.

매년 5월이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강한 어머니
상과 효부상의 수상자들에 대한 감동 어린 희생적인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후
에도 시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머니나 시아버지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인고
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무척 감동적이
기는 하다. 자신들의 학업은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
하면서 번 임금으로 남동생이나 오빠의 상급학교 등
학금을 대는 여공들은 이제는 없는 지 모르겠다. 우
리 사회에서는 왜 주로 여자들만이 이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고 또 현재도 살고 있는지 생
각해 보게 된다.

유교사상의 영향이 이와 같은 남존여비적 사고방식
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한 것이라면, 같은 유교문화
권인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 기업이나 정부조직의
여성의 사회활동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앞
서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남녀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태아의 성감별을 해주는 의사를 처벌하고 여아
를 많이 출산하는 가정에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
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얼마전 읽었다. 그러나 여아출
산에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고 우리나라의 남녀성비 불
균형이 바로 잡힐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단순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남성
에 못지 않은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
어야만, 남아선호 사상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성비의
불균형도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남을 위해 자신을 양보하며 희생하는 것은 분명 매
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중 주로 여
성쪽에만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며 그것을 미화시키
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이제 양보와 희생은 남
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덕이 되어야 한다.

얼마전 미국의 한 여자대학에서 특별연사로 초대된
미국의 여성운동가인 글로리아 슈타이넴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자국을 대표하는 무역통상협상
단의 대표와 같은 중책을 여성에게 맡기며, 펜실베이
나 대학과 같은 명문대학에서 여성이 총장을 하고 있
는 우리가 보기에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너무나 우
리보다 앞서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부러운 미국이었
지만, 그녀는 아직도 미국 사회에 여성의 승진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하
는 데 대해 통탄해 하며 여권신장을 위한 여성의 단결
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열변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었고, 나는 그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지난 4월 총선시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두 명
당선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
안 여성은 몇 명 양념처럼 전국구 국회의원에 포함되
어 있었을 뿐 지역구에서는 수년만에 당선자가 나온
것 이라고 알고 있다. 이백수십명 중 불과 두 명은 물
론 너무나도 적은 수이지만 첫 술부터 배부를 수 없다
는 생각으로 앞으로를 기대해 본다.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위치도 조금씩 바뀌어 가
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부장제도에서는 남편이
높은 곳에 있고 그 밑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수직적
인 가족관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해 왔지만, 이제
이것은 변화되어야 하며 비록 매우 속도가 늦기는 하
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제 결혼이란 부부가 평
등한 동반자로서 인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며 부부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국의 남
성들이 곧 받아들여야 하게 될 지 모른다.

남녀공학 50주년을 맞아 이제 연세대학을 졸업한 여
동문들의 수가 3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 최
고의 사립 명문대학의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우
리 연세 여동문들은 우리 사회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에 만
연되어 있는 남존여비 사상과 남녀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남성도
변해야 하겠지만 우리 여성 스스로도 변화하여야 한
다.

우리 자신부터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우리도
평등하게 대접받기를 기대하여야겠다.

우리 연세 여동문들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활
동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장관,
대사, 대기업의 전문경영인, 통상협상단원 중에 우리
연세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멀지 않은 그 날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연세 남녀공학 50년사

1946. 8. 15

연희 전문학교에서 문학원, 상학원, 이학원, 신학원의 4학원과 11학과를 가진 종합대학 연희대학교로 승격되면서 학학에서 입학 자격 중 '남자'에만 국한하던 조항을 없애버림으로써 여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국내 최초로 남녀공학 제도가 도입됨.

1947. 9.

연희대학교 최초의 여학생으로 10여명이 입학하였으나, 이정현(영문), 민순기(영문), 김혜선(사학), 김 연(영문), 박찬우(정치), 최규덕(신과), 김순덕(상학)만이 졸업함.

1948.

학교당국은 남·녀 공학제도의 의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여학생들만의 친목단체 성격으로 녹양회를 조직해 주는 한편, 휴식공간, 여학생들만의 체육, 교양학과 시간을 제공함.
녹양회(綠羊會)란 이름은 당시 원 한경락사 부인께서 명명함.

1951. 10.
~ 1953

부산 영도산 중턱에 마련된 천막 교사(校舍)시절에는 기독교학생회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참여하고 기독교적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에 주력

1954. 7.

학교가 신촌 캠퍼스로 돌아온 후 확장계획의 일환으로 여학생 생활관을 마련하고, 당시의 백낙준 총장께서 이름을 '알로하'로 명명. 한자로 '鸛鳴堂' 즉 신라 박학거사장비 '알영'에서의 '알'과 고려 공민왕비 '노국공주'의 '로'를 따온 것으로 후덕한 여성들의 집이란 뜻이며, 하와이 교포들의 회사로 되어진 곳이기도 하여 하와이 말인 'Aloha' 즉 반갑다, 고맙다는 인사 뜻도 내포됨.

1954. 9.

남녀공학제도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여학생 특별 프로그램으로 '여학생 생활실습' 6학점 과목(가정경제, 가족관계, 아동학 등)을 개설하였고, 실습 교육장소로 생활관인 알로하를 활용, 졸업하기전 한학기동안 이 곳에서 생활케 하였음.

1955. 9.

연희대학교 전교생 무시험 입학전형 실시후 여학생수가 증가. 여학생수의 증가로 여학생 지도를 전담하는 여교수 임명함(최초의 여학생 지도교수: 심차선(52 사학과 졸업)) 생활관 담당을 겸임케 함.

1955. 10.

친목단체로서의 녹양회가 조직을 갖춘 여학생회로 전환되어 활동을 전개함.

1955. 11.

여학생들의 교양을 높이고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휴식을 위하여 '논지당(論志堂)'을 신축함. 백낙준총장께서 '모여서 뜻을 의논하는 집'이라는 뜻과 Lounge의 동의어로 명명함.

1956.

여학생 전담지도 기구로서 행정본부에 여학생처가 출범. 논지당에 사무실을 두었고 초대 여학생처장으로 최이순 교수가 임명됨. 지방 여학생들의 증가로 생활실습장이었던 알로하를 가숙사로 전환. 따라서 여학생들만의 과목을 정규과목으로(3학점) 채택하여 실시.

1957.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연세대학교로 통합되어 연세대학교로 되면서 3년제 간호전문학교가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인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승격(초대학장:홍신영교수). 제1회 여학생 22명이 4학년으로서 이과(理科)대학에서 공부하였음.

1958.

남·녀 공학에서의 여학생 교육을 더욱 효율화시키는 뜻에서 체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여교수(한양순 교수)를 임명.

1972.

여학생기숙사 '알로하'와에 '미우학사(美友學舍)', 건립. '아름다운 친구들의 학문하는 집'이라는 뜻과 U.B.재단에서 회사해 준 뜻도 가리면서 당시 박대선 총장이 명명함.

1975.

녹양회가 해체되고 여학생회는 학도호국단에 제 3연대로 개편됨.

1976.

여학생처에서 '생활과 교양' 과목을 최초로 개설 ('여성학'의 전신)
여학생 취업강화 필요성 대두 : 취업 특강 실시

1979.

최초 여자동문 모임으로 백양모임이 발족됨.
(초대 백양모임 회장: 문은희(63 교육졸))

1980.

학원 자율화조치에 따라 학도호국단체제가 총학생회로 개편되고, 여학생대표 기구는 여학생부로 개편. (이때 여학생부는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었고, 총학생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여학생처장의 지도로 독자적 활동을 함.)

1981.

간호대학에 남학생 입학

198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학생처가 중심이 되어 노력한 끝에 여직원 결혼 후 6개월내에 자진 사퇴하는 직원의 성차별적 규정을 폐지 시킴.

1983.

U.B.지원연구비로 4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생애개발 워크샵' 실시.

1983. 3.

가정대학에서 남학생에게 문호개방

1984.

여학생처에서 '생활과 교양' 의 첫 교재 발간 (제목: 조화로운 남녀관계의 인간학)

1985. 3.

'생활과 교양' 의 교재를 위해 '남녀평등의 문제'를 엮어 인쇄함.
이는 '남녀평등과 인간화'의 기초 자료임.

1985. 11. 「남녀공학과 여성교육」을 주제로 백양모임 주최, 여학생처후원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함.
1986. 3. 최초의 여성학관련 대학교재인 「남녀평등과 인간학」을 여학생처에서 엮고 「현상과 인식」에서 출판함.
1986. 11. 남녀공학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주제: 남녀공학, 이대로 좋은가?)를 여학생처 주최로 개최함.
- 1986 - 89 U.B.의 지원을 받아 여학생처주관으로 여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생애개발 워크샵을 3년간 실시함
1988. 5. 여학생대표가구가 총학생회에서 독립하여 총여학생회로 발족됨 (초대 여학생회장: 이은희(90 철학졸))
1989. 9. '생활과 교양' 과목명을 '남녀평등과 인간학'로 개정하고, '여성학'과 함께 남녀공동 교양과목으로 개설함.
1993. 4. 백양모임을 장식 조직을 갖춘 총여자동창회로 발족 (초대 여자 동창회 회장: 이상희('58 교육졸))
1993. 9.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의 재교육 및 연세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의 연계를 위하여 여학생처에서 「고위 여성경영인 과정」을 신설함.
1994. 11. 여학생처 주선으로 대학내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폭력 신고전화(Hot-line) 여학생처 내에 설치함.
1995. 1. 여학생처 주선으로 연세출신 여성 언론인 모임을 발족함 (초대회장: 신동식('62 정외졸)-총회원 262명)
1995. 5. 연세출신 여성 대학교수 모임을 발족함 (초대회장: 이 상란('61 경제졸)-총회원 305명)
1995. 6. 여성연구소 설립(초대 여성연구소장: 이 영 교수)
1996. 6. 현재 여성학관련 교양과목으로 「남녀평등과 인간학」, 「여성학」, 「한국 사회와 여성문제」, 「여성과 문학」, 「성과 남녀관계」 등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음.
1996. 6. 현재까지 배출된 여동문 수는 약 35,000명(전체 동문의 21%) 방송언론계, 광고계, 개인사업, 대기업, 금융계, 학계, 교육계, 행정·사법계, 사회봉사, 문화예술 등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음.
현재 재학중인 학부 여학생 수 6,042명으로 전체 학부생의 27%임
(문과대 1,323명, 상경대 277명, 이과대 520명, 공과대 331명,
신과대 30명, 사회과학대 361명, 법과대 144명, 음대 425명, 생활과학대 625명, 교육과학대 217명,
의과대 129명, 치과대 113명, 간호대 381명, 원주캠퍼스 1,166명)

남녀공학 5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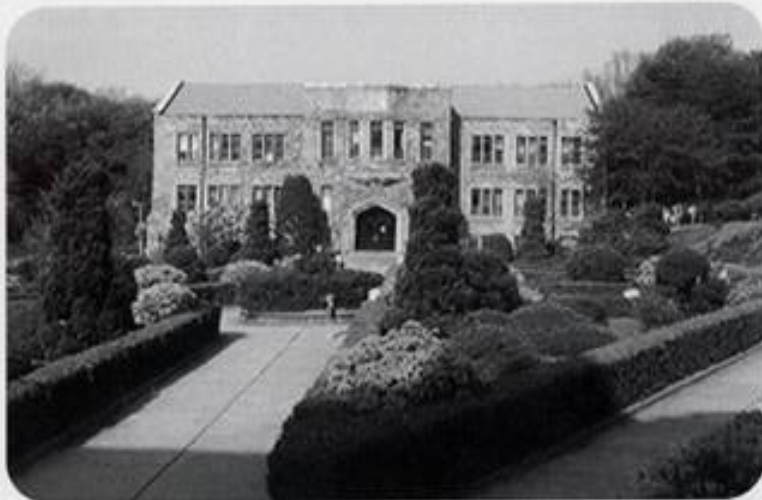
1. 논단
2. 역사의 창
3. 연세! 우리의 연세, 연세, 연세!

특 집



남녀공학의 긴여정

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글

이 글은 연세대학교가 남녀공학을 실시한 지 50주년이 되는 지금, 이제까지의 실행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남녀공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 위해 씌어졌다. 이는 단지 연세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자대학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여성교육과 공학교육의 의미와 문제점을 새롭게 고찰한다는 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우선 여성교육의 역사는 공학의 역사보다 길다.

20세기 초 민족 지도자 층은 인구의 절반인 여자도 교육을 시켜 국력을 키워야한다는 점에 일단 합의를 보고, 남녀유별적이긴 하나 여성에게 제도적 국민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 결과 1886년 이화학당을 효시로 1910년에는 여성중등교육기관이 174개에 달하게 되었다.(오인탁 1986:38). 일본 제국주의 정부 아래서 일본은 조선반도를 자본주의화하기 위해 여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장려하였고,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국력'을 위한 수단으로 여성교육을 생각했던 만큼, 여성의 인격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교육'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봉건적인 '남녀유별'의 이념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 공학의 시작

연세대학교의 전신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이다.

연희전문학교는 1917년 일제 식민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 '학칙 제1조에서 입학자격을 '조선인 남자'로 못박고 있다.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은 연희전문학교를 연희대학교로 인가하였는데, 새 학칙 22조 입학조건에서 '남자'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반면 1906년 간호원 양성으로부터 시작된 세브란스는 '간호사는 여자만의 직업'이라는 남녀유별적 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공학의 원리에서 된 것은 아니다. 1917년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가 생기면서 입학자격 요건으로 '1. 선량한 성격: 2. 만 20세 이상된 자: 3. 의사로부터 의학공부하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합한 자: 4.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연세대학교사 1969:77)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년 후 '만 17세 이상의 남자'로 학칙이 개정되었고, 1951년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 두 대학은 1957년 합동하여 연세대학교로 체제개편하여 지금에 이른다.

3. 형식적 남녀공학 교육이라는 비판

오인탁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여학생의 수적 증가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1957년 사이를 공학의 시험시대로, 1958년부터 1979년까지를 공학의 준비시대로, 1980년대 이후를 본격적인 공학시대로 보고 있다. 각 변화의 기점은 경제성장과 관련되어 있어 여학생 수는 경제적 부흥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의 성비는 전국 대학교의 성비 변화와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지만 1970년대



조혜정/ 연세대 교수, 71년 사학과 졸업

에 들어 전체의 20%를 넘어선 후 20-30%선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려는 여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격적인 남녀공학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준상 교수(1986)의 지적대로 한국에서의 남녀공학은 여자들의 투쟁에 의해 얻어진 사구와는 달리 '뜻하지도 못했던' 선물이었던 까닭에 "사회정치적으로 여성의 해방논리라는 감각이 결여되고 있다"(1986:8). 따라서 남성중심적 제도로써 대학은 여학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내외법의 이원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실질적 공학을 해내려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4. 1950-1990년대: 실질적 남녀공학 교육의 두단계

연세 50년사를 보면 실질적인 남녀공학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단계는 여학생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

진 시기이다. '알로하'로 명명된 생활관이 1950년에 마련되었고, 1955년 독자적인 여학생 자치활동기구인 녹양회가 발족하였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휴게실인 '논지당'이 신축되었다. 1956년에는 여학생 전담지도기구로서 행정본부에 여학생처를 설치하여 대학 당국에서 서서히 여학생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 여성을 기른다는 면보다는, 남성 중심적 분위기에서 여자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나름대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는 면이 더 강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대학당국의 배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여학생, 여직원 그리고 남녀평등에 관심이 많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남성중심적 체제를 고쳐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의 일이다. 이 면에서도 연세대학은 단연 선구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우선 남녀평등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당시 남학생 교련시간과 맞먹는 과목으로 여학생 필수 과목인 [생활과 교양]강좌가 개설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남녀평등과 인간화]라는 제목으로 교재가 출간되었고, 곧 이어 같은 이름으로 강의명이 바뀌었다. 1980년대 후반에 학생측의 요구에 따라 남녀평등에 관한 강좌가 늘어 교양과정에서만 여섯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여성학1,2](남녀평등과 인간화)[여성과 문학][한국사회와 여성문제], 그리고 [여자의 성]이 그것이다.

1980년도에 들어서서 여성의식이 높아지면서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직원 채용시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결혼 퇴직 각서제도]를 폐지한 여직원 운동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80년대의 뚜렷한 움직임은 총여학

생회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여자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들고 나온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엄밀히 말하면 총여학생회는 주체적인 여성조직을 갖고자 했던 여학생들과 총학생회의 확장으로서 여성조직을 원했던 남학생들이 만들어낸 시대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중노동을 하는 취업주부가 그러하듯 총여학생회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1990년대, 실질적 남녀공학 문화가 성숙하는 시대를 열며

10년 전 '남녀공학 이대로 좋은가?'라는 세미나에서 한준상 교수는 실질적인 남녀공학을 이루어내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하였다. 1)여학생 공간 확보와 교양체육 개선, 2)남녀공학 교양과목 남녀 필수, 3)연구활동 강화와 여성전문인력 양성, 4)평생교육원 설립과 사회교육활동 강화, 5)성차별 시정 기수 설치와 제도적 운영 등이다. 그 동안 한교수가 언급한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었는데, 예를 들면 1995년에는 여성연구소가 설립되어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남녀공학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 한 해 전인 1994년에는 성폭력 신고전화가 설치되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90년대 들어서 연세대 여동문 모임, 여직원 모임, 여교수 모임, 총여자동창회 조직, 교외여성 경영인 과정 동창모임 등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이 조직되었다.

1990년대 전반이 이렇게 분명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여성모임들이 만들어진 단계였다면, 1990년대 후반은 이러한 움직임이 성숙해 나가는 시기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

면서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로 첫째 여교수 채용과 여직원 승진 및 교육, 둘째 여대생 취업과 여동문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셋째 건강한 공학문화의 정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여교수 채용과 여직원 승진 및 교육

현재 연세대학교 여학생 비율은 27%를 차지한다(여학생처 자료). 그러나 여교수의 비율은 1996년 3월 현재 문과대 8%, 이과대 3%, 사회과학대 3%, 교육과학대 9%, 그리고 법과대 0%이다. 유능한 학생들을 길러내서 교수를 만드는 것도 교수들의 한 의무라면 이제껏 그런 여교수를 기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여학생들을 격려하고 길러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여직원 수는 111명으로 전체 직원수의 30%에 달한다. 그러나 승진 면에서 보면 여직원은 거의가 주임 이하 수준에 있다.

일세기 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들이 가부장제의 품안에 있는 한, 자신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잘 보호해 주지만 일단 품밖에 나가면 여지없이 혼을 내주려는 경향을 보인다. 개화기 이래 여성교육에 관한 운동은 이러한 개화기적 멘탈리티를 가진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벌이는 일

을 적극 돕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며 관료적인 성격을 안고 있어서 대학개혁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대학행정 차원에서 종종 드러나는 보수성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한 마찰만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다.

2) 여대생 취업과 여동문과의 네트워크

요즈음 여학생들이 취업에 집중하기보다 맛을 내고 남자친구를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아예는 나름대로 사회적 원인이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현재 여학생들은 80년대 여



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지도 않다. 80년대에 비해 취업의 문이 크게 좁아진 것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은 선배 언니를 보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봤자 신나게 일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리 알고 있고, 직장에서 여자를 여러 면에서 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10년 전 대부분의 똑똑한 여대생들은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해보려는 결심이 대단하였는데 반해, 이제 똑똑한 여대생들 중 많은 이들이 더욱 '영리해져서' 결혼을 통한 자아실현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능력 있고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나서 육아와 소비를 통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힘들게

일하고 구박받는 월급쟁이보다 낫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생활에서 남녀공학 대학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주체로서 자아실현을 해 나가도록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등한시해온 여성취업의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고무적인 예로 한국과학원의 전산학과에서는 추천한 여학생의 서류를 보유하고 남자를 추천해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성차별을 하면 다시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노라 하여 여학생을 취직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의 남녀차별적 관행에 맞설 때 대학과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세대 출신 여동문들 중에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 개인능력 위주이며 대인 관계망도 넓지 않은 편이다. 선후배 관계나 동창 응집력도 그만큼 낮다. 오로지 자기의 실력으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면 여동문들 간의 관계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남녀 공학의 문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바뀐 대학 풍속도 중 두드러지는 것 하나는 남녀교제가 대학생 생활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80년대에는 학생운동이 주도하는 분위기에서 남녀교제가 학생활동의 중심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반체제 학생운동권이 퇴조하고 본격적인 소비 자본주의 경향이 짙어지면서 90년대 대학문화는 급격하게 외부 상업주의 문화 속에 빠져들고 있다. 대중매체와 광고에 의해 형성되는 상업주의 문화에 대학생들이 길들여지면서 개그맨적인 놀이문화나 성욕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문화가 대학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남녀공학 대학은 건전한 이성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실험하는 산실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성적 상품으로 용해해 버리는 상업주의적 분위기와 서로를 도구화하는 경제주의적 압력을 벗어나 동료로, 평생의 친구로 포괄적인 사귀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이러한 관계형성을 해나가는 진정한 공학인들만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자신을 지키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6. 마지막: 모두가 다같이 어가는 길 찾기

연세대학교는 초기에는 선각자적인 남성교육자들

의 노력에 의해, 후반기에는 여성 자신들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새로운 남녀관계의 역사를 열어왔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학에서의 남녀공학의 실현은 단순히 여자의 권리를 찾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하는 실험적 작업임을 확인해 왔다. 진정한 공학을 이루어내는 것은 남녀가 진정한 벗으로 함께 사는 길이며, 따라서 남녀 모두가 함께 이기는 길을 찾는 것임을 또한 확신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근대사는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에 급급하여 우리 내부의 능력과 자질을 길러내어 사회 전체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이며 열린 사고가 필요할 때이다. 남녀공학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는 여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고, 주체적인 세계시민으로, 국민으로, 주민으로, 그리고 연세의 주인으로 살게 될 때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드는 이 사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며, 연세대학교 역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와 자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참고문헌

- 연세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회, 1996. 연세대학교사, 연세대 출판부.
오인택, 1996. "공학에로의 긴 여정" (남녀평등, 이대로 좋은가?) 남녀 공학 40주년 기념학술 세미나,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주최, 이동문화와 연세 춘추사 후원, 11월 27일 장기원 기념관, 21-55쪽.
이영, 1996. "남녀공학과 여성의 직업" (남녀 평등, 이대로 좋은가?) 57-78쪽.
조혜정, 1996. "남녀공학의 문화" (남녀평등, 이대로 좋은가?) 79-103쪽.
한준상, 1996. "남녀 공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 방향" (남녀평등, 이대로 좋은가?) 1-20쪽
연세대 여학생처 정리, 1996. "연세 남녀공학 50년 역사."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험한 남녀공학 반세기

-남성문화안에서 목소리를 잃은 여성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 기여하려면 남녀가 적당하게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따라 남녀도 이에 맞추어 교육하게 될 터인데, 반세기 전 남성만을 키우던 (연세 배움터)에서 여성을 처음 받아들이기로 한 때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와 달리 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기독교 문화권인 서구에서는 남자인

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 여겨 여성들이 투쟁해서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사회 문화가 지향하는 것을 대학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실천한 것이었다. 그런데 (연세)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남녀가 자기 발전을 위해 교육 기회를 똑같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그 때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가치와 풍습을 앞질러 다른 방향의 가치관을 실천하려 한 것이라는 차이를 볼 수 있다.

같은 때쯤 이화여자대학에서는 남녀 공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회의원 수의 반이 여성으로 될 때 가서 공학을 고려해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가 되기까지는 여성들을 집중해서 키우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이번 선거결과를 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 동안 여자대학

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이 따로 사는 사회가 아닌 바에는 제대로 교육할 수만 있다면 공학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지도적 인물을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가 남녀 지도자를 다 배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형성해가는 예민한 시기에 남녀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중하며 경험을 함께 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도우며 함께 뜻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의 특성만을 경직되게 고집하여 남자대학을 운영하거나 남성들의 학문하고 일하는 자세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더욱 온전한 특성을 남녀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앞장선 (연세)가 사회의 뒤쳐진 생각을 바꿀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반세기 전 여섯 명 첫 여학생들은 참으로 용기있는 분들이었다. 이제는 3할이 넘는 여학생들이 입학하는데, 오고 싶어하는 이들은 하도 많아서 다 받을 수 없게 달라졌다. 우리 사회의 남녀공학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성의 교육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앞선 연세의 뒤를 따라 다른 남자대학들도 모두 남녀공학이 되었고 몇 안되는 여자대학을 남기고는 여자대학들도 남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공학을 선호하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 보인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받기에 필요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에서도 벗어나 있어서 남녀가 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전혀 억지스러움이 없게 되었다. 서구 사회에서도 여성이 수학을 공부하면 정신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여자들의 교육을 반대했던 것이 겨우 한 세기 전이었는데……

우리 특유의 교육열까지 더해져서 우리 나라는 고학력 여성들을 많이 배출해 왔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전문적인 고등교육 배경을 살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여 기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개별적으로 취업 활동하는 것만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극히 미약하다.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보기에 언론에 취급되는 인물들로 지표를 삼아 보자. 여성들은 거의 없고 간혹 등장하는 사람은 예



문은희/연세대 강사, 64년 교육과 졸업

능계 인물이나 소수 교육계 인사가 아니면 여성단체장 정도이다. 여성에 관련된 논의는 가정문제 같은 사적인 영역에만 연관시키고 있다. 그나마 소수의 공적인 기여를 하는 여성들 가운데 공학출신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봄으로써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남녀공학을 되돌아보고 다음에 올 세대를 위한 성장적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다.

남성 서취인 '남자대학' 안에 있는 여성

극소수 여학생들만 있었던 공학 초기에는 여학생들은 보호의 대상이었다. 연약한 여학생들이 실 휴게실도 특별히 마련해주고 남학생들에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여학생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남학교에 여학생의 영역은 방역지대 같이 따로 존재했고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형식상으로는 공학이지만 실제로는 남학교에 여학생이 기쁨방울 같이 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 중반에 무시험제를 하면서 서울의 일부 여자 고등학교에서 많이 지원하게 되었으나 (홍일점의 변)

이라는 학교 신문의 컬럼이 이야기하듯 아직도 그 수가 적었다. 과대표를 여학생이 한다든지 학생회장을 임두내는 여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차츰 여학생의 수가 늘어 신입생 가운데 30% 이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남녀학생이 고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도록 공평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90년대 간호대학 졸업하고 남자가 섞인 대학에 학사 편입한 한 학생의 경우를 보자. 여학생들과 여교수들과 지낸 간호대학 때는 여자라는 것을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고 지냈는데 옮겨간 그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수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여학생들만 편중된 대학에서는 여자대학 같이 여학생들끼리 책임지고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훈련의 기회를 갖는다. 그런데 그것이 공학이 되었을 때는 판도가 고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여학생이 비교적 많은 음대의 경우까지도 교수들이 남자제지만 키우려한다는 인식 때문에 여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나 학교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표현된 교수들과 남성 학우들의 편향된 태도로 해서 여학생들이 좌절을 겪거나 격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재래적인 통념으로 여학생을 대하는 경우 말이다. 고정관념으로 여성의 역할을 보고 있는 사회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생각으로 공학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성의 기준으로만 교육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특성이라든지 경험 배경과 거기서 개발된

자질은 존중하는 자세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조절·동화하며 함께 변화 발전하는 공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쪽 편 남성이 여성을 조절하고 여성만 동화하기를 기대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뜻의 공평한 공학이라 할 수 없고 실제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여학생이 없혀 있는 '남자대학'으로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인 증상'을 갖게 되는 공학의 여성

공학의 여성들은 그 숫자와 관계없이 주도적인 힘을 잃은 '소수인 증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 거침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지 못하고 남성의 힘에 억지로 밀리거나 억세게 저항하게 된다. 협력할 수 있는 동료로 남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로 보아 그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빼앗기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취한다. 적절히 자기를 조절하여 무난히 순응하거나, 적대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하며 살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일부 여성들은 남성의 기준을 자기 것으로 채택하여 남성이 아니면서도 남성같이 살아간다. 그러나 남성 사회에서 명사가 된 극소수 여성들도 겉보기와 달리 '주변인' 구실 밖에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희소가치' 때문에 존중받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뿐,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자유롭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성 세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판단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기존 세력인 남성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다른 여성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소수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여성 사이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도 뽀빠이 흩어져 주도적인 남성세제와 문화에 적응해 가며 생존 경쟁을 한다. 남성 문화가 선호하는 여성이 되려고 하거나 맞서 도전하는 방도를 취하든지 삶의 어느 단계에 남성에게 선택받거나 남성을 선택해야 하므로 남성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종 문제나 종교문제같은 심각한 문제를 대했을 때 바람직한 해결법은 아닐지라도 서로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나마 갈등을 비껴가며 살 수 있다. 그러나 남녀 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남자가 따로 살 수 없는 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고 절실하다. 독자성을 가진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가족을 강조하는 우리 문화 안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소수인 특성'을 가진 공학의 여성들 사이에는 충성스럽고 끈질긴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공학한 여성 스스로도 인정하는 말인 "모두 저마다 잘났다"는 말로 잘 서술하듯이 서로 칭찬하는 것에도 인색하다. 선배도 알아주지 않고 후배의 뒤를 밀어주는 선배도 거의 없다. 까마득한 후배에게도 경어를 쓰는 풍토이다. (여자 대학 출신들 사이의 선후배의 남다른 관계와 대조적이다.) 그러기에 공학 출신들은 남성들이 설정해 놓은 일, 개인으로 하는 일에서는 여자대학 출신보다 그 성취가 알릴 수 있으나 여성들 사이의 유대를 요구하는 일에는 뒤진다. 바깥 사회와 전혀 다른 여자들만 되어 있는 사회에서 예만한 몇 해를 활발하게 지내온 여자대학 출신들은 주도적인 경험을 했고 여성 특유의 문제 해결력, 사회기술과 적극성을 잘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의 사회 지원 체계를 구비하고 사회로 나가서 여성끼리 하는 활동을 지속시킨다. 여성 단체 활동은 단연 여대 출신으로 주도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여성 경영자들은 여대 출신

이거나 고등 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은 것에서 공학의 여성을 살펴 반성하게 된다.

다음 오는 반세기 공학은 밝게!

지나온 반세기 공학을 뒤돌아 보면 공학을 거쳐 나온 여성들이 개별적으로는 있는 자리를 현명하게 잘 지키고 있으나 공적인 영역에서 기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문제의 원인은 공학 제도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좋은 그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학이라기 보다 '남자대학'을 운영해 온 것이라는 반성은 공학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게 한다. 공학의 정신을 철저히 실천해야만 변화해가는 바깥 사회보다 뒤쳐지지 않고 사회의 발전을 앞서서 이끄는 바람직한 남성과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된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공학의 틀에서 그들 특유의 '목소리'를 알지 않아야 한다. 서로 사람 대접하며 사람 대접 받는 민주적인 열린 사회가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한다면 공통되는 바탕인 정신을 늘 의식하도록 함으로써 공학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마다 잘났다'는 행동 방식을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선배라고 권위부리지 않고 후배라고 당연히 보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선후배 가림없이 서로 특징을 존중하며 배우고 가르쳐 어깨를 나란히 공통의 정신을 향한다면 새 사회의 성원으로 바람직한 속성으로 꽃피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공학은 좋은 제도"임을 언제나 머리에서 지우지 않은 채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합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실천하면 다음에 올 두 번째 반세기 맞이해서는 '하늘의 사명'을 다했다는 칭찬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와를 변호하는 여성신학을 소개한다. -연세 남녀공학 50주년을 맞으면서-

모교인 연세대학교가 남녀공학을 시작한 지 금년이 50주년이 되어 여동문들에게 그 의미에 관한 글을 요청받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연희전문에서 연희대학교로 변모하던 1946년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공학을 시작하여 50년의 역사를 이어온 지금, 여동문들이 모교의 강단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요즈음은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아질 정도로 증가하여 여성교육을 육성하는 고등교육 현장으로 자리를 잡아서 여고생들의 모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들었다. 아무튼 반갑고 축하할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성교육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개화사상의 대두와 아울러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이루어졌는데, 20세기 초 정부와 민간인이 세운 학교들은 대부분 남자를 위한 교육이었지만 기독교에서는 남학교를 세우면 반드시 여학교를 세우는 남녀평등주의를 채택하여 여

성교육에 큰 관심과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연세 이전까지는 그것이 여성만으로 구분된 여자학교에서 공학에서 이루어지는 여성교육의 첫 장을 연세가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세의 창립 당시에는 이 땅의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해 내어야 한다는 절실한 목적이 있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인데, 1946년 연세가 남녀공학을 실시한 배경을 보면 해방 후 우리 사회가 혼란한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도력의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또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지려는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학생들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연세가 남녀공학을 시도한 정신에는, 기독교 전래 초기의 남녀평등의 정신을 기독교 대학인 연세가 이어받으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교육을 꿈꾸면서 남녀공학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최만자/
성공회 신학 대학 여성신학 강사,
66년 신학과 졸업



생각한다.

기독교는 우리나라 19세기 말 참으로 남학여맹(男學女盲)이 절대적인 풍토였던 전근대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교육을 감행하여 여성을 한 인격으로 끌어올려 남녀평등한 관계를 이루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많은 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거나 한국에 전래된 초기 기독교는 한국여성을 해방적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공헌하였다고 본다.

역사가 문일평은 당시 조선여성들에게 미친 기독교의 영향을 이렇게 표현한다. 첫째로 여성들이 자신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소유자임을 발견하여 신 앞에서는 남녀가 평등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 둘째로 여성이 그 동안 오직 육체에서만 생활하던 것에서 해방되어 일요일에 반드시 교회당에 나아가서 남성과 한가지로 청강할 권리를 얻게 된 것. 세째로는 일반 여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조선문자가 크게 보급된 것. 마지막으로 여성교육이 기독교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개화된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민족독립운동에도 참가하게 되었고 해외로 유학도 가게 되었고 여성운동도 확

산시켜 나가게 된 것 등 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관립으로 처음 생긴 여학교가 1908년 고등여학령에 의하여 설립된 한성관립여학교(현 경기여자고등학교)인데, 미국의 남녀선교사가 입국하여 여성교육을 시작한 것은 이보다 23년이 앞선 1885년이다. 다른 여자대학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1946년에 연세가 남자대학을 벗어나서 여성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남녀공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에는 이 같이 남녀평등에 대한 기독교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남녀가 함께 공존하면서 사회적 역할들을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가질 토양을 마련해 온 연세의 선구적 안목과 역할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평등사상을 기반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시한 연세의 남녀공학 제도가 과연 얼마만큼 남녀동등하며 상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필자의 견해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학교당국은 여학생을 특별히 배려하여 '알로하' 생활관(1956년 후에는 지방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바뀜)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또 1955년 개관한 '논지당'을 여학생들의 공간으로 배려하였고, 또 '녹양회'라는 여학생회를 조직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학문과 학교행정의 틀 자체가 남성중심적이었고 전근대적 여성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남성과 사회적 동등성과 상호성을 가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

연세가 과거 기독교의 여성해방의 역사와 그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남녀 공학을 시작하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공학대학으로서의 연세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여성학적 관점에서 학문을 발전시키어 새로운 역사진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주도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로서의 여성교육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즉 연세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상은 남성들이 규정한 여성이었지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자체가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50년의 연세 남녀공학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공학 안에서의 여성교육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내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인류역사는 단순히 여성의 권익을 위한 차원에서만 여성문제를 논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처한 현재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들이 여성적 원리에 내재하여 있다는 인식의 새로운 변화를 요청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가치체계 안에서 위계적이며 이분법적이며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학문의 내용과 인식체계가 비판되고, 생명중심적이며 관계중심적이며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안으로부터 나오는 empowering하는 힘의 새로운 규정에 의한 가치들을 제시할 학문에 요청되고 이런 가치들이 바로 여성적 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여성학의 관점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돌봄의 윤리'와 같은 대안적 윤리도 제시되고 있다. 1960년대 제2페미니즘의 등장과 확산 이후 각 학문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전환의 시도들이 크게 이루어져 왔다.

연세가 과거 기독교의 여성해방의 역사와 그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남녀 공학을 시작하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공학대학으로서의 연세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여성학적 관점에서 학문을 발전시키어 새로운 역사진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주도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가 전공한 신학분야에서도 동일한 학문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것은 바로 여성신학의 관점에 의한 연세신학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선 여성의 해방이 기독교의 만민평등사상의 영향에 힘입은 것이라면 이제 21세기를 향하는 이 세계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이끌어 나갈 역사에 대한 신학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의 연세신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모교에서도 인류학 분야를 비롯한 여러 학문적 영역에서 페미니즘을 통한 새로운 세계관과 삶의 형태를 제시하는 노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학을 공부한 동문으로서 신학에서도 그 같은 노력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신학의 교과과정 안에서 성서 내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여성들의 활동과 그들이 어떻게 참 제자적 수행을 실천하였는지를 밝혀 내는 일, 산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인류의 원죄인이 아니라 생명을 최초로 낳은 생명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고, 족장사에서도 여가장들의 중심이 되어 가족사를 구원사에 통합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찾아내며, 기독교 시작의 근원인 부활신앙이 여성제자가 처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사도적 권위가 성에 의해 결정되는 가부장적 질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성서의 여성들이 어떻게 연대하면서 역사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찾는 일 등등을 통하여 여성적 관점에 의한 신학에서 성장해까지 극복이 된 관계중심적이고 생명중심적인 기독교 진리들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다른 학문들과 연대되어 새로운 연세의 학풍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연세 남녀 공학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모색하는 일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여성신학적 작업 가운데 하나를 이 지면에 소개함으로써 신과대학 동문으로서 참여하고자 한다.

연세 남녀공학을 되돌아보며



한상순/ 연세대 명예교수

연 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녀 공학을 실천한 것은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서 남자와 똑같이 여성에게도 큰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큰 뜻을 갖고 미래에 대비한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만든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대학사(大學史)에서 자랑거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움에는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연세 대학인들은 알아한다.

내가 연세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57년부터이다.

연세와 더불어 4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었다. 사건별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생각을 더듬어 연세 딸들의 발전을 위해 여기에 남긴다.

첫 번째 이야기

1957년은 UN이 제정한 '여성의 해'였다. 『평등, 발전, 평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UN이 앞장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이제는 여성의 문제가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적의 문제로 부각되었고, 여성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때, 학생처장이 주관하는 장학위원회가 열렸다. 예나 지금이나 매우 우수한 여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남녀학생 비율로 비교했을 때 수(數)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월등하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되어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첫마디 '여학생이...' 하니까 남자교수 한분이 '다 갖

고 가시죠, 우리는 주격을 들고 부업으로 들어갈테니까요. 총장도 하시지요...'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로 가두 시위를 할 때, 커다란 주격에 표어를 써서 시위한 일이 있는데 그 후 부터는 여성의 문제만 나오면 남성들이 하는 유행어가 '주격들고 부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일등짜리 여학생이 오는 것을 탓하지 말고, 일등짜리 남학생이 연세의 문을 두드릴 연구나 하시죠.'하고 용수한 기억이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여학생 처장님, 여학생처에 50대 할머니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은 처장회의에서 우리 대학의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6개월 뒤에는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재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나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던진 어느 처장님의 말씀이다.

끔찍하다니 나도 50이 멀지 않았는데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끔찍하다니요? 나도 50이 가까워지는데 나 보기가 그렇게도 끔찍하세요? 답배 전내 나는 50대 할아버지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야, 곱게 화장한 할머니가 항해를 풍기면서 어머니같이 상담하는 모습이 월등히 아름답지 않을까요, 부인이 늙으면 어찌죠? 신발같이 바꾸어 신을 수도 없고...'

물론 그로부터 수년후에 그 제도는 없어졌다. 은행도 그러한 악법을 폐기하는 마당에 최초의 남녀 공학이라고 자랑하는 연세가 뒤쫓아서라도 없앨 수밖에 없었겠지.

어쩔 수 없이 아침 일곱 시에 전화 했다가 '재수 없게 왜 새벽에 전화를 걸었느냐?'하고 동료 교수가 따지는 학교 분위기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은 아해가 간다.

그래서 남학생과 학문으로 경쟁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연세에 입학한 일등짜리 여학생이 4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일찌감치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일등짜리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송자교수가 연세의 총장으로 취임한 뒤 기회만 있으면 하시는 말씀이다. 25%가 넘는 연세 여학생이 제 몫을 못하기 때문에 경쟁대학과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힘이 열세라는 것이다.

여동문회의 활동을 돌아보며

연세캠퍼스를 떠난 여동문들의 연세의 얼을 이
어받아 서로의 잠재적 능력을 계속적으로 신
장하고 각자 자신이 자리
한 곳에서 창의적인 삶을

누리도록 상부상조하는 모임을
갖고자 염원하던 마음이 함께 어
우려 1979년 2월 첫 결실을 맺
게 되었다. 연세 캠퍼스 길목에
자리했던 백양나무와 교정으로
인도하는 백양로의 그 정겨움을
따올리며, '백양모임'이란 이름으
로 연세 여동문의 모임이 결성된
것이다. 창립 당시 회원은 600
명 정도였다. 초대회장에 문은희
동문(교육, 64년도졸)이 추대되
었고 이 모임이 결성되기까지 당시 여학생처장이셨
던 한양순 선생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었다. 당시
회칙에 밝힌 모임의 취지는 '연세대학교의 얼을 이
어받아 서로 믿고, 알아주는 마음을 바탕으로 여동
문인 회원의 능력을 끊임없이 키우고, 발전시킴으
로 학교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창의적인 삶을 누리
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후 10대 이상회 회장(교육,
58년도졸)에 이르기까지 백양모임은 선후배의 우
의를 다지고 각종 소그룹활동으로 여동문들의 능
력개발과 여성관련주제 학술세미나를 주관하고 후



주은희/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

배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교발전
기금에 협조하는가 하면 여동문을
위한 뜻깊은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1993년
4월 10일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백양모임은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로 회칙이 개정되었고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로 확대 조직되어 14대
유승미 회장(정의, 63년도졸)에 이
르게 되었다. 그간 역대회장단들의

주요활동을 더듬어 보고 앞으로 여동문회 향방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고자 한다.

초대 문은희 회장은 '여동문들이 걸어온 나이 바
퀴의 테두리는 길고 짧기도 하지만 개개의 특징과
뜻깊고 보람있는 체험들을 광장으로 이끄는 일, 그
체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성찰을 가하
는 일, 그런 내면과정이 기쁨이라는 것을 서로에
서 확인시키는 민주적인 모임'을 구현하고자 애쓰
는 분이다. '백양모임'의 임원은 연령의 높고 낮음

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특별히 여학생들
에게 당부하는 첫 마디가 있다. '자리 값을 하라'는
것이다. 장학금 한푼 받지 못한 남학생도 사회에 나가
게 몫을 톡톡히 하는데 고급 인력인 일동짜리가 그
값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여동문만 보면 '여동문회를 조
직하라'고 권해 보지만 '때가 안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 만에 미국서 공부하고 돌아온
문은희 선생에게 내 뜻을 전했다. '처장님이 도와주
신다면 여동문이 모여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여 조직
된 것이 '백양 모임'이다. 순수한 뜻에서 잠자고 있
는 여동문의 잠을 깨우자는 취지로 여성문제 연구와
지도자 양성,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
등 참 열심히 헌신했었다.

그럼에도 학교 안이 적지 않게 시끄러웠다. '여학
생처장이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등등. 아무리 뜻이
좋고 내용이 충실해도 남자들은 여자들이 무얼 하는
몰을 못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여학생 취업에 힘을 쏟았고, 나름대로 어려
움이 많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키고 중
견간부로서 활동하는 여동문을 볼 때마다 감사할 뿐
이다. 특히 여러 언론사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 주
어서 후배가 취업할 수 있도록 힘써 준 서울신문사의
신동식 국장께 감사한다.

내 번째 여학기

당시 여학생 기숙사가 두 곳에 있었다. 하나는 연탄
불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갖춘 '알로하'고, 또 하
나는 현대식 건물에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수세
식 화장실 시설을 한 '비우학사'로 각각 30명씩 수
용하고 있었다. 똑 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연세의 딸
들인데 어떤 학생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편에서는 언제 연탄가스가 새서 이 세상을 하직할
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처장회의 때마다 여학생 기숙사 신축
문제를 의제로 내놓지만 누구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
는다. 몇 번인가 시도해 봐도 반응이 없는 것은 마찬
가지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었다. 그것이 처장회의
때마다 '여학생 기숙사 신축 기금입니다.'하고 액수
에 구애받지 않고 돈 봉투를 처장회의에 내놓는 일이
다. 이 돈은 바자회의 이익금 외에 티셔츠, 연세마크
를 찍은 포장지, 아프리카 바이올렛 등을 길러서 팔
기도 하고, 때로는 졸업생이 갖다 준 금일봉 등을 모
은 것이다.

그리고 만 3년이 되던 어느 날 처장회의에서 이우
주 총장님께서 '여학생 기숙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처장이 가서 살펴보고 보고하세요.' 드디어 PR
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잘 팔리는 상품도
한 달만 선전을 하지 않으면 판매고가 푹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 작전이 3년 만에 열매를 맺어 미우학사를
백 명 더 수용할 수 있게 증축하게 된 것이다.

'일동짜리 여학생' 고급 인력이 사장되지 않고 자
기 몫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UN이 주최한 제4차 북경 여성회의에서는
2000년까지 모든 정책기구에 여성을 30% 참여시
키도록 하고, 2005년까지는 50%로 확대하여 명실
공히 남(男)과 여(女)가 모든 책임을 함께 지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연세 율타리 안에도
30~50%의 일동짜리 연세의 딸들이 큰 몫을 할 날
이 오리라 기대하면서 남녀 공학 50주년을 진심으
로 축하한다.

보다는 늘 자발성이 중요하게 작용되며, 선출되는 분위기가었다. 1979년 3월 10일 발족이래 회원의 인력 개발을 위해 수행되던 사업과 활동의 기본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연회:** 백양모임의 성격을 규정해 주던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동문들의 현재 관심사와 해결할 과제를 주로 다루었다. 즉 가정에 묻혀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문제,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활동의 방향, 이를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형태의 변화방향,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사회인으로서 여성이 갖추어야 할 자세 등이 논의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소그룹활동:** 비슷한 관심을 가진 각 회원들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매달모임'을 가지고 회원간의 인화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소그룹에는 글로써 표현된 각 회원들의 경험에 대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글쓰기 모임과 독서모임, 사회에 진출하여 능력을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속기반과 외국어강좌반, 자신의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서예 및 목회반, 건강관리반, 제조반, 매듭반, 장식양초 강습반,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발표할 수 있는 연구모임으로 국학연구반, 여성학연구반, 성경연구반 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소그룹형성은 학창시절에 국한된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자신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창립초에서 83년까지 가장 활발하고 다양하게 운영되다가 점차 서예, 목회반과 여성학연구모임, 독서모임 등으로 심화되었고 1985년도 들어 '정외과 여자모임'이 소그룹으로 결정되어 여성자신의 문제와 사회전반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자원봉사와 여성관계 문헌을 공부하는 등 공동관심을 발전시켜 나갔다.

● **불고기잔치:** 1979년 당시 총장부인이시고 백양모임의 명예회장이시던 고 최영옥여사께서 백양모임의

운영을 활발히 하고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학교의 발전상을 직접 보며, 여동문과 학교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기 위해 총장공관에서의 불고기 잔치를 마련해 주신 이래 연례행사로 역대 총장부인들이 협조해주셨다. 당시 불고기잔치에는 결혼한 여동문의 경우, 배우자를 동반하는 등 연세대학가족의 상견례를 나눌 수 있는 정감어린 분위기였다. 1990년에 이르러 '불고기잔치'명칭이 '여동문의 날'로 개칭되었다.

● **기금모음행사:** 1980년에 모교 창립 95주년 기념행사 참여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개최한 바자회와 김밥판매 등 다양한 모금운동이 이후 계속 진행되었다.

● **소식지 발간:** 각 회원들의 근황과 대학의 소식을 여동문에게 전달해주고 백양모임의 내용과 결과를 알리고자 하는 '백양소식'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두 번씩으로 94년 5월 제31호까지 발행되었다. 1990년에 보다 많은 지인의 동문회지 형태의 '연세백양' 1집을 5,000부씩 발간하기 시작하여 매해 여동문에게 배부하며 동문간 연계망 역할을 하고 있다.

● **재학생과 대화모임:** 사회진출과 결혼 등 앞으로의 전로에 관심이 많은 재학생들에게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이상적인 현대 여성상에 대한 대화모임을 가져 신세대를 이해하고 아들을 계도하는 선배배모임을 가져왔다.

● **장학금 지급:** 1981년 대학원 재학중인 일부 회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실시한 이래 1982년부터 김밥판매이익금으로 재학생(당시 법학3, 이종민)에게도 처음으로 장학금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1986년부터 1-2명의 여학생에게 계속 지급되었다.

● **현장견학:** 1987년 구미공단 견학을 계기로 산업현장 및 유적지 견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견문을 넓히고 회원간의 친목을 다질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88년에는 독립기념관 견학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학술모임과 다양한 소그룹활동을 주축으로 여동문 자신의 발전을 목표로 활발히 전개되던 여동문모임은 전체 여동문이 참여하는 여동문회로서의 발전이라는 내외적 요구에 따라 1993년 정기총회를 통해 각 단과대학의 65명 이사와 역대 회장, 여학생처장, 총동문회회장 및 총장부인으로 구성된 18명의 고문도 선임되어 명실공히 여자동창회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1993년 10월 개최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회에서 여자동창회장이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여동창회의 위치가 확보되었다. 그간 여동문모임을 위한 사무실이 없었으나, 현재는 임원진과 여직원도 1명 채용하여 여동창회를 더욱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로서 체계 정비에 많은 노고를 한 12대 이상의 회장은 그간의 공적(보사부 부녀복지과 근무) 경험을 살려 여동문회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와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이나 정기총회보고서 발간 등 모든 문서의 공문화를 시도하였다. 여자동창회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도 총동창회장에게 공문발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

는 용의주도성을 부여하였고 전체 연세여동문을 포용하려는 마음으로 서로 긴밀한 접촉이 없는 단과대학의 여동문들의 경우 일터로 찾아가서 이사 승인서를 받아오는 열심을 보여주었다. 16년간의 불고기파티와 바자회 등의 기금마련행사에 역대 임원진과 회원들이 헌신한 결과, 모금한 기금이 6천여만원에 다다르며, 이 기금으로 그간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 여학생기숙사 중측과 연세 100주년 사업에도 후원하는 등 연세인들에게 적극 참여하여 여동문의 사랑을 전하였다. 이제 연세 여동창회는 각각 '홀

로서기'에 열심이었던 개체로서의 여동문들을 끌어안아, 외로운 투사가 아닌 '정겹고 힘있는 동지'로서 서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생활과 학문의 정보를 교류하는 가운데, 백양로를 오가며 깊이 새겨두었던 빛나는 각성이 다시 우리의 머리를 깨우치고, 잊혀졌던 꿈의 동아리를 풀고 의지를 다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임원진을 포함하여 연세 여동문 모두가 우리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구현하는 실행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남녀공학의 '어떤 산물'이라는 변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남녀공학 50주년의 우리 연분은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할 장년을 이미 넘어서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체제정비와 양적 성장에 쏟은 열의만큼 이제는 초기 모임의 취지를 되살려 여동문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동문 누구나가 참여하고 싶고 우리의 행동준거가 되고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내실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한알의 밀알되어



전산초/ 연세대 명예교수

Q 얼마전 선교사 친구에게서 진귀한 사진첩 하나를 받았다. 이것은 1885년대의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던 시절의 풍습과 인물과 정경을 담은 것들이었다. 나는 그 사진첩을 통해 가난하고 험하고 낙후되고 힘 없는 외로운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한참동안 가슴속에 스며드는 아픔을 겪어야 했었다. 또한 그 당시의 우리나라 형편과 청년들의 처지를 잘 나타낸 글을 백낙준 명예총장의 저서 나의 종강록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즉, "이 때는 한국으로서는 격동기이어서 바로 1895년 4월에는 하관조약(下關條約)으로써 청국

이 일본에게 정식으로 항복하여 청일전쟁이 끝났으며.....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관으로 피산하니 아관파천(俄館播遷)이었다.

그 당시의 농촌 형편은 무척 곤란하였다. 어다를 둘러보나 빈곤과 질병, 그리고 무지만이 가득하였다. 거기에다가 1904년에 러일전쟁이 터지자 러시아군의 선발대는 서북지방으로 들어오고 서당이고 훈장이고 다 없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적인 비극을 겪는 동안에 나는 가정적으로도 연달아 비극을 겪었으니 양친을 다 잃었으며 형도 없었다."

이와같이 어두운 때에 고통당하는 한 민족의 이웃이 되어 빛으로 인도하고자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안고 미국과 캐나다의 젊은 별들이 선교사로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온것이다. 내가 배우기 시작하기는 자라서 아버지에 게서 천자(天字)를 배우고 동리 서당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사서(四書)까지도 읽었다. 노·일 전쟁 이후 서당이 없어지자 배움의 길동 막혀 동리에 기독교 교회에서 새운 소학교를 마치고 1910년 9월에 선천(宣川)에 있는 기독교 개통의 학교인 신성 중학교(信聖中學校)에 입학하였다.

이들 중에는 우리 대학교의 창설자요, 개척자이신 다음의 분들이 계시다.

1885년에는 알렌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학 병원인 광혜원을 창설하여 현대의학을 도입하였고, 1915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희전문학교를 창설하였다. 1897년에는 쉴즈선교사가 여자의 몸으로 부임하여 최초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시작하였고, 1906년에는 간호학교를 창설함으로



써 폐쇄되었던 우리나라 여성의 해방 운동의 역사적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 전문직업의 우월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이들의 선교사업은 그 당시 우리에게 살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복음전도와 보건의료봉사 및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 111년동안 연세는 국가와 민족과 더불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국권상실, 식민정치, 해방과 군정, 국토양단 및 여러번의 사변이나 전란 등이었다. 사회의 뒤안길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기관을 창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가 있었음으로, 둘째로는 연세를 통한 교육의 "힘"이요, 셋째는 연세창립과 그 목적달성 대열에서 헌신하는 선현이 심은 한알의 밀알이 싹으로 수천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기적과 같은 사실이 가져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오늘 남녀공학 50년을 자축하는 마당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이 심으신 뜻과 전리를 재확인함으로써 이를 전승하고 더불어 새로운 지혜를 창조

하는 일로 111주년 기념사업의 의의를 찾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제 연세 111년과 남녀공학 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를 우리의 안내서로 삼으면서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규모와 대상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확대된 연세 200년을 향한 기적과 실현방안이 연결되는 사업을 성취시키는 것이 가장 의의있는 일이라고 사려된다. 이 새로운 계획의 뜻은 한알의 밀알의 존재가치와 지금까지 남에게서 받았던 대학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주는 대학으로 변화하는 방대한 계획과 준비를 함은 111주년과 남녀공학 50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끝으로 특히 남녀공학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여동문은 앞으로 2,000년대를 대다보는 새 사회의 지도자로서 우리사회와 후배들에게 너그럽고 선하며 의롭고 지혜로운 연세인의 역할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111주년의 의의를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연세의 자유, 그리고 삶의 열쇠

최성자/ 한국일보 생활부장, 76년 사학과 졸업

여 고시절, 이화동산에서 배우던 3년은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었다. 봄 가을 이화의 꽃동산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북잡한 도시의 거리를 지나 정문만 들어 서면 담장 안에는 아늑한 꿈의 세계가 펼쳐졌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모두 앞을 향해 나갔기 때문이다.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곤 서슴없이 결정했다.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곳은 이화와 연세이다. 철따라 파랗게 붉게 그리고 황금빛과 하얀색으로 갈아입는 교정의 모습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10대 말과 20대 초반의 나이를 안정된 정서로 지켜주었다.

다. 먼 여정을 바라보며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과 꿈을 꾀는 길로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조금씩 지식을 쌓고 내 스스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나누어 주었다.

연세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나는 수없이 갈래난 길 위에서 신문기자로 가는 길로 곧장 접어들었다.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연극극예회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게 되었다. 당시 연극극예회는 시내카페를 돌면서 연극을 공연하고, 또 비용을 마련해서 정기공연을 했다. 선배들과 어울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연극에 빠져지냈다. 생활영역이 집과 학교에만 그쳤던 지난 날과 달리 살아가기가 이만저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뒷풀이 술자리에서 온갖 종류

대학으로 가는 길은 시험준비와 더불어 전공학문과 대학을 선택하는 진지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때 한 해 먼저 졸업한 선배들이 자신이 택한 대학을 설명하는 행사에서 "이화동산의 자유스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싶다면 연세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나는 연세를 한번 찾아가기로 했다. 햇벌이 쏟아져 내리던 6월 초에 긴 머리를 짧아 내린 교복 차림의 여고생으로 백양로를 걸어서 올라갔다. 당시는 길 양쪽에 건물도 없어서 마치 벌판을 걸어가는 것 같았다. 그 길에서 사학과에 들어간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다. 너무나 아름다운 뒷길 청송대의 건의사에서 민족사학자 홍익섭 교수와 손보기 교수에 관

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유를 찾게 되었다. 그러곤 일하는 삶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하나는 연세춘추 시험에서 떨어진 사건이었다. 어느 학과 동기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따라 갔다가 함께 필기 시험을 치루어 나만 붙었다.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당시 연세춘추 편집장은 지금 중앙일보 WIN잡지에 있는 고도원 선배였다. 선택권을 가진 고선배는 2명의 여학생 응시자 중 나를 떨어뜨렸다. 그것이 왜 그렇게 분했는지,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기가 생겼다. 기자 시험을 준비해서 대학 4학년 때 한국일보사 공채에 합격하였다.

보통 남녀 공학을 하는 대학은 남자 동문이 여동문을 선후배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동문간의 협력이 적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리 느끼

지 못했다. 취재원으로

서 선후배들에게 받은 도움이 적지 않다.

연세대학이 우리 나라 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남녀 공학을 실시해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이 뜻깊은 해에 내가 기자 생활 20여년의 작은 보람으로 최은희 여기자상을 받았다. 연세의 동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나를 문화계 전문가로 여겨준다. 오래 문화계 분야를 맡아온 까닭이다. 이런 평가 역시 사학과 동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지 모른다. 이번 수상의 이유로 높게 쳐준 나의 두 번째 책 〈한국의 멋·맛·소리〉도 사학과 동문이 만든 출판사 해안에서 펴낸 것이다.

요즘 동문 모임 때문에 가끔 연세 교정에 갈 기회가 생긴다. 여전히 백양로와 청송대는 아

름답다. 오가는 사람은 젊고 싱싱

하다. 건물도 촘촘히 들어섰

고 물결처럼 걸음들이 바

쁘지만 연세에서 젊음을

보내는 사람은 저마다 새





라의 도시와 대학 건물이 갖는 뛰어난 건축미에 감탄을 하기도 된다. 바다와 창공에서 펼쳐지는 더 규모가 크고 활력에 찬 외국 젊은이의 축제를 보고 폭

롭고 넓은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누구나 대학을 다녔던 시기는 잊지 못한다. 잊을 수가 없다. 가만히 옛 대학생활을 회상하면 가슴이 저러온다. 즐겨 앉았던 강의실 자리.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던 봄 햇살. 큰 나무 아래의 긴의자. 바람 불 때마다 밀려오는 꽃향기. 짧은 시간에 뛰어가야 했던 강의실 이동 등등 온갖 일들이 소록소록 생각난다.

왜 사람들은 대학 시절을 잊지 못하는가?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쁨을 이야기하거나, 잘 짜여진 교정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는 도서관에서 보내던 때가 즐거웠거나, 학문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연세를 다닌 이들은 언제나 긴 백양로와 숲이 우거진 청송대 그리고 담장 너머가 감돌아나간 돌집을 떠올리며 모교를 생각한다. 그리고 운동장에 넘쳐나던 연고전의 함성과 더불어 종로와 명동 거리를 열지어 뛰고 신촌에서 "아카리카"를 외치던 기억으로 모교를 연상한다.

그렇지만 살다보면 나라 안 여기저기에 참으로 좋은 길과 무성한 숲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나

자들도 한다. 학문과 교육 수준이 더욱 높은 저명한 외국 대학들도 이제 관광지처럼 가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서 가슴저러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그 시절이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시기였던 까닭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젊음이란 꽃봉오리가 한창 눈부시게 피어날 때 우리는 연세를 다녔다.

간혹 늦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10대 말에 대학에 입학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대에 부풀고 아름답던 몇 년을 교정에서 생활한다. 그 시기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숨이 물을 품듯 어느 것이든 흠뻑 받아들인다. 이 때 받아들인 지식과 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나는 연세에서 이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남편도 만났다. 이런 기억은 머리 속에서 언제나 다시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낸 나의 20 앞뒤의 세월로 또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시간이 갈수록 연세의 생활은 잊지 못할 정경으로 색채가 입혀져서 더욱 소중하게 굳어질 것이다.

찬란한 무늬와 발전 일변도

이기옥/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62년도 행정학과 졸업

시절은 한마디로 눈부셨다. 시작부터 마감까지 참으로 화사했다. 환희로 시작해서 감격으로 채워졌으며 감사로 마친 꿈 같은 성숙의 세월이었다.

연세인!

지금도 이 세 글자는 나를 한껏 부풀리는 요술을 지니고 있다. 그토록 동경했던 집단에 소속될 때, 있는 그대로의 연세가 내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은 당연했지만...

꽤나 좋았다. 1950년대 그 시절 신촌은 진촌이라고 했다. 만지바람이 황량한 연희별을 감돌아 눈을 감게 하는 개인 날은 만지촌이요, 비오는 날은 구두 전체까지 황토빛 옷을 입히는 진흙발 진촌이었다. 교문 대신인 좁은 굴다리엔 살개천이 여학생들에게 조금씩은 겁을 주었지만, 겨울이면 마주선 백양나무들이 용케도 길고 긴 눈의 터널을, 여름엔 그 백양잎새가 찬란한 은색 터널을 이루어 주던 백양로를 비롯하여 돌 한 덩이, 풀 한 포기 그 어느 한구석이라도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가난한 나라,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할퀴고 간 자리에 내동댕이 쳐진 젊은이들은 객관적인 시



야로는 비참, 바로 그것이거나 절망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나는 정반대였다.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요소였다고 나 할까?

입학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은 교수님들의 말씀은 언

제고 벽찬 감격을 되살려 주는 영롱한 어휘들로써 고귀한 가치를 내게 안겨 주었다.

나는 그 때 내 생애의 이정표를 얻었다. 엄밀히 말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젊은 총각이었던 선생님이 멋진 표정과 포즈로 '역사 속에 IF를 설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생애에 IF를 설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몫이다. 특히, '그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다.

다른 하나는 선배들이 도망치는 재미와 묘책을 재빨리 전수해 준 채플 시간에 도망 못 간 아쉬움에 다소 반항하는 몸짓으로 들은 (악마의 일력)이라는 제목의 목사님 설교였다. 40분짜

역사 속에 #를 설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생애에 #를 설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이다. 특히, '그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리 설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의 일력과 악마의 일력은 꼭 같은 한 장짜리인데
신의 것은 오늘이라고 쓰여 있고 악마의 것은 내일
이라고 쓰여 있다. 어느 일력에 따라 자기 생애를 운
영하느냐가 생의 승패를 가름한다는 것이다.

나는 두 가지 충격을 나름대로 수용했다. 두 분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켜 영혼 깊숙히 간직하는 것이
다. '나는 신의 일력을 따르리라. 매일 오늘이 내게
주어진 최초의 날이요, 유일한 날이요, 최후의 날이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리라. 결코 훗날 그 때 그렇
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후회의 씨
를 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열심히 참 열심히 살았다. 공부는 대 학자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에 우물에서 들어왔다고 할까? 내
가 파내는 학문의 광택엔 형언할 수 없는 보화가 있
다는 환상(?)으로 정신적 오만이 극에 달했던 때!
남이 보면 웃었을, 알지도 소화시키지도 못할 원서
를 잔뜩 끼고 쩡쨍거렸다. 참 여러 분야의 철학, 문
학, 종교 등 내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서적을 읽
고 아는 체 심각했던 내 모습은, 지금도 실소를 자
아낸다. 아무튼 더 읽을걸 하는 후회는 없었다. 일
주일씩 밤샘을 하고도 시험이 끝나면 대학생 할인
권을 들고 몇 군데 극장을 순례하는 일이 또한 마땅
한 일인양 기 쓰고 영화를 보아냈다. 그때 영화가
참 좋은 것이 많았다.

시간표는 21학점 신청에 42시간을 짜 놓고 뒀었
다. 반은 도강 스케줄인 것이다. 교내 각 단과대학
이 무대였다. '이군 어째서 시험을 안 치렀나?'하고
물으시던 노교수님께 그냥 씩 웃으면서 '선생님 강
의가 좋아서요.'하면 그만이었다. 수강신청한 학생
보다 먼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들곤 했으니까.

술향기 그윽한 숲에 둘러앉아 친구들과 주고받던
술한 이야기. 모든 친구들이 남자였던 나는 홍일점
이라는 희소가지로 일관했다. 자칫하면 외로울 뻔
한 대학생활을 나는 진정 재미있게 보냈다. 남학생
과 여학생은 물과 기름이 아니다. 검은 실 사이에
끼여들어 빨간 무늬를 수놓으리라는 내 결심은 자
연스러웠다. 모든 친구들을 아꼈고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다.

시간과 의지를 씨줄과 날줄로 하여 생애라는 비단
을 짜가는 길목에서 돌아다 본 그 때 짠 길. 그것은

가장 화사하고 찬란한 무늬를 뽐내는 눈부신 부분
이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때, 모교 100주년
인가? 친구들이 제법 모인 때였다. 왕년에 개구장
이었던 친구가 대뜸 날 보더니 '우와! 심하다. 이걸
코스모스가 탱크가 됐네!'라고 고함을 쳤다.

모든 시선이 내게 총집중되었다. 내가 누구냐. 이
럴 땐 기선을 제압해야지 싶었다. 나직하나 힘있는
음성으로 '발전이란 질적 양적 변화와 증대를 의미
하는 것. 이의 없겠지요? 학생이 교수가 된 질적 변
화, 그리고 코스모스가 탱크가 된 양적 증대는 어
김없는 발전 일변도네요. 현대, 흥안 미소녀가 찢든
중년의 대머리신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
야 하나? 누구 정답 아나요?'했다. 모두는 한껏 웃
어졌었고 우리 못 만나던 긴 세월이 나비날개 접듯
접혀져 버리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 시절로 쉽게 돌
아가는 마음, 그것은 신비 그 자체였다.

'그 때 왜, 송중이집이 날, 미스 리 까무라칠 뻔했
던 거 생각나지? 쓰러만져라, 내가 안아 올린다 했
더니...'. '저런 웅큼하긴...'

'절레가 좋아했을 때 얼마나 계개념화 논리를 멋
지게 폈나?' 그리운 그 시절이여! 황우도강탕에 도
시락 말아먹던 일까지 끔찍이도 소중하다. '야 년
마 빠찌 따먹다 백곰보한테 걸려서 다리 부러진 것
두 모르고 뛰어 도망갔지!' 안나오는 이야기가 없
다. 금세 모두가 대학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
같이 출세해서 나름대로의 중후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과 다시 만난 기쁨이 알뜰기처
럼 온몸으로 번져가던 그 시간에 나는 들었다. 내
모든 학우들의 생애에서 나는 분명 지울 수 없는 찬
란한 무늬였다는 중언을.

연세는 내 영원한 친정. 마음의 고향이다.

연세,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기억의 장

박금자/ 산부인과 의사, 77년 의학과 졸업

73년 본과로 올라오면서 시작된 해부생리, 생화학 등의 본격적인 의학공부는 2년간 계속되었던 예과생활의 낭만을 깨뜨렸다.

만 2년간 다녔던 연세동산을 떠나 본과공부가 진행되는 세브란스 강의실은 항상 카테바(실습용 시신) 냄새가 가득했고 햇빛이 들지않아 더 참을하게 느껴졌다.

원서를 잡고 씹씹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어둠 속에 잠겨버리는 것 같았고 백양이 가득한 연세동산의 따뜻한 잔디밭이 늘 그리워지곤 했다. 연세동산에서 보냈던 2년간의 예과시절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신나고 꿈이 가득했던 낭만의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때 마음속에 다져진 연세의 진리, 자유, 봉사정신이 훗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름다운 연세동산의 일들,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들을 적어본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일을 떠올리니 너무나 즐거운 일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

그만큼 연세동산의 일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있어 내게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강당에서 71년 입학생 전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새로 만나게 될 친구들과 처음 시작하는 대학에 대한 호기심때문이었을까 강당안은 열기로 찢었다.

사회는 졸업도 하지않고 7년째 응원단 단장을 고 있던 황만길 씨가 보았고 지금 방송국 MC로 동하고 있는 임성훈씨는 Blue Bee라는 중창단수로 등장했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러 가지 식순에 의해 여러 명이 소개되고, 선배들의 격려, 장기자랑 순으로 졌되었다.

드디어 신입생들의 장기자랑순서가 돌아왔다.

"노래하기 원하는 사람 손드세요"하는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군가가 무대위로 뛰어 올랐다.

"어느과 누구니까?"

"의예과 박 0입니다"

아니 우리과 학생이잖아. 의외였다.

온 신입생의 눈이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하얀 남학생에게 집중되었다.

잘못은 사회자는 못들은 척하고 다시 한번 묻는다.

"어느과 누구라고요? 2층 보고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하세요."

"의예과 박 0입니다."

2층에 있던 간호대학과 가정대학 여학생들의 환호성이 그치지질 않았다.

그 학생은 통기타를 치면서 팝송(제목은 잊어버렸음)을 멋지게 불렀다. 얼마나 멋있었던가.

이날은 그가 대변에 71학번 입학생들의 스타로 떠오르는 날이었다.

그는 많은 여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늘 가까이 있던 우리과 여학생들이 워낙 남성적(?)이어서 그랬는지 과여학생들하고는 그 흔한 스캔들 하나 생기지 않았다.

그는 그 이후에도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같은과 친구인 송 0근씨, 서울의대 친구들과 그룹을 결성하여 그해 겨울엔 드라마센터에서 음악회를 여는 맹활약을 보였다. 지금은 후배 여학생과 결혼하여 소아과의를원을 개업하고 있는데 그가 음악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지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스타로 내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꽃술에 불붙었던 연고전 야구장.

지금이나 그 때나 연고전의 열기는 대단했다.



연고전의 첫 포문은 그 때에도 야구경기.

우리는 1루석에 자리잡고, 고대는 3루석에 앉았다.

알록달록한 꽃술을 흔들며 우리 모두는 흥분상태였다. 첫 계임을 이긴다는 것은 그 해 연고전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이겨야 하지 않겠는가. 자존심을 건 한판이었다.

열심히 뛰는 선수들만큼이나 우리도 목청을 다해서 소리질렀고 열심히 몸도 움직였다.

그런데 몇 회전 지났을까? 우리 대학 여학생들이 많이 앉은 뒷계단측에서 조그만 소동이 일어났다. 한 여학생이 흔들던 꽃술에 불이 붙은 것인데 그 불이 점점 다른 꽃술에 옮겨붙었다. 댜 처음에는 별거아니려니 생각했으나 불은 급속도로 번졌다.

놀란 여학생들이 꽃술을 밀로 던지는 바람에 불은 쉽게 번질 수 밖에 없었다.

가만히 침착하게 앉아있다가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나는 1층 펜스 밑으로 뛰어내렸다.

그 덕분에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뺨자켓과 핸드백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나서였다.

그 자리에서 굵땀겨 질서를 지키겠다고 자리를 안 떠나고 앉아있던 친구 장욱(현재 세브란스 방사선과 교수)이는 손에 약간 화상을 입었다.

다친 사람들은 모두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친구 장욱이도 치료를 받았다. 그날 그런 정신이 없는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의기투합해서 농구가 열리는 장충체육관으로 달려갔다. 불이 나고 친구들이 다치고 하는 충격을 받고도 또다시 농구장으로 향했던 우리들. 젊은 시절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곤한다. 이날 사고 이후로 응원전에서 꽃술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연세동산에서 일어났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이와에도 더 많다.

담배를 피우거나, 청바지를 입은 학생만 보면 쫓아가서 야단치시거나 때리시던 신과대학 문상희 교수님, 도저히 대리 출석할 수 없었던 채플시간(좌석이 정해져 있으므로)여자는 코가 높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셨던 오형석 보건소장님 등……

연세동산에 있을 때에는 연세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심어주었는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에 저절로 나타나는 기본정신(진리, 자유, 봉사라면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연세에서 받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연세를 졸업한 여동문으로 느껴온 아쉬운 점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연세여동문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남녀공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도 그대로 가정안에 머무르는 동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여동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알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어딜가나 '저 연세출신입니다' 하는 여동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

연세인의 특혜

강경화/ 세종대 교수, 77년 정의 졸업

4 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랜만에 아이들과 연세동산을 찾았다. 무거운 책가방을 벗어 던지고, 뺨나무 꽃잎이 눈송이처럼 휘날리는 광복관 옆길을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아이들의 상기된 얼굴에서, 개혁의 거창한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조여들기만 하는 교육경쟁에 시달려 퇴색된 '아이'의 본연이 빛나보였다.

해야할 일, 지켜야 할 약속을 잠시나마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봄 내용과 추억이 가득한 캠퍼스를 한가로이 걷고 있노라니, 움츠러들었던 내 마음도 가슴 뒤에 단비로 생기를 되찾은 풀잎처럼, 구김살을 펴고 새 양분을 섭취하는 듯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세캠퍼스를 모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정 드나들 듯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인위와 공해에 찌든 회색의 도시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작지만 특별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골목 하나 사이로 연세 뒷산과 접해서 살고 있는 덕에, 집 대문을 나서서 15분 걸으면 청송대 맨취에 앉아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행복을 넘어서 특혜의 차원에서 기술되어야 할 듯 싶다.

기실 나는 4년 연세대학교를 다닌 덕분에 그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많은 특혜를 누리며 살아왔다. 연세 졸업생이라는 간판만으로도 어딜 가나 웬 만큼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는다.(인정받지 않아야 마땅하기에 내심 편치 않을 경우도 없지 않다.) 강의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는 게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교수님들의 지도와 편달은 나를 곧게 서게 해주고, 학창시절 사건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뢰로써 선배들을 끌어주고 후배들이 밀어준다.

연세가 내게 준 이 모든 버팀대가 없었더라면,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플까?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질 때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선 안도의 마음을 가졌었다. 가진자에게는 사회생활의 윤활유이며 못 가진 자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핸디캡인 학연, 그것도 이 사회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학연을 가진 쪽에 속하니 참 다행이라는 좁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연세부턴가 - 아마도 큰 아이가 사랑만으로도 교육이 충분했던 어린 시절을 벗어나 인생철학과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서부터인 듯하다 - 같은 질문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학연의 특혜를 누리지만

화연과 인연이 있으면
법으로는 안 될 일도 되는 사회가
우리네 사회인 것이다.

했지 연세가 가르쳐 준 봉사하는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지냈다는 자각이 들었던 것이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다. 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엘리트 계층, 즉 학자, 변호사, 기업인, 관료, 의사 등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집단이 얼마나 자기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조사했더니, 미국이 1위, 유럽의 어떤 두 나라가 2위,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4위에 올랐다고 한다. 하가야 외국으로 유학갔던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이민갔던 사람들도 속속 귀국하고 있어서 개도국으로는 특이하게 역이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풀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속 없는 엘리트들의 아전인수적 해석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오히려 특혜받지 못한 자들도 편히 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그 4위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각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다만 우리 사회가 엘리트들이, 특혜받은 자들이 살기 편하고 만만한 나라일 뿐임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화연과 인연이 있으면 법으로는 안 될 일도 되는 사회가 우리네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모두들 그 특혜계층에 포함되려고 머리를 싸매고 경쟁한다. 우리 교육의 모든 문제도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엘리트가 되어 특혜받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려는 눈먼 욕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혜층이 아니면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그다지 먼 과거가 아닌 게 사실이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당시, 특혜층을 향한 욕심은 생존을 향한 열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정당화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순기능을 했다. 그러나 일인당 만불 소득의 시대에서는 그 욕심은 개인과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는 특혜를 확보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보다 큰 인간사회의善에서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개발해야 할 때다. 편안한 인생보다 보람있는 인생에서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겠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또 스스로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일꾼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싶은 부모인 나 개인을 봐서도 그렇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정한 연세인이 되어가나 보다.

논조-칼럼이
좋은 신문

조선일보
22.1%

“보도의 정확성과 논조가 가장 좋다”

한국 갤럽 전국 3,000 가구 설문조사

조선일보 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아는 신문으로서, 보도의 정확성과 논조가 좋은 신문에 대해 각각 1위를 기록,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어린이에게 인터넷을

朝鮮日報 정보화운동

우리 어린이들이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의 주역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마인드와 영어능력의 제고가 절실합니다. 세계의 어린이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습득하게 되는 「세계화·정보화」의 가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조선일보가 창간 76주년 기념사업으로 「세계청소년 네트워크(GYN)」와 공동으로, 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어린이에게 인터넷을(KidNet)」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취지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朝鮮日報社

가신문
18%

나신문
9%

예쁜 우리 집, 칼라 코디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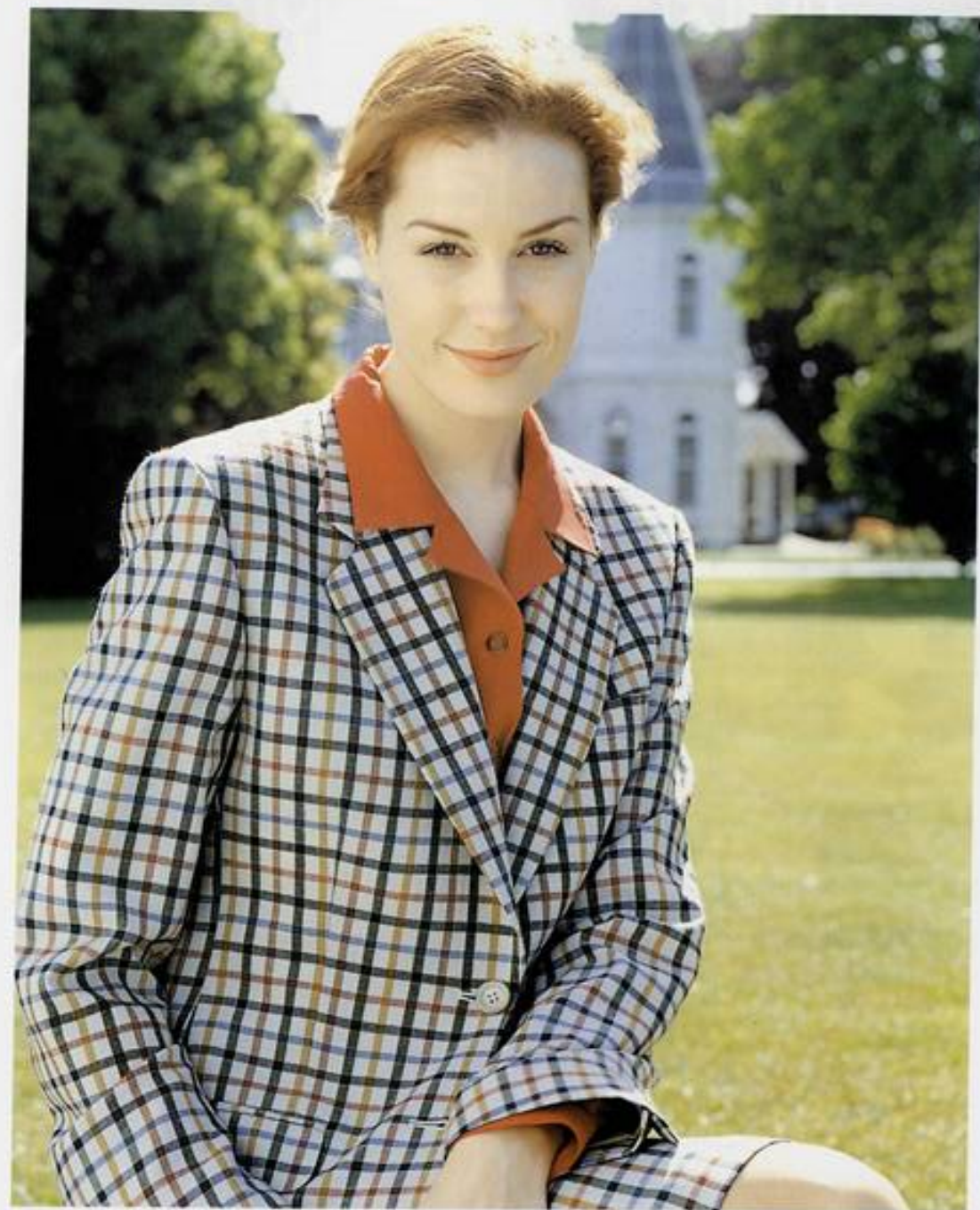


일곱 색깔 무지개 -
집의 모양은 다 달라도
예쁘게 칠해진 집은
마음까지 즐겁게 해줍니다.

예쁜 색 노루표 페인트로
산뜻하게 집단장을 해보세요.
예쁜 색, 우리 집 새 단장에
노루표 페인트.



대한페인트·잉크(주)
소비자상담실 (수신자부담) : (080)944-7777



ONE LOOK TELLS YOU IT'S DAKS.

DAKS

한국도자기 본차이나 · 슈퍼스트롱-
세계최초 세계품질인증
ISO 9001 획득기념 특별사은판매



53년 동안 한국의 도자기산업을 이끌어온 한국도자기가.

세계 도자기업계 최초로 세계품질인증 ISO 9001을 획득했습니다.

설계 및 개발에서 서비스 부문까지 완벽하게

그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도자기 - 언제나 품질로 세계1위를 지켜간다는 각오로.

세계최고의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HD 한국도자기(주)
세인트 제임스

좌담회



편집자주

본지에서는 연세대학교 남녀공학 50주년을 맞아
 여러동문들을 모시고
 남녀공학초창기의 모습과
 모녀동문들의 남녀공학으로서의
 연세대학교의 학교정책과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좌담회 형식으로 가진바 있다.
 이 글을 빌어 좌담회에 참석해준
 여러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남녀공학 초창기

황세경 : 우리 연세대학이 남녀공학 50주년을 맞이하여 초창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남녀공학이 시작되었는지요?

오기영 : 처음에는 백낙준 총장이, 연희대와 이화여대, 세브란스 세 기독교 대학을 하나로 합쳐 종합대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화여대의 김활란박사가 우리는 여자대학으로 그대로 살리겠다고 반대하여 따로 여학생을 47년에 뽑게 되었어요.

김혜선 : 그 당시 남자들 입학 전형이 다 끝나고 갑자기 신문에 광고가 나, 여학생만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전문부 1학년만 하고도 학부 1학년이 되기도 했고 전문부 2학년이던 사람도 학부 1학년이 되는 등 혼란스런 시기였지요. 이화여대도 그 당시 전문부 1학년이 그냥 대학 1학년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1회 입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1년에

졸업했어요. 부산에서 전시에 졸업을 하게 되었지요. 환도해서 54년에 대학원에 다시 진학했어요. 대학원도 여학생으로는 제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쌤Y도 세브란스를 빼면 진짜 순수한 쌤Y로는 저희 부부가 1호라고 합니다.

심치선 : 내가 48년에 입학해 여학생 입학으로는 두 번째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첫번째 입학과 두번째 입학이 함께 졸업하는 경우가 생겨 원래 1회 입학은 장두표 씨라는 분인데 그분은 졸업을 못했어요.

참석자

김혜선(51년 석학 풀),
심치선(52년 석학 풀),
오기영(전 학생회장),
여영지(63년 학학 풀),
신통식(62년 정외 풀)



김혜선 : 정외과가 문과대학에 속해 있었을 때였어요. 그 때는 학부라고 하지 않고 학원이라 했어요. 문학원, 상학원, 이학원이라 했지요. 처음 신문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갔더니 게시판에 문학원, 상학원, 이학원이라 써 있어서 대학이 아니고 학원이면 뭇하러 오나 가우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오시더니 지원하러 왔느냐 하셨어요. 제가 질문하자 우리 학교는 학원이라 부르지만 절대 열려 말라고 하신 게 기억나네요. 처음 전공 분야를 합친 것을 학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요. 문학원, 이학원, 신학원, 상학원 4개가 있었지요.

그 때는 해방 후 건국도 되기 전이라 무척 혼란했어요. 좌우익의 논쟁도 많았지만 우리 학교는 단 한번의 휴교도 없었어요. 다들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신념 아래 아주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좌우익 논쟁이 있어도 대개 노천극장에서 토론을 벌였지요. 남학생들의 독무대였고, 감히 여학생이 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연대 교수님들의 수준은 전국 최고의 수준이었고, 학생들도 구국의 열정을 가진 전국의 우수한 학생

들만 모여들었어요.

오기영 : 저는 6.25전쟁 때 1.4 후퇴시 부산에 개설된 연대기건물에 52년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심치선 : 오기영 선생이 바로 YWCA 회장도 한 김현자 전 국회의원의 남편이시죠.

신통식 : 그러셨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역대 여성 국회의원 중, 가장 인간적으로 따뜻이 후배를 보살피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자기 앞가림 하기에 바쁘는데, 김현자 의원은 여성계 전체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오기영 : 48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49년 여수, 순천사건이 나서 국내가 시끄러운 것을 보고 마치 내 자신이 도망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에게 한 국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 때 알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손양원 씨 아들 형제가 죽고... 그런데 지도교수가 놓아 주질 않아 못 나왔는데 또 전쟁이 나서 50년에도 못 나왔어요.

49년에 나왔다면 6.25 동란에 물려서 막 바로 군대에

여나 여학생들이 불편할까봐 신경을 쓰신 거였어요. 여학생들이 화장실이 하나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가 거기서 갇은 얘기를 하며 웃고, 한꺼번에 와 하고 나오니까 남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은 화장실에서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냐고 묻기도 했지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김혜선 : 근자에 와서 여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남녀간에 괴리감이 있는 지는 몰라도 우리 때만 해도 분위기가 부드러웠어요. 당시 연대 남학생들이 어디를 가나 신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전통은 채플시간이나 백총장님의 참인간교육 덕분인 것 같아요.

김혜선 : 처음에는 식당이 본관 앞 지하에 있었는데, 식당이라 별 것 안 팔고 국 하나 끓여서 도시락에 장국을 얹어 먹었는데, 왜 그렇게 먹는 모습을 남학생들 앞에 보이는 게 부끄러웠는지 우리 여학생들도 보수적이어서 그 앞에서 밥을 못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못들어가고 우왕 자왕하니까 결국에는 학교측에서 여학

생은 교수식당에 들어오라는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수식당에서 밥을 먹었더니 남학생들이 바깥에서 "야! 여교수 많아졌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야말로 선사시대 얘기죠. 그 때 같은 과 남학생을 보고, Mr. 김, Mr. 이도 아니라 김씨, 이씨 그렇게 불렀다고 우리 딸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딸이 73년 영문과 졸업인데, 엄마는 이씨, 김씨, 무슨 복덕방 아저씨 부르듯이 불렀냐고 하더군요. 여학생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이화여대 학생들이 빌려와 함께 코르스를 하거나, 연극 때도 이화대생을 데려와서 이제는 적던지 자체 코르스, 연극을 하게 되니까 한 번은 저와 이정현이 연대 후문을 나와 이대를 거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대 음대생들이 우르르 우리들을 둘러싸더니 저 과목을 보라구, 앞에 여자대학을 두고 남자대학에 갔다고 오도 가도 못하게 길을 터주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둘러싸고 옥살을 퍼 붓는데 나중에 우리 남학생들이 와서 무슨 유치한 짓들이냐고 기사도를 발휘해 주어 길을 터준 적이 있어요.

심치선 : 언제 방우영회장께 그 때 여학생들이 어땠는지 물어 보세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남자들이 우리를 잘 보호해 주었는데, 장가 간 사람들이 많았고, 동갑내기들 유치해 보였어요. 우리는 김씨도 아니고, 아저씨라고 했으니까. (모두 웃음) 아들이 학교에 들어간 아저씨들도 있었으니까, 시골에 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편지를 우리 대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아버지 공부 잘 하세요? 나도 잘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일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지요? "했더니." 야 아놔야 아버지는 학점이 모자라서 주저 앉게 생겼다"고 해서 웃은 일이 있었어요.

심치선 : 그 다음에는 아저씨라고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야. 가르치는 사람도 선생님, 동급생 얘기 아버지도 선생님, 부산에 가니까 클래스 매이트가 돌아오지 않고 죽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찢려서 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55년에 최초로 강사 여교수가 되었지. 물론 간호대에는 여교수들이 있었지만 57년에 세브란스와 합쳤으니까, 그 당시 여교수는 없고 교수 사모님만이 있었지.

신동식 : 우리 때 까지도 식당에 가면 교수 사모님들이 장국밥을 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장국 국물만 먹고는 했어요. 미원같은 것을 정말 쓰지 않은 진짜 고기국이었어요.

제가 연세대학에 들어간 때는 57년이었는데 그 때 최이순 선생님이 가정학을 1학년, 2학년 3학점씩 6학점을 했는데, 그 시간에 샌드위치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셨고 캔에 들은 공치를 다져서 비린내 안나게 오미와 함께 샌드위치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때 시골에 있다가 처음 그런 것을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동학, 실내장식, 가정관리하는 전반에 대해 기본 여성 교육을 다 받았지요. 하다 못해, 벽지 색채 맞추어 도배하는 법, 색감까지 배웠어요. 최이순선생님이 가정학을 해주시고, 여학생체육은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양순선생한테 배우니까 좋고, 기숙사에 오면 또 심치선 선생이 계셔서, 일 주일 식단을 짜고, 반찬을 만들고, 시험 때는 심치선선생이 토스트를 산더미같이 해서 계란과 함께 해 주셔서 소화도 잘되고 시험도 잘 칠 수가 있어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신동식 : 그 때는 생활 교육이었어요. 최이순 선생께 양식 세팅하는 것도 배웠고, 우리가 직접 가사실습을 하

면서 식사예절도 가르쳐주셨어요.

심치선 : 백총장님의 여성교육에 관한 투철한 이념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최이순 선생님께서 큰 울타리가 되어 주셨지요.

신동식 : 최이순 선생께서는 강의하시면서 손톱은 짧게 깎게 하시고 여기다 매니큐어는 손톱이 숨을 못췄다고 못하게 하셨어요. 귀걸이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하지 마라고 완곡하게 만류하셨고 힐도 높은 것은 신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치선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사감이셨는데 손수 우리를 앞세우고 화장실청소를 해 보이셨어요. 그 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었는데, 고무 장갑도 없던 시대라 맨손으로 우리 보는 앞에서 전부 솔로 닦고, 걸레로 거기를 훑치고 변기를 깨끗이 닦고, 염산 소독까지 하셨어요. 겨울, 이른 봄에도 찬 편꾸물을 가지고 전부 하시는 것을 보고 전 충격이었어요. 저도 일생 그것을 배웠어요.

왕세경 : 학점을 따라 할 내용은 무엇이었는데요?

심치선 : 여학생들을 위한 예의범절부터, 강의도 해주고, 가족관계는, 최이순 선생이 하시다고, 아동학, 전체 학생들에게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을 거예요. 가정 경제, 강사를 모시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강의료는 조금이면서 방과 시간이라서 강사 모시기가 몹시 어려웠어요. 외부 강사로 김옥길 선생도 오신 기억이 나요.

신동식 : Chapel시간이 참 좋았어요. 백총장님의 명성때문에 그 때 당시 한국을 방문하신 외국분은 연세대를 꼭 찾아 올 정도였어요.

이양자 : 백총장께서는 여학생의 이름을 거의 다 알고 계셨나봐요. 제가, 보스톤 유학시절 만났을 때 김방양자야, 잘 있었어?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크신 분이면서도 자상하셨지요.

오기영 : 이기열 선생님을 꼭 연대에 모셔야 되겠는데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 좌로부터 김혜선, 이양자

왕세경 : 요즘 여학생수는 늘어 나는데 미처 그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학생이 연세대 캠퍼스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심치선 : 남녀공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시대별로 구분해서 생각해두면 좋겠고, 현재 남녀공학에 있어서의 배려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시대에 있어서 다른 학교와의 비교는 어떤지 비교하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여학생수가 많아졌고, 남녀 동등하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당시는 생활관을 두어 남녀 공학에 다니면서 여학생들이 놓치게 될 부분을 실습을 시켜 터득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의 여성학 시간이지요.

알로하도 여학생수가 많아지면서 증축하면서 34명까지 받다가 없어졌어요. 모두, 온돌방이었지요. 알로하 생활관에서 주던 학점을 나중에는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옮겨 가면서 6학점을 주기도 했는데, 이후에 남녀 공학과 여학생과목이 따로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는 소리가 높아져 사실 여학생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었어요.

오기영 : 해방 직후 대학을 설립하면서 그때 당시의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시대 변화와 함께 대학의 변천을 잡는게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눈으로 돌이켜 보면, 그 당시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심치선 : 4.19를 기점으로 해서 학교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애. 여학생뿐 아니라 학생전체의 의식 구조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오기영 : 해방 후에는 학생들간에 좌익 대결이 있다가 6.25 이후 좀 잠잠하다가 4.19 이후 학생들의 발언이 세졌어요.

심치선 : 63년부터 내가 여학생 처장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사회 참여가 활발해 지고 그 때부터 데모치타거리만 했지.

오기영 : 여성학적인 건지에서 이화대학에서는 이효재

선생이 먼저 나왔는데, 우리 대학은 조혜정선생이 문제의식을 내세우셔서 발전이 있는 거지요.

김혜선 : 여자가 대단하다고 우리 남편도 얘기하던데, 그 많은 남학생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 때 입학년 때 상학원, 이학원이 합반 할 때가 많았는데 여학생들은 열문으로 들어가 주로 앞쪽에 앉았는데, 남학생들이 함께 앉는 것을 불편해 했지요. 여학생들이 용기가 생겨 점점 앞자리로 나가면, 남학생들이 이렇게 점점 쳐들어 오면 우리 이제 유리창밖으로 나가게 생겼다고 제발 그만 오세요. 남학생이 어려워해요. 앞자리에 앉전히 있다가 나오곤 했어요. 그 때만해도 화장을 요란하게 한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못배겨 나던군요.

심치선 : 우리는 이화에서 6명이 와서 밤낮 용처 다녔더니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화대가 6년제가 되면서 이화대에 시험이 없어서 그 쪽으로 가지를 앉았어요. 48년 입학해서 52년에 졸업했는데 백송장 사모님과 박마리아와 여학사협회를 만드는데, 백송장 사모님이 우리도 여학생이 있다고 하나까 그 때 이대는 졸업생이 없으니까 우리를 영터리 졸업생이라 우리를 여학사협회에 안 넣어주었어. 우리도 안 들어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학사협회에 연세대 졸업생은 관계하지 않게 되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학사협회는 이대 단체처럼 되었어요.

왕세경 : 초창기에는 더 직업의 기회가 없었을 텐데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캠퍼스에서 사회참여의 의식을 배웠는지?

심치선 : 그 당시는 대학을 간다는 것이 한 여학교에 얼마 안되었고 직업의식이 투철해서 졸업생들은 결혼보다 오래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교직원 활동을 많이 했지요. 사회의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가졌다

고나 할까.

왕세경 : 이제 끝으로 연세대 남녀공학의 50년의 결산과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치선 : 우리 연세 대학이 여성들을 위해서 선구적으로 앞서 가면서 남녀공학의 교육을 시켰어요. 이 일은 우리 교육사, 여성사, 사회사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한 대사건이었어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한 교육적 의지의 소산이었습니다. 초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선각자로서 남성 중심의 직업사회에서 외롭게 그동안 한국의 한 모퉁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치 분야는 적지만, 최초의 여기자상을 받은 신동식 논설위원은 언론계에서, 이양자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모교 및, 학계, 의학계, 언론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연세대 여성교육이 무엇을 했느냐? 남녀공학을 시작했다면서 결국은 이거였느냐? 잘못이라는 것은 곤란해요. 긍정적인 면들도 얘기해야 되어요. 너무 사회화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자꾸 평가하니까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과 제도는 50년동안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개인의 경우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특정인의 진보적 시각과 가치를 너무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동생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가정으로 중심으로 한 작은 집단에서의 역할이 낮게 평가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세의 교육적 평가는 남녀가 함께 깨우치며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오기영 : 21세기를 맞이 하는 이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남녀의 공동책임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선진적 모델을 연세가 세웠으면 합니다. 그것은 재학생보다도 남녀동문들이 숭선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세경 : 실질적으로 50년간 고등 교육을 받은 3만 3천명의 연세대 여학생들의 교육의 결과는 이 사회에 대단한 기여라고 봅니다. 소수의 지도급 여성들이 활동하던 초창기 시대보다 앞으로 더욱 여성의 교육의 기회 뿐 아니라 고용의 기회도 균등하게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때, 또한 여성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 공동 책임사회를 이끌 중요한 구성원이 될 때 연세 남녀공학의 교육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녀 여동문과의 좌담

문은희 :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우리 연세대학이 남녀공학이 된 지도 벌써 50년이 되었어요. 여학생이 숫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여학생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 남녀공학에서 그들의 특이한 경험내용, 그리고 여대출신에 비해 졸업후 사회 활동이 저조한 이유 등에 대해 여기 모인 각기 다른 연배의 여동문끼리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남녀공학 50년을 나름대로 평가해 봤으면 합니다.

40년대 선배로부터 90년대 후배까지 여기 네 쌍의 모녀를 모시고, 또 그 밖의 몇 분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

홍경표, 김희영, 이순희, 문은희, 유영희, 여진안, 황세경, 이성경, 박니미, 나사라, 백선희, 주영주, 여영, 김희성

시점

1996년 2월 15일 정오

장소

연세대학 일련관

너공학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 대학을 갈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전 여자다운 행동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도 웬케 별로 여자답지 않게 자랐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제 개성대로 씩씩하고 도전적으로 행동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대학 와서 현실적으로 제가 여자로서 대우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겐 어쨌든 남녀공학의 경험이 제 인생진로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우선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하고 이야기를 풀어 가도록 하죠.

박니미 : 저는 86년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와 7살 된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연세대에 들어온 이유가 남

김희성:안녕하세요. 79년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김희성입니다. 대학원에서 올겐으로 전공을 바꿔 미국에서 8년 공부하고 지금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음대는 남녀공학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게 없었고, 제가 남자라고 달리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닌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 행동을 어떤 남학생이 남자를 우습게 본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홍경표 : 저는 김희성의 엄마이고 54년에 교육학과에 입학했고, 대학원도 교육학을 전공했지요. 연대 한국 어학당에서 36년 반을 보내고 은퇴했어요.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요. 제가 연대에 들어올 때는 정말 여자가 남녀공학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연대 출신이라 연대 캠퍼스에서 살다시피했기 때문에 연대가 제일 우수한 대학이라 생각했지요. 사실 이대보다 우수한 학생이 연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영희 : 66학번 가정대학 주생활학과를 다녔습니다. 우리 남편도 연대를 나온 쌍Y입니다. 딸아이까지 연대에 입학시켰고요. 웅진출판사에서 근무한지 11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우리들 읽는 옷까지 지정해 주고 샌들도 못 신게 했는데 반해, 이대생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자유스러웠던 것 같아요. 미팅도 못하게 했다니깐요.

백선희 : 예. 저는 92학번으로 쌍Y인 부모님 덕에 아무런 갈등 없이 연대에 들어왔습니다. 92학번입니다. 그런데 전공이 아동학과여서 남녀공학이라고도 남학생과 함께 공부하지 않아 남녀공학의 영향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대로 간 고교동창들을 만나면 그 아이

들의 변화된 모습에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진취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교 졸업 당시엔 남녀공학을 지원한 친구들이 더 진취적인 성향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여진안 : 저는 71년에 가정대 의생활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즈음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여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사라 : 89년 간호대학에 입학해서 3학년에 천문학과로 옮겨 95년에 졸업했습니다. 지금 천문대기학과 대학원 3학기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문은희 : 아버님이 천문기상학과 나일성 교수님이시죠? 우리나라 과학사에 많은 공헌을 하신 훌륭한 분이시지요. 딸이 대를 잇게 되었군요.

이순희 : 저 역시 쌍Y입니다. 59년 생물학과에 입학했고, 결혼하고 11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85년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50대 중반에 들어서 직장다니면서 할 수 없었던 취미생활을 맘껏 하고 있습니다. 두 딸과 두 사위가 모두 연세대학입니다.

김희영 : 저는 56학번으로 법과에 입학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참석하라고 한 것 같아요. 공무원생활을 쫓하다가 일을 놓고 있어요. 사실 기회가 되면 다시 일을 했으면 해요. 오랫동안 노동부에서 일을 하고 독일에도 오래 있었어요. 딸아이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에

◀ 홍경표 어머니와 딸



여자친구도 없고 하여 이번에 이화여대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 오늘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깐 영 마음이 안 좋아지는군요.

홍경표 : 저는 73학번이고 정의과를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백양모임의 <백양지>를 편집하다가 이번 여동문 회지의 편집을 맡았습니다. 예전에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편집 일에 관여하다보니 이 일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연대 여성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남녀공학 50주년 기념 특집호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좋은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은희 : 자, 이제 각자의 소개도 끝나고 했으니, 먼저 연세대학을 왜 택했는지..... 아마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초기에 연세대학을 택한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최근에 택한 사람들은 어땠어요?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저기 제일 어린 후배부터 얘기해볼까요?

백선희 :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연대교정을 둘러거리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연대 출신이라서, 이런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홍경표 : 우리 때는 정말 남녀공학에 여학생이 들어가

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연대교수여서 46년부터 연대 시택에서 살았고, 또 크리스찬이고..... 이화여대 들어가는 여학생 보다 월등히 우수한 여학생만이 연대에 들어간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우리 때에 여학생은 전부 27명 밖에 안됐거든.

나사라 : 저도 백선희 후배랑 비슷한데, 아버지께서 연대교수시고 대학은 연세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들도 남녀공학을 더 선호했어요.

박나미 : 저는 여기 모이신 모녀동창분들의 사연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마치고, 오로지 서울로 유학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과를 가고 싶어서 연대를 택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도 선생님의 권유도 아닌 제가 스스로 그 목표를 정하고 택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80년대 당시 한창 시국이 어수선한 때이고,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저도 어린 마음에 썩티기 시작한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대학에 가서 제대로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자유, 진리라는 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김희영 : 저는 성적이 좋다고 연대 법대를 가라고 선생님이 추천을 하셔서 타의로 연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수한 여학생만 들어왔는데 그 여학생들이 더 우수해져서 졸업을 하고 사회진출을 하도록 하는 뒷받침을 학교에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남학생 위주로 하는 것이 많아요.

문은희 : 그래요. 선배님께서 다음 이야기를 열어주셨는데, 우수한 입학성적으로 높은 자부심을 가진 여학생들이 연대에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자대학과 달리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이 어떤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신의 남녀공학을 통한 경험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백선희 : 가정대학은 남학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끼리 무슨 일이든 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자대학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남학생이 있는 다른 과의 경우, 남학생들이 항상 앞장을 서고 여학생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문은희 : 그래요, 이런 건 대체적으로 다 느끼죠? 그러니까 세대를 50년을 거쳐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중 하나가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이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김희영 : 정말 그래요. 이 남녀공학에 들어온 우수한 여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꿈과 희망이 큰데 점점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여자대학에 들어가는 여학생들은 소극적이었던 학생도 적극적이 되는 것 같고요. 그건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이 최소가치에 의해 남학생들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유영희 : 저는 입학하는 날, 감색 투피스에 아주 짧게 머리를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앞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여학생의 모범적인 차림새라는 거예요. 4년 내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남녀공학이라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교수님들의 간섭을 많이 받았어요.

홍경표 : 정말 부자연스럽죠. 잔디밭에 앉지도 마음 놓고 앉을 수가 있었나요? 남학생들이 휘파람을 쏘고 불면서 장난을 걸어오면 더 난감

했지요

이관안 :

그런데 여자대학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걸음걸이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다녔는데, 이대생들은 총계를 2개 3개씩 넘어 다니고 교장에서 소리를 내지르고... 이런 행동의 자유분방함이 여자대학의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겠지요?

이순희 : 여학생들의 수가 얼마 안되다보니 지나치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영희 : 미팅을 하려고 하면 어느새 교수님이 아시고 방해도 하고 그랬어요. 그 때는 이화여대생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김희영 : 오히려 후배보다 우리는 교수님께 개방적인 남녀교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다양하게 남학생과 교제를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남녀공학이니 남자와 여자가 대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을 실행한 대학이라는 생색만으로 50년을 버텨온 것 같아요.

문은희 : 여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난 80년대는 외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박나미 : 외형적인 변화야 사회가 변함에 따라 제일 먼저 변하는 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제가 외형적으로 남학생들과 똑같이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



◀ 김희영



◀ 유영희 어머니와 딸

식적인 학과 앞에는 항상 남학생이 앞장을 서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배려로 힘이 덜 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4년을 남녀공학에서 남학생과 더불어 지내면서, 저를 불편해 하는 남학생들 덕분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의 모험적인 성향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던 동생이 여자대학을 다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과 대조가 되지요.

나사라 :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주로 부딪치는 의사들이 거의 남자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 여자들끼리 굉장히 챙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본교 남학생들과의 만남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또 편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여학생이 그렇게 행동하고 남학생들이 리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박나미 : 저는 남녀공학에 와서야 남성과 직접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남성중심으로 굴러가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발견하지 못한 제 속의 여성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희성 : 예, 제가 동의하는 점도 많아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대에 자리를 잡기 전까진 남녀공학에 다녔다는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대에서 꼭 지내면서 느낀 건 전부 거꾸로였어요. 총장님도 여자고 학장님도 여자고, 전부 여자가 선두예요. 다들 자신만만하고…… 그게 제일 좋았어요. 무의식적으로 남자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의식이 바뀌어야 연대안에서의 여학생의 대우가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보니 기정을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 자신이 담당해지고 자기 자신의 분야에서 대우받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홍경표 : 저는 먼저 근본적인 남녀공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성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데 반해 여성이 그렇지 못해서 손해를 본다는 말씀인데…… 오히려 남녀공학에 다녔기 때문에 박나미씨 같이 결혼을 해서 남성과 조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박나미 : 사실 그랬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용감하게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남녀공학에서 나름대로 남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누리는 연애감정에 푹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제가 갖고 있는 남성성이 새로 찾은 여성성과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문은희 : 그러니까 남녀공학의 생활이 충분히 자기를 개조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학생을 위한 학교측의 정책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배선희 : 학생회장은 여전히 남학생이고 부회장은 여학생, 이걸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총학생회에서 여학생회가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져서 여학생 휴게실이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지만, 졸업 후의 취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남학생의 취업률을 올리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이 듭니다. 여학생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미

문은희 :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다른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남녀공학의 순수한 의미나 장점을 우리는 아직 정착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과도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졸업한 배선희 씨의 의견이 아직도 여학생을 위한 시설을 따로 필요로 한다는 말은 우리 연대의 학생들이 충분히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군요.

김희영 : 사실, 우리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을 했다는 거에서 그야말로 안주했어요. 우리 때는 여학생처가 생기고 논지당이 생겨서 그것이 여학생을 위한 최고의 대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여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도 학교정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학교로 봐서도 우수한 여학생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의 교수채용만 보더라도 여자교수가 몇이나 됩니까? 졸업한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은 소홀히 하면서, 여동문들의 활동이 부진하다는 불평만해서는 안되지요. 학교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학생에 대한 정책도 과감히 바뀌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여학생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은희 :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학교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정책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여학생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공학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보다 우리 학교가 훨씬 앞선 의식으로 출발했다는 것인데, 지금의 연대는 사회보다 뒤쳐진 감이 있습니다. 사회를 앞질러 이끌어 가야 할 연대가 말입니다.

이순희 : 물론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연대 여학생, 특히 저를 포함한 선배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때는 모범적인 모델이 없었고, 저희들이 그 모델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연대 나온 여학생은 대부분 그냥 당연히 취업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육아문제에 부딪치고 여성의식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많은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개발하도록 사회가 내버려두지도 않지만 우리 여성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지요.

문은희 :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동문들의 수도 많아지고 사회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는 여동문들도 많아졌으니, 우리 여학생 후배들의 그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겠지요. 육아문제와 같이 절실한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기를 들어 대학원생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우선 학교안에 탁아소를 운영하던지 해서……

이영 : 저는 여학생 처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



◀ 이상경, 박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여학생 기숙사의 2층을 낮시간에 비는 것을 이용해서 직원과 대학원생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총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요.

문은희 : 그건 정말 꼭 추진했으면 해요. 그런 것을 우리 여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 때문에 이순희 씨는 그 당시 직장을 포기하면서 남편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나으니까 그랬다고 했지만, 만약 아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이 낫다고 그 남편이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겠지요? 많건 적건 아내나 남편의 능력을 서로 키워주면서 가정이 이끌어져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대학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가정 안의 역할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 밖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을 위해 남녀공학하고 있는데, 연대가 정말 남학생과 여학생을 똑같이 지원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왕세경 :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비교도 안되게 요즘 연대는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너무나 많이 거대해졌고 그런데 여학생정책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공학인데 왜 굳이 여학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열악한 여학생지원정책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시 당해왔는데, 그나마 여학생을 보호하는 시설마저 불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마치 '여'자만 없으면 남녀공학이 되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김희영 :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수한 여학생만 길러내면 뭐합니까? 남학생과 똑같이 사회

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에게 프로정신을 일찍부터 심어주어야 합니다. 일단 직업을 택하면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결혼을 이유로 그만 두는 일은 없어야지요.

추매주 : 제가 여성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일단 여성학은 사회제도가 바뀌고 제도가 뒷받침이 되면 저절로 따라갈 것입니다. 물론 제도와 의식은 같이 가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제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학교가 여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인 후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동문의 사회적 위상이 학교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동문의 정치나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활약이 부진해서 학교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동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적극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문은희 : 여러분들의 이야기대로 정말 우리 여동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제도와 의식이 함께 바뀌어 가도록 여동문들이 개인적으로나마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취업여성뿐 아니라 전업주부인 여동문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서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고 도와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여동문들 간의 만남의 장이 많이 이루어져 앞으로 진정한 남녀공학을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가져야지요.

이영 : 아 물론 학교측에서 걱정하는대로 여대와 비교해서 여동문들의 활약이 부족한 점은 빨리 국

복되어야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동문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 모아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김희영 : 그래요. 우리 여동문회에서 스스로 여동문을 결속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학교 당국에 건의할 것은 하고, 여학생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여동문도 함께 풀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껏 여동문의 활약이 부진한 원인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 : 이번에 언론계에 종사하는 여동문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학교측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 수가 많았어요. 방송의 주요 여성앵커는 거의 여동문이구요.

김희영 :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모임을 많이 해서 우리 여동문의 활약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업종도 그런 모임을 가지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선배들이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는지 알아야 도움도 청할 것 아닙니까?

이상경 : 79년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선배동문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리서치라는 회사를 꾸리고 있는데,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회사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쪽 둘러봐도 동문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자주 모이지도 않으니 정보의 교환도 없어서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인맥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강남과 강북의 어떤 식당을 정해놓고 점심시간에는 언제나 가면 동문끼리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희성 : 해외에서는 아예 연대출신의 동문모임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아주

드물게 모여도 금방 헤어지고요. 이런 학교문화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민주적이긴 해도 학교가 여동문에게 도움을 주는 예가 없기 때문에 거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 대한 관심도 줄고 동문끼리의 결속력도 떨어지는 것이죠.

이영 :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정리를 해서 이번 50주년 기념 여동문지에 올려서 널리 알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 연대를 홍보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연대에 들어 온 딸들을 두신 동문들께서 우리 딸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 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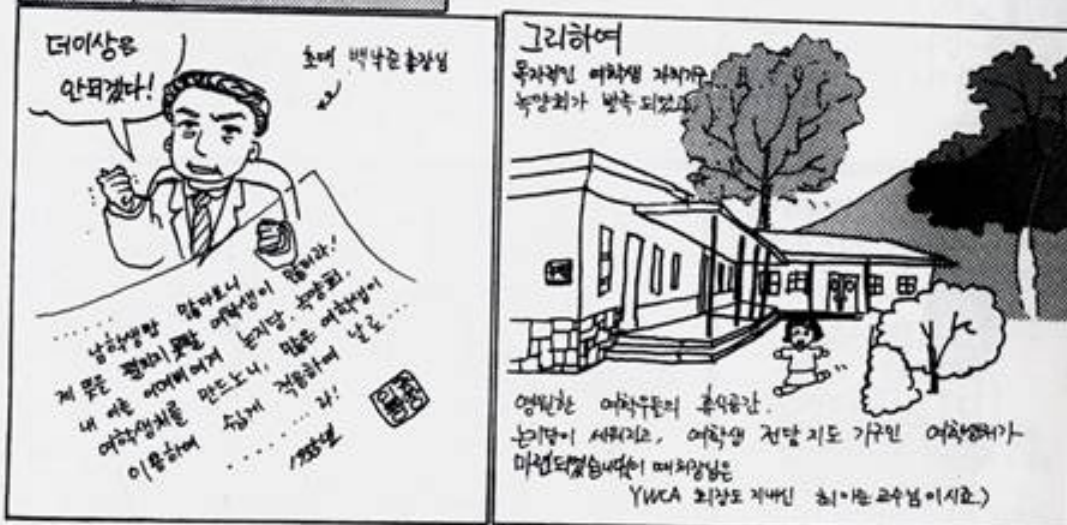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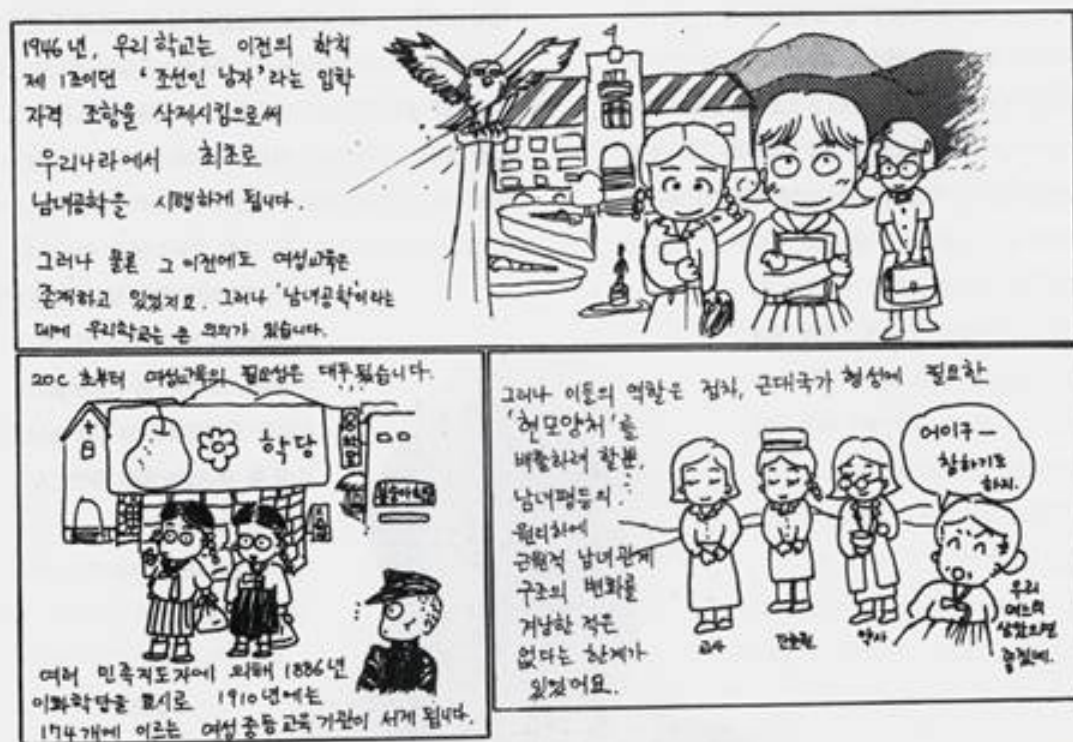
김희영 : 우선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측이 요구하는 여동문들의 후원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여동문간의 결속도 안된 상태에서 후원금만 강요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문은희 : 모두 연세를 사랑하는 동문들로서 우리가 연세에서 가운 자세가 수동적이었음을 깨닫고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탈바꿈해야겠어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와 넓은 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내려면 동문들이 힘을 합해야지요. 공동의 정신으로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적극성을 띄어야지요. 우리들의 후배가 우리같이 수동적이어서는 안되

지요. 그러려면 학교에서의 생활이 좀더 적극적이 되어야 하지요. 후배들을 위해서 또 여동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동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실천해야지요. 자주 만나서 마음을 나누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남녀공학 50년을 돌아보며

임서진(문헌정보학과 3년 연세 만화 동아리회)





성주인터내셔널은 국제적 시각과 개혁정신으로
패션 비즈니스의 세계화를 리드해 갑니다.

GUCCI

신라호텔아케이드 231-7509 롯데(본점) 319-3828 롯데(강남점) 413-7338 갤러리아(명동점) 517-3082 현대(압구정점) 515-8856 현대(무계점) 3453-2963 경향문화점 675-3278
대구동아점 053-256-0688 부산라다이스점 051-741-4888 현대(부산점) 051-633-1741 부산라다이스점 051-741-4944

YVES SAINT LAURENT

COSMETIC : 롯데(본점) 319-4268 롯데(강남점) 413-5142 갤러리아(명동점) 517-3082 현대(압구정점) 515-8856 현대(무계점) 3453-2963 경향문화점 675-3278 현대(부산점) 051-633-1741 부산라다이스점 051-741-4944
FASHION : 갤러리아(명동점) 540-4348 롯데(강남점) 413-7338 경향문화점 675-3278 부산라다이스점 051-741-4944

SONIA RYKIEL

PARIS

신라호텔아케이드 237-8075 롯데(본점) 774-6939 신세계(본점) 318-7809 갤러리아(명동점) 517-3082 부산라다이스점 051-741-4944



롯데(본점) 772-3051(교촌) 롯데(필드점) 411-6185(교촌) 갤러리아(명동점) 516-4171 현대(압구정점) 517-7821 현대(KOREX) 532-2233
에트르메도르 772-9338 그라운드 3141-3275

(주)성주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118번지 환경그룹빌딩 1F TEL: (02) 269-7741 ~ 3 FAX: 268-2059

우리학교 문화를 융합하고도 거침이 없어 고수가 되고,
매년 70% 이상여자가 졸업장을 바꿀하는 열혈아
는 19명의 교수들 단 1명만이 여자를입니다.
아빠가 가진 딸자식을
여왕이 내세워야!

우리학교 도서관은 바깥
여자를 볼 수 없게로
했답니다.
여왕이
여왕이
여왕이

이제 따른 학교의 임장은..
아니.. 뭐,
여자 졸업장이
학교에
공인하게
있습니까?
그럼, 여왕에게 부자는
해 보겠지요?

지금까지 배출된 여동문의 수는 3천명을
넘고 있고, (전체 17천명 중), 대부분의 동문이
연세공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각 분야
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여성 지도자 중심 시대에
더욱 본격적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전처럼 굳어 있다면, 정말 훌륭한 보배가 되었지요?
여왕의 역할은
여왕의 역할은

연세 강사의 전문성과 함께 열혈아 여고수 모임,
연세인 모임이 발족되었습니다.
연세인 모임의 총학생
262명!
여고수 모임 총학생
305명!!!

여동문회의 필요성을 꼭꼭 느끼고 있는
힘겨운 후배들, 힘 받들 선배들이 필요해요.
여동문회가 여동문들의 지력을 계발하고
조직적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80년대 개설된 여성학 강좌를 듣고,
남녀공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연세 동산을 저절로 만났던
저희들..

저희는 이 연세만의 소중한 시간들을 열심히
보낼 것이고, 연세 여성이라는 데에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의 남녀공학의 가문 속에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며, 이바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갈래갈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저희의 멋진 모델들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부라더 흥미싱

역시
부라더 흥미싱입니다.



- 커튼, 침대보에서 생활소품까지
홈패션 용품 만들기
- 옷본을 이용한 손쉬운 옷 만들기
-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부라더옷본.
키트를 전국대리점 및 유명 백화점,
서점에서 판매중

은행카드(비씨, 국민, 외환비자,
엘지카드) 무이자할부판매
(3-10개월 일부대리점은 제외됩니다)
전국 무료 교육실 운영
홈패션, 양재, 옷본을 이용한 옷만들기 강좌 무료교육

한정현(77년 정외 졸) 협찬

축 발 전

연세대학교 남녀공학 5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인미술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인사동 문화거리의 자존심
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0-1
대관문의: 02)733·4448~9/737·8658
02)722·4624(팩스)



주식회사 탑스리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중영빌딩
TEL. 3473-5500~19 FAX. 3474-2159



탑스리빙이 제안하는 공간

침실에서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TOP_{Living}

세프라인탈스가 탑스리빙으로
브랜드 네임과 로고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동문탐방



1. 언론계 : 신동식
 2. 사회계 : 강교자
 3. 의학계 : 안명옥
 4. 문화계 : 김인숙
- (글: 현지혜)

언론인으로서 직업적인 삶을

신동식/서울신문사장실 심의팀 본설위원

원

로 대접받기보다는 발로 뛰다니며 여전히 일선기자의 감각을 놓지 않고 계시는 신동식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마감시간 10분 전, 본주히 기사정리를 하면서도 취재은 후배에게 '후배미안'이란 말을 연방하시는 모습은 나이조차 잃어버린 완벽한 전문인의 모습이었다.

'62년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신동식 선배는 그때 당시 몇 안되는 사원공개채용시험을 치렀던 서울신문사에 입사했다. '63년 서울신문사 수습 9기로 입사하여 사회 부가자로 근무한 이후 '83년까지 사회부 차장, 수도권부 차장 대우의 직책을 거치면서 줄곧 사회관련분야를 취재했다.

기자였던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상황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 안되는 경제부재(?)의 상황이었다. 시대상황에 따라 사회부 취재내용도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 60년대 중반 신선배가 서대문경찰서 출입기자 시절의 주된 기사 내용은 생활고로 자살하거나 일거리가 없어 매혈을 하기 위해 적십자 혈액원에 길게 늘어선 줄 등이었다.

또한 그 때 당시의 주된 질병도 오늘날과 같은 암·성인병·에이즈 같은 것이 아니라 임질, 매독, 나병, 천연두, 장티푸스 등이었다고 한다. 수십년동안 사회부를 지키면서 주로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면을 보아온 신선배로 서는 이 사회의 혜택받은 자들보다는 고통받은 이들의 편이 되었다. 기사내용도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는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이었다. 단지 몇줄의 기사가 전국민의 생활고를 금방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인 위정자는 위장자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댓가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라면 한평생 외길인생을 걸어온 신선배의 노고도 충분히 보상(?) 받은 셈

아닐까. 그러나 신선배가 바라본 오늘날의 현실은 더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비록 물질은 풍부하지만 가치가 전도되고 도덕이 타락한 이 시대는 더 이상 언론인의 몇 줄의 글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철저히 문제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구성구석에 내재한 사회 부조리, 부의 부 빈익빈 현상, 그리고 권력과 자본의 집중현상 등은 우리 사회전체가 지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신선배는 생각한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은 과거 어느 시점에 특정지역에서 완성되어 퇴색해 버린 이념이 아니라, 인류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추구해야 할 인류이념이다.

이념은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될 때만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이 주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의 완결은 '정의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영국에서 완성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마치는 것이 사명

사람이 인격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부조리가 없어지고 정의로운 규칙이 제도화되는 사회에서만 인간은 기본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언론인의 직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국가와 사회에 환기시키고 목표전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에 분개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펜으로 대중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요즘은 언론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기자라는 직업이 많은 수입과 권력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이도 더러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언론인이 된 이는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 정의롭지 못한 편파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엄연히 이런 부류의 언론인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신선배는 개탄해한다.

이 또한 가치가 전도된 현상의 일환이다.

"그 어떤 가치도 자기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우리 모두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되려는 이는 권력과 돈의 횡포로부터 해방되어 펜으로 바르지 못한 제도와 관행에 도전하여 정의를 위해 투쟁하려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남성이 지배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 기자는 더욱 더 확실한 직업의식이 있어야만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신선배는 강조한다. 여기자들의 경우 대우문제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때문에 그나마 소수의 여성언론인에게 선배라는 울타리가 없고 사내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언론인으로서 직업적인 삶을 마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신선배는 생각한다.

1984년에 제1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한바 있는 신선배는 여기자 클럽을 통해 비교적 조용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총리실산하 여성정책 심의위원 이기도 한 신선배는 우리 학교의 남녀공

학 50주년을 맞아 학교의 여학생정책 부재현황을 개탄한다.

'우수한 30%'에 대한 정책부재는 사회발전을 포기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성적차별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유 없는 성차별은 인종차별과 다름 아니다.

"부조리를 의식하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지위의 전착은 곧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신선배의 모습은 결의에 가득차 있었다.

혜택받은 이들이 좀더 많은

강교자/ 대한 YWCA 연합회 사무총장



리나라 최초로 결성된 기독교여성단체인 YWCA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 YWCA연합회 강교자 동문.

2주간에 걸친 간증장의 여독에도 활달한 모습으로 사무를 챙기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64년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트대학에서 신학공부를 한 강교자동문은 귀국하여 한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뒤늦게 YWCA에 합류했다.

주지하다시피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에 걸친 시기는 민주화과정에서 학생들이 수많은 데모에 참여하였고 제대로 수업조차 할 수 없는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교수라는 직분에 화의를 느껴 과감히 시민단체 활동에 뛰어들었다.

한국의 여성 선각자들에 의해 1922년 설립된 한국 YWCA는 초기에는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여성의 의식 개혁을 비롯한 계몽운동을 주로 파나갔다.

일제치하에 그 맥이 잠시 끊어졌다가 해방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한국 YWCA는 여성의 직업개발과 청소년 지도자 양성과 같이 주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본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70년대에는 소비자개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운동을 주도했고, 8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보호운동과 성폭력방지운동과 같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러운동을 펼쳐왔다. 오늘날 우리가 현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성법개정, 소비자 권익보호, 환경보호운동, 정신대 문제 의식환기 등과 같은 결실은 모두 YWCA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의 현실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단체가 알핏보기에는 큰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요소요소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이 과거에

비해 이 만큼의 인권과 평등을 구가하고 있는것은 Y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역할이 주요한 것입니다."

오랜기간 YWCA에 몸담아 활동해온 강교자 총장은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려면 여성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의식은 '내가족, 내 이웃'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에 머물러 부조리에 도전하기 보다는 의례적인 관습과 환경에 순응하고 안주하는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굳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여성의 비사회적인 의식이 사회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YWCA에서는 90년대초에 들어서 바른살 실천운동'을 전국의 51개 YWCA 지부를 통해 전개해왔고, '94년부터는 '하나하나운동'을 전개하여 내 수입의 100/1을 봉사에 쓰고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하루에 한번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가정이 이 사회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인류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고도산업사회의 역기능적인 물질문명에 밀려

봉사를 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

인간의 가치가 하락하는 오늘날에는 생명의 근원인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시대보다 중요하다고 강총장은 생각한다.

"오늘날의 문화는 생명이 없는 문화입니다. 인간이 기계에 밀려 인간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결여된 인간관계가 발달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성은 생명운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은 하늘이 여성에게 준 선물이며 여성만의 재능입니다. 이러한 귀한 선물을 부여받은 여성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있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합니다."

오늘날 생명의 근원인 여성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가족구성원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YWCA에서는 '94년부터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 하는 주제아래 '생명운동과 바른생활운동'을 중점적

으로 벌이고 있는데, 향후 3년간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가정과 사회, 자연과 인간의 질서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YWCA에서는 여성에게 봉사할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회봉사를 통해 미처 느끼지 못한 내 이웃의 문제도 공감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사정해야 할 사회의 부조리도 인식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의식이 좀더 사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바른 의식고취 작업도 YWCA에서 중요시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96년을 청소년강조의 해로 정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청소년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활동은 바람직한 인간, 바람직한 사회, 그리고 바람직한 인류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계획된 운동이라고 강총장은 강조한다.

오래전에 캠퍼스를 떠나는 강교자 동문은 이러한 사회 활동에 우리 여동문회가 적극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YWCA일을 본격적으로 맡고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연대 여동문들이 너무나 없었다고 슬피한다. 개개인은 모두 우수한 자질을 가진 동문들이 사회봉사에 참여운동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쉽다고 한다. 이 사회에서 혜택받은 이들이 좀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사회 전체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총장은 강조한다.

여러 동문모임의 목적이 친목도모의 단계를 넘어서 사회봉사와 같은 좀 더 목적적인 모임이 된다면 모든이에게 동참의욕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교자 총장은 여동문회의 활동에 큰기대를 걸었다.



여성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안명옥 / 의학박사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질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차병원의 건강증진센터 소장 안명옥 박사.

그도 또한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전문인 중의 한사람이다.

'79년에 우리 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안명옥 박사는 우리 학교 수련의를 거쳐 '83년에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바로 도미하여 로스앤젤레스 소재 UCLA에서 모자보건학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92년에 예방의학전문의가 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제도덕분에(?) USC에서도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모성태아학 강사로 일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일반인에게도 다소 생소한 모자보건학과 모성태아학은 궁극적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특히 모자보건학은 산부인과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산모와 태아의 생활환경과 관련이 되는 모든 학문분야 즉,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등 제반 학문과의 연계속에서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따라서 모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보건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특히 중점을 둔다.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되는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단지 일련의 보건정책과 그 집행만으로 조성될 수는 없겠지만,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요즈음과 같은 복잡한 생활환경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단지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진단해서는 곤란합니



다. 인체와 생활환경과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진단하고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병원 외적인 생활환경과 관련되는 보건정책은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인류역사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재창출의 단계이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배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출산과 자녀의 양육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숙제를 여성이 많은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일과성의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인류행태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도, 반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당사자인 여성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관심은 물론 제도적인 보장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책입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전문성이다.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전문가가 부재한 집단의 의료정책은 단지 건강이나 삶의 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진료의 바탕

"적절한 치료과정을 포함하는 위기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료혜택에서 벗어나 생명을 잃는 상황은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가장 불행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인 안박사는 미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비록 현실의 상황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창조적이고 훌륭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의료시장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안박사는 확신한다.

안박사가 재직하고 있는 차병원에는 행복한 여성 클리닉(Well-woman Clinic)이 운영되고 있다. 안박사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여성 누구나 겪게 되는 생리·임신·출산·폐경 등과 같은 생리적 현상을 이상성이 아닌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계에 따라 점검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수용·치료해가는 것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급격한 신체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얻음으로써 자신 있게 생활하는 행복한 여성상이 이 클리닉의 지향점이다.

1995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여의사 학술대회에서 안박사가 발표하기도 했던 이 프로그램은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올 7월부터 일년 예정으로 미국 UCLA연계병원에 고문의사로 가게될 안박사는 미국에서 자신이 개발한 이 클리닉에 대한 공동저술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의사의 직업적인 의료행위가 단순히 인체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완벽한 의술을 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년동안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안박사는 이제 절반의 성인 여성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갖게 되었다.

여성이 일생 동안 가장 의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풀어가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회의 이해부족과 여성 스스로의 자괴감은 문제해결의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을 인정하고 사랑하여 야만 당당하게 타인으로 부터 이해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모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안박사는 지성의 전당인 학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의 현실을 개탄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남성지배체제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학내의 성차별은 결국 학교,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인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양성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각기 다른 성향과 특질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조화를 이룬다면 이 사회는 더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기독교 정신이 기초가 된 우리 학교에서 갈등이 해소된 완벽한 남녀 협동체제의 장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화의 장을 만드는데 여동문회가 기본조각이 되어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기를 안박사는 기대했다. "우수한 자질을 지닌 여동문 개개인이 이러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결집하게 되면 학교발전은 물론 전체사회의 발전을 크게 전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속감있는 동문회모임을 기대

김인숙/소설가

쓰는 작업이 얼마나 섬세한 감정을 요구하는지
를 느끼게 하는 모습의 소설가 김인숙 동문.

대학 재학시절이던 '8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상실의 계절)로 데뷔해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그
는 '87년 졸업후에 본격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했다.

작가 김인숙의 작품세계는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된다.
문단에 데뷔한 초기는 감각적이고 통속적인 시기로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은 (상실의 계절)(1983)과 (빛
줄)(1983)을 들 수 있다.

평론가 김경원은 (상실의 계절)은 청춘에 담긴 혼돈이
유감없이 그려져 있는 동시에 청춘만이 허락받은 대담함
과 치기가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평한다.

(상실의 계절)에서 작가 김인숙은 철저한 인물심리의
추적을 통해 주체할 수 없는 청춘의 혼돈을 육체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하고, 중국에는 그 모든것이 사랑의 참원의
미를 찾아가는 삶의 과정을 구성한다는 작품의 주제를 묘
사했다. 재학중에 문단에 데뷔한 김인숙 동문은 신문방송
학과 학생이던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중 학생화산하 학회
활동에 전념했다. 스스로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
장 열정적이고 순결했던 시기로 표현하는 김인숙 동문은
운동권 학생이 흔히 그러했듯이 국내외 시국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었다고 한다.

'87년 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한 김인숙 동
문은 산에 운동권 작가의 대열에 편입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79-80, 겨울에서 봄
사이)(1987), (하나 되는 날)(1988), (함께 걷는
길)(1988), (강)(1988), 그리고 (부정)(1989)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작가 김인숙은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큰 관
심을 가지고 직접 노동현장을 뛰어다니며 왕성한 창작활
동을 벌였다.

작가 자신의 말을 빌리면, (79-80, 겨울에서 봄사이)를
통해 1980년 당시 학생운동권의 풍경을 그리므로써 원
죄라고 느꼈던 과거의 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 졌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소설가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이 시기를 등단 이후 가장 행복했던 글쓰기 시절이
었다고 회상한다.

'88년 결혼과 '89년 출산이라는 여자로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은 김인숙 동문은 작가로서도 변신을 하게 된
다. 이 시기에 작가 김인숙은 소시민이나 여성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문제의식을 좁히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당신)(1982), (무너
지는 세월)(1992), (양수리 가는길)(1992), 그리고 (칼
날과 사랑)(1993)이 있다.

작가 김인숙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이정표가 되는
작품 (당신)은 남편이 전교조에 연루되어 작장을 잃으면
서 중산층 주부가 겪는 심리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 평론
가 김경원의 표현을 빌리면, 작가 김인숙은 이 작품에서
경제적 치부를 향한 중산층의 소시민적 욕망이라는 지배

적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일상적 삶 곳곳에 스며있으며
강렬한지를 드러내는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고 한다.

(당신)과 유사한 작품경향을 지닌 (무너지는 세월)과
(칼날의 사랑)에서 김인숙은 여성문제로 자신의 관심을
전환했다.

이들 작품속에서 김인숙은 특유의 심리묘사를 통해 대
형해야할 현실이 남성이라는 개별적인 인간으로 축소함
에 따라 사회성을 탈락했다고 김경원은 평하고 있다.
1993년 부터 3년간 남편과 함께 호주에 체류했던 김인
숙 동문은 그때 쓴 (먼길)이란 작품으로 한국일보 문학
상을 수상했다.

김인숙 동문은 여성이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
리사회의 여성문제는 수천
년에 걸친 가부장적 제도와
유교적 관념이 맞물리어 있
는만큼 그러한 문화적 이데
올로기의 변화가 없이는 해
결이 요원하다고 그는 생각
한다.

"또한 사회에 진출한 20%
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
다. 이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80%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 현실이고 또한 이끌어가
야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교와의
끈이 끊어진것 같이 느끼는

김인숙 동문은 '학연'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보
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남자들은 학연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 반해 여성들의 경우는 단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여성 스스로 사회적 구조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혹은 편입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여러 형태의 동문회 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수많
은 사람속에 익명의 존재로 사라질 뿐 소속감을 주는 일
은 아니기 때문에 연결의 고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 자신 동문들과 긍정적인 '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는 김인숙 동문은 졸업한 동문들을 위해 사회교육원과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동문들의 다양

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특히, 분야별로 소
그룹을 형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해
가는 장을 마련하게 되면 그
것을 중심으로 소속감도 생
기고 전체 여동문회의 활성
화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녀공학
50주년을 맞아 여동문스스
로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는
시간도 갖게 되기를 희망했
다.



선배님에게 바라는 재학생의 변

우리 학교가 남녀 공학이 된 지 딱 반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총여학생회는 10년에서 1년 빠진 9년동안 우리 학교가 진정한 남녀 공학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내에서 곡해된 성개념을 바로 잡는 일, 기성문화 안에서 성차별 비판, 취업문제까지 여학생들의 고민을 받아 안으면서 조금 더 평등한 남녀 관계와 건전한 공학문화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바로 연세대학이라는 조사 결과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우리 학교에는 여학생들이 어느 남녀 공학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화된 여성인력의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 여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그 증거로 우리학교를 졸업한 많은 여동문 선배님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 우리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공학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학교가 진정한 남녀공학인지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 우리학교 교수님들이, 그리고 돈암동의 고대생들이 연세대학에 여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이 학교의 망조라고 개탄을 하신다거나 조롱을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왜 여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이 망조의 지름길이 되어 버린걸까요?

남학생들과 동등하게 취급(?) 하는 것이 바로 남녀 평등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남녀 공학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봅시다. 우리학교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실제로 뛰어난 실력을 배양하여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학교의 역할은 매우 미비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은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사회는 아직 남성과 여성이 단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차별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학생들이 바라는 캐리어 우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는 일도 중요합니다.



신유정/총학생회장, 법학 4년

그러나 우리학교에서는 단순히 실력만 쌓아 놓고, 여학우가 취업하고 싶은데에 취업해 봐라 하는 식이 아닌가 합니다. 진정한 남녀 공학이 되기 위해서는 여학생수가 불어 나는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우리 사회의 편견을 바로 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해 감시하는 역할을 학교에서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게 이 사회의 굳건한 일꾼으로 자리 잡은 여 동문 선배님들의 결속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고등학교때 까지 가장 가고 싶은 대학, 대학을 다닐 때에도 성취도가 가장 높은 대학으로 손꼽히는 우리대학이지만, 졸업 후 동문에 대한 만족도는 이대 다음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동문 선배님들 경우, 자신의 성공을 학교와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에 적극적인데 반해 여동문선배님들은 소극적이지 않나 합니다. (아마 이것이 여학우가 들어오면 망조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등 전통사회 내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소극적인 여성을 길러내는 사회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지만, 이제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여동문들의 강한 결속과 단합으로 우리학교의 발전에 공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학내의 성문화와 놀이문화, 강의 중 교수님들의 성차별적인 발언 등 평등한 남녀관계와 건전한 공학문화를 행하는 우리학교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걸림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남녀 차별의 사회편견과의 적극적 대응, 그리고 여동문의 결속력 강화는 아마도 이런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는 아직 남성과 여성이 단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차별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학생들이 바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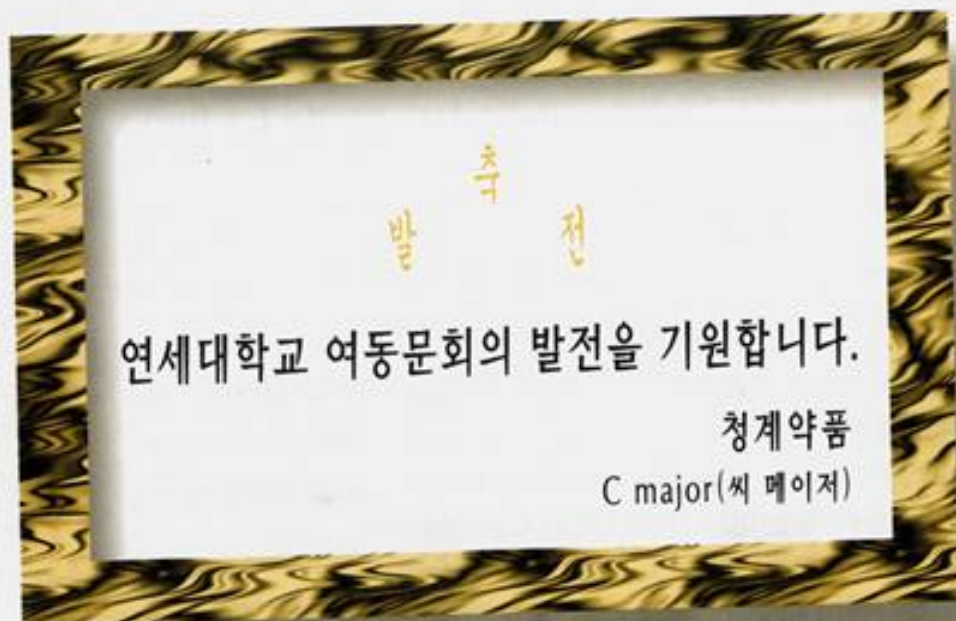
캐리어 우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바로 잡는 일도 중요합니다.



풍요의 무한지대, 저희가 가꾸어가겠습니다.

식품산업에서 출발하여 화학, 축산, 양어, 유전공학, 생균제 등을 비롯, 운송, 건설,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자문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제당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과 미술처럼 우리 식생활을 풍요롭게 해온 대한제당...

인간답게 사는 즐거움을 주는 일에서부터 풍요로운 삶을 위해 펼쳐고 있는 끊임없는 노력은 대한제당이 준비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랜 기업경영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로 식품, 화학, 축산, 양어, 유전공학, 생균제 등을 비롯하여 운송, 건설, 첨단 하이테크 기술자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복된 미래를 위해—

지금, 대한제당이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TS 대한제당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02)410-6000
본사: 인천직할시 중구 북성동 1가 6-14/(032)764-2600~14

청결세대 - 옥시

정결한 삶, 청결한 가족, 청결한 우리 집안을 가꾸어 주는
옥시들 - 바로 옥시가 꿈꾸는 청결세대입니다.

O

Oxy

옥시가 더욱 맑고 깨끗해집니다!

옥시크린, 파워크린, 물먹는 차마, 그리고 웨리에 이르기까지 - "깔끔하고 청결하게"란 슬로건으로
소비자의 보다 편리한 생활과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 온 생활용품 전문회사 옥시가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맑고 깨끗해진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옥시의 새 얼굴에는 -

- 푸른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을 상상시키는 푸른색
- 깨끗한 산소가 담겨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청결세대를 의미하는 산소(Oxygen)를 상징화한 대문자 O
- 진취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활용품회사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영문로고 OXY

새해에도 옥시는 새 얼굴, 새 다짐으로 생활을 청결하게,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계적인 생활용품 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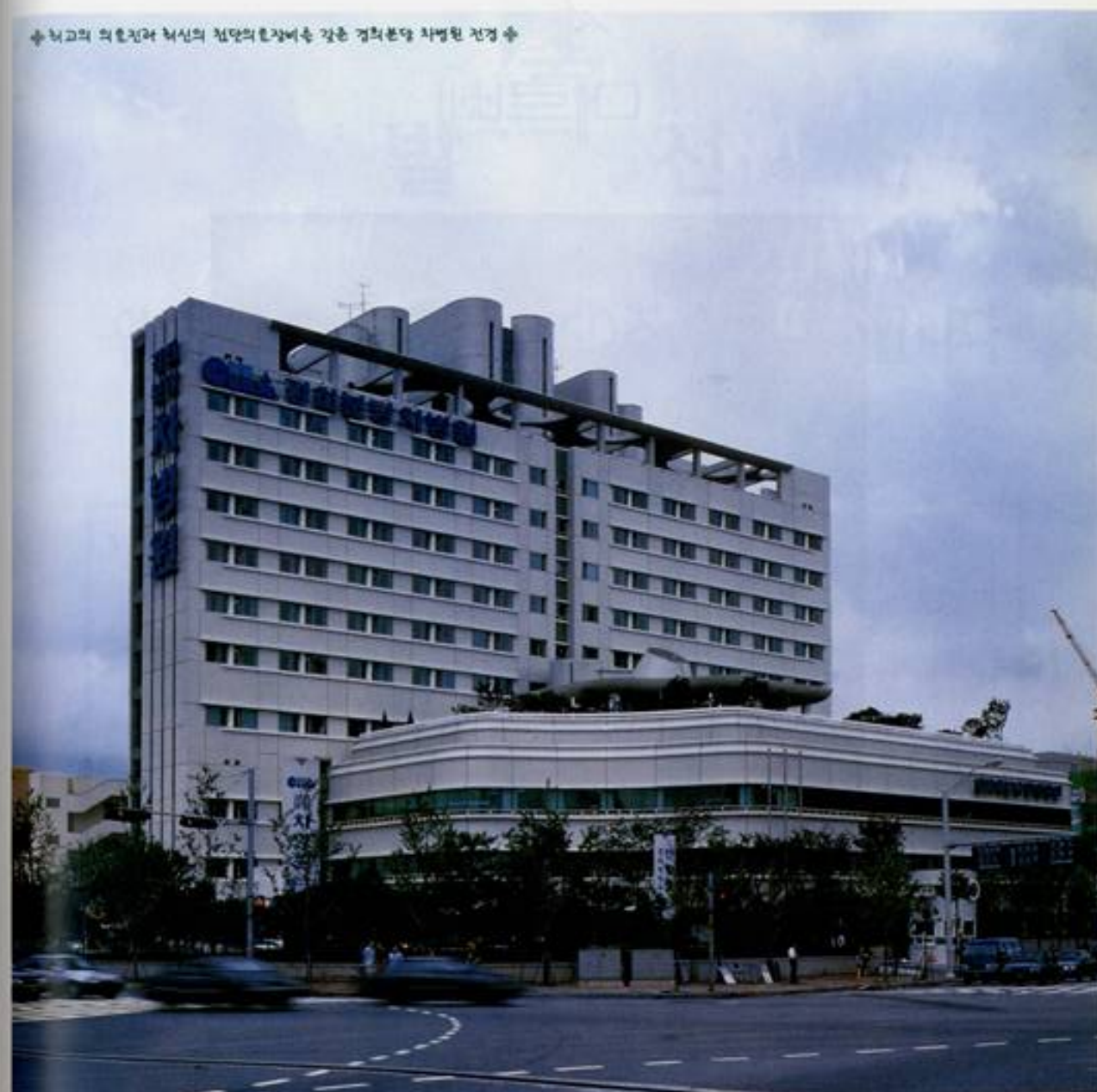
■ 본사대표: (02)421-6789
■ 소비자상담실: 080-022-9547
(상말실 전화는 무료입니다.)



연세동문이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차병원

충북도의 의료진과 혁신의 천단의로장비를 갖춘 경희본당 차병원 전경 중



강 남 차 병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50-9 / 대표전화 558-2111

분 당 차 병원

(병상 500병상, 한방 100병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51 / 대표전화 103-0270-5000

차병원여성의학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06-5 / 대표전화 565-2611

차병원기초의학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06-5 / 대표전화 555-2611

차병원종합건강진세원

서울시 강남구 2동 102-18 / 대표전화 566-2511

검진센터스포렉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4-14 / 대표전화 563-2111



편안한 병원, 섬기는 병원, 믿을수 있는 병원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웨딩드레스는 축복의 마술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기원하는 마음을 순백의 웨딩드레스에 담은
웨딩드레스 매키프는
이태리 탑 디자이너 엔조루소(ENZO RUSSO)와 노바레세(NOVARESE)의
꿈의 웨딩드레스로 웨딩드레스의 최고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6-8 TEL: 515-6680, 515-7142~4

· 부산점 (051)247-2195	· 광주점 (062)225-6680/6670	· 순천점 (0661)742-1448
· 울산점 (052)211-0801	· 여수점 (0662)62-5566	· 파주점 (02)548-5149

발 축 전

연세대학교 남녀공학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일병원

CHEIL GENERAL HOSPITAL

서울특별시 중구 목청동 1-23 (우편번호 100-380)
대표 262-7000 Fax. 271-1734

명예이사장 이동희
이사장 노경병
명예원장 이승호
원장 박인서
진료부원장 임웅철
진료지원부원장 박종택
교육연구부원장 이현우
행정부원장 박진서

진 료 과 목	내	일	소	산	정	성	비	피	신	안	치	이	마	임	조	방	초	여	유
		반		부	형	형	뇨		경			비		상	직	사	음	성	방
	외		아	인	외	외	기	부	정	신		인	취	병	병	선	과	합	검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진	진
목												후		리	리			센	센
												과	과	과	과	과	과	타	타

새로운 교육문화를 일구는 '학부모 연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의 수요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전종자/인간교육실험 학부모
연대 공동대표, 66년 교육학과
졸업

학부모 연대는 1990년 4월 28일에 창립된 교육분야 시민운동 단체이다. 우리나라 교육을 '살아남기 경쟁에서 함께 크는 교육'으로 바꾸어 가려는 학부모들이 모인 교육운동 단체이다. 입시위주의 비인간적인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인간교육을 실현해 보자는 의지로 단체이름도 '인간교육실험 학부모연대'(약칭:학부모연대)라고 지었다.

학부모 연대는 한마디로 '인간교육'을 운동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인간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동체적 인간상을 지향하는 교육, 아이들에게 다양한 인간적 성장의 길을 보장하는 교육, 소속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교육이 학부모 연대가 바라고 지향하는 이념이다.

대학입학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고등학교는 전인교육의 원래 목표를 제쳐놓고 입시준비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시달리며 자신의 꿈을 죽음으로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때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로 1988년 봄부터 일년간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화모임'이 열렸다. 이 대화모임의 참석자들은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우리나라에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1989년 7월부터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의 창립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학부모 연대를 창립하였다.

학부모 연대는 출범 당시 '성숙한 부모, 자유로운 학교, 건강한 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가 하려

는 교육운동은 우리 모두의 삶을 성찰하는 방식의 교육문화 운동으로 승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성숙한 학부모되기 운동',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 그리고 '건강한 아이 키우기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공동체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신이 먼저 성숙하고 깨인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먼저 창립대회에 즈음하여 발기인들의 의견을 모아 '성숙한 부모의 다짐 10개항'을 작성 하였다. 초창기에는 '학부모 논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현안들을 공부하고 토론하여 학부모의 입장을 정리하는 모임을 많이 하였다.

94년도에는 '열린시대, 학부모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순회강연을 하였다. 95년도에는 '열린시대 트인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하였다. 이렇게 학부모 연대는 학부모들의 의식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의 문제투성이의 한국교육에서 학부모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며 공범자이기 때문에 한국교육이 치유되려면 학부모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연대가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망이 영글려면 학교가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권위적이고 수동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와 관계가 민주적이고 능동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좋은 교육이 가능하며 아이들이 받는 교육도 획일적인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의 능력과 지성개발에 적절한 열린교육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부모 연대의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은 아직까지 우리의 소망일 뿐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자유로운 학교와 관련하여 한 활동은 창립 당시부터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폭력 즉 체벌과 언어적 폭력을 추방하고 예방하기 위해 '후루라기 상담전화'였고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연대는 상담 전화를 개설하면서 '배맞는 아이 병드는 사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폭력은 악순환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체벌과 욕설은 인간교육 실현을 위해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요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이 학생들에게 폭력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부모연대가 앞으로도 교육폭력 추방을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나서서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95년 5.31 교육개혁안 이 발표되면서 개별학교에 '학교운영 위원회'라는 자치기구를 두게 되었고 교장과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인사가 학교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의 수요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즈음하여 학부모 연대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역할에 관한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 연대의 건강한 아이키우기 운동은 우리 아이들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데 장애가 되는 맹목적인 차별주의를 배격하고, 인
사위주의 교육을 추방하고, 조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의 비민주적 관행을 없애고, 학교에서의 폭력
을 금지하며,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교육문화를
추방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면
서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
에게 개성, 창의성, 공동체정, 자율성을 길러주는 교
육을 강조하고 있다.

학부모 연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새로운 교육문
화를 일구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에서 교육정
책이 나올 때마다 학부모 입장을 발표하였고, '성숙
한 부모, 자유로운 학교, 건강한 아이' 단행본도 냈
고, 학부모 연대 신문도 계속 발행하고 있으며, 상담
전화도 계속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아이
하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가족이기주의에 사로잡

힌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다. 학부모 연대가 이제 우
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교육운동 단체로 인정을 받
게 된 데는 오로지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에 뜻을 두
고 무보수 봉사로 전문성을 아낌없이 제공해준 본
교 교육학과 동문들의 수고의 몫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강대인 동문, 본교
교육학과 한 준상 동문, 상명대학의 고 이진분 동문,
동국대에 출강하는 이 은옥 동문, 본교 사회교육원
의 주은희 동문, 한국교육개발원의 양승실 동문, 학
부모 연대의 사무국장 강소연 동문이 학부모 연대
를 키워온 장본인들이다.

학부모 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교육문화를
일구어 갈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 연대는 우리와 연
대해 줄, 우리와 함께 뛰어 줄 사람들을 문을 열어놓
고 기다리고 있다.



SEYON MEDICAL CLINIC

세연내과 의원

의학박사전문의

김경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 (정 별당 2층)
TEL : 567-4305

80년졸 서정수, 백일수
82년졸 김영원
89년졸 박창주
91년졸 홍희숙

아름다운 치과 의원

평촌 뉴코아텔 TEL : 0343-85-0123
인영시청앞 TEL : 0343-46-2778

인간적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호루라기' 상담전화 운영

1989

교 졸업 후 영국에서 청소년 상담과 생활지도
분야를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9
년 귀국 이래 대학 강의와 함께 꾸준한 인간교
육실현을 위한 교육운동에 참여해 온 주은희
동문은 지난 90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내에
'호루라기' 교육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 교육계에 학생 체벌이 상습적으로 행해
지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간에 인간관계를 왜곡시
키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서 이같은 폭력에 대
해 묵인하고 수용적인 문화가 만연된다면 더 나아
가 가족폭력, 사회폭력이 성행하는 폭력사회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뜻을 같이하는 교육계의
연세대 동문들과 학부모 연대의 회원들이 상담전화
운영에 참여한 것이다.

현재 동송동에 위치한 크리스탈찬 아카데미 사회
교육원 내 자리하고 있는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실내에 호루라기 상담실에서 10여명의 상담위
원들의 회의와 교육을 주관하는가 하면, 본교 사회
교육원 상담자 연수과정 강의를 통해 새로운 상담
자를 배출하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상담
을 통해 학부모 자신이 자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

고 자아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관점에
서의 교육관을 형성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인 참여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보
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주 동문은 그 자신뿐 아
니라 상담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상담과
정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담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오히려 이런 봉사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있
다고 전한다.

작년부터 학부모연대가 동아일보, 교육민기와 함
께 인간교육실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치게 되자
그 캠페인의 일환인 학원주변 폭력과 학교내 체벌
고발 창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최근 중앙
일보, SBS방송 등이 호루라기 상담전화와 주은희
동문의 활동을 소개한 바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전화이용이
가능한데 초등학교 학부모부터 고등학교 학부모까
지 폭넓게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폭력의 사례접수
뿐 아니라 춘지문제, 일반 육아와 교육상담도 하고
있다. 특히 체벌문제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체벌
발생 상담을 전개하고 해당 교사와의 열린 마음의
면담을 발송 등 시정을 요구하는 중계 역할을 하고
있다.

● 호루라기 상담전화 이용번호는 (02)766-2598이다.

축/발/전

연세대 학교 남녀공학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탁미진회 피부과
TEL: 648-2342

영원한 마음의 고향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딱히 내세울 고향이 없다.
꿈 많은 대학시절을 보낸 연세의 숲이 없다면,
그 속에서 함께 울고 웃던 연세의 친구가 없다면
나는 고향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였으리라.



이돈숙 / 58년 영문과 졸

4가 연세대를 다니던 1950년대, 신촌은 문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 우거진 숲속에 둘러싸인 학교 건물은 어딘가 고풍스럽고, 캠퍼스는 평화롭고 조용하였다.

꽃들이 만발한 봄날은 봄날대로, 녹음이 우거진 여름은 여름대로 더없이 아름다웠다. 어디 그뿐인가? 단풍이 물든 가을과 하얀 눈이 덮인 겨울은 그에 못지않은 절경이었다. 곧게 뻗은 백양로, 그 은백 양나무 밑은 차도 거의 다니지 않았다. 무척 길게 느껴지는 한없이 걷고 싶은 사색(思索)의 길이었다. 어쩌다 동문회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부산을 떨고, 설레는 마음으로 모교로 향한다. 상가가 뻑뻑히 들어찬 신촌거리, 수없이 나무끼는 울긋불긋한 플라카드에 새삼 격세지감(隔歲之感)을 갖게 된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 않던가? 십 년이 거의 네 번이 다된 지금, 비록 시대가 바뀌고 환경은 달라져도, 그 옛날 대학생활의 꿈과 낭만은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 겨울 졸업하고 처음 37년 만에 영문과에서 스터디 그룹을 함께하던 친구들과 만났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初老)의 신사들과 여러 명의 손자를 거느린 할머니가 된 우리들. 격조했던 그간의 안부를 서로 나누고, 연회 숲에서 함께 읽었던 영(英) 소설, 단편, 시 등을 얘기했다. 한 친구는 긴 영시를 외우며 우리의 흥을 돋우고, 놀라운 기억력을 과시했다.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그곳 한 대학에 교수로 있는 친구는 미국은 정(情)이 없는 차가운 사회고, 영어에는 정이란 단어조차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몇 십 년 만에 만나도 스스럼없이 반갑고, 따뜻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학창시절의 옛 정 때문이다. 흩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은 서로의 마음 한구석에 암전히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노천극장 뒤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지금의 알현관 자리엔가 알로하란 여학생 기숙사가 있었다. 나는 그 길을 아카시아 로드로 명명하고, 아카시아 향기만큼이나 이 길을 사랑하였다.

알로하 생활은 남녀공학을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특별히 학교에서 배려한 여성프로그램이다. 일종의 신부수업 내지 여성학 강의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당시 심치선 사감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 고난을 이기는 지혜, 늘 겸손하고 부드러웠던 태도, 꼼꼼하게 작은 일에 충실했던 선생님은, 훗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생활인의 자세를 배우게 했다. 그리고 해마다 신록의 오월, 그 마지막 토요일 밤에, 우리 여동생들에게 가든 파티를 열어주시던 총장사모님을 또한 잊을 수 없다. 메인 디시가 불고기라서 흔히 불고기 파티라고 부르긴 해도, 그것에서 온갖 마음의 회포를 풀며, 오랫동안 쌓인 우정을 반주했다. 고달픈 시집생활에서 벗어나 친정에 흠기분히 나들이온 딸들처럼 말이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연세만의 자랑으로 우리 여동

생들에게 구원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숲을 이룬 총장공관 앞뜰 잔디밭.

눈이 닿는 곳은 온통 초록 일색인 녹색지대. 그 싱그런 바람과 향긋한 풀냄새에 젖어 나는 잊었던 옛날의 팝송 한귀절 "Green green grass of home"을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며 고향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누군가 말했듯이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고향이란 마음이 언짢고 우울할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문득 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훌쩍 찾아가고 싶은 곳일 게다. 그곳에서 위안을 받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딱히 내세울 고향이 없다. 꿈 많은 대학시절을 보낸 연세의 숲이 없다면, 그 속에서 함께 울고 웃던 연세의 친구가 없다면 나는 고향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였으리라. 나를 포근히 감싸 주던 연회 숲, 우정어린 친구들, 자애로운 은사님들이 늘 거기 있어, 연세는 나의 고향이다. 단순히 모교일 뿐이라고 우기는 이도 있겠지만, 연세는 내 마음의 고향. 영원히 잊지 못할 마음의 고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속 돌보기

♀ 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행복의 가치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무엇을 통해서든 지 우리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얻어보려고 한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고통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한 행복과 기쁨을 바라보기에 그 고통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 한번밖에 없는 인생의 경주를 저마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복의 추구는 외적 삶에 의존하는 듯하다.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좋고, 훌륭하고, 부유한 것을 원한다. 분명 그 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좋은 대학을 가



이성훈/
정신과 의사, 79년 의학과 졸업

고, 1등을 하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좋은 직장, 큰 집과 자동차, 좋은 환경의 거주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 생기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인격 등……. 분명 이는 우리들이 찾는 아주 보편적인 행복의 조건들이다. 가능한 한 이러한 외적 조건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외적조건을 갖추었지만, 전작 이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는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산다. 것처럼 행복을 찾으며 열심히 뛰어나나 그 행복을 마지막으로 누릴 나의 마음은 너무 가꾸지 않고 산다. 오히려 그 외적 행복을 위해 나의 마음을 마구 구박하고 괴롭히기도 한다. 그래서 그 행복이 얻어지면 무얼 하는가? 나중에 이를 누릴 마음이 지치고 누워버린다면 그 외적인 행복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좀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바깥 것이 적더라도 충분히 누리고 내 맘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더 나은 삶이 아닐까? 엄청난 것을 쌓아놓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어둡고 외롭고 아프다면 그 쌓아 놓은 행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누가 12:19)에 한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으나 이를 즐길 영혼이 죽어버리니 그 부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외적 삶만 열심히 돌보지 말고 이제 내적 삶도 살펴 보아야 한다. 속에서는 안된다. 마치 그 속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마당 쫓아가서는 안된다. 자신을 좀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돈을 벌고, 승진하고, 큰 집을 사고 일류대학을 가서 뭘 하는가?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번 일만 끝나면 하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마치 도박판과 같다. 돈을 번 사람

은 번대로 조금 더 하고 싶고 잃으면 더욱 더 보상받고 싶은 것이 세상이라 좀처럼 우리 속을 돌보기가 어렵다.

속을 돌본다는 것은 첫째로 쉬는 것을 의미한다. 쉬어야 내 속이 보인다. 잠깐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속이 어떤지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 일은 중독성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일도, 사람도, 물질도 관계하다 보면 빠지게 되고 대개는 그것에 중독된다. 그러니 내 속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고 결국 그 속은 병들게 된다. 아주 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쉬어야 마음이 보인다. 우리는 쉬지 못한다. 그것은 내 속이 아프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쉬면 내 속의 아픔이 드러나기에 계속 몰두하려고 한다. 다들 쉬고 싶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쉬지 못하는 것을 그 속의 마음을 직시하기가 두려워서이다. 쉬는 것이 불편한 사람일수록 더욱 쉬어야 한다. 쉬어야 마음이 느껴지고 보인다. 나중에 정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것 보다는 미리 쉬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어떻게 돌보아야 하나? 대개 우리의 속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있질 않다. 대개 부끄러운 것, 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숨기고 억누르게 열등하고, 무력하고, 두렵고, 못내먹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그렇게 한 영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을 감추고 그렇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숨기고 외적으로 강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산다고 내 맘도 그렇게 따라갈까? 우리는 외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 그렇지 못한 우리 속을 얼마나 학대하며 못살게 구는가? 너는 왜 이처럼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못났느냐 하면서 얼마나 구박하며 괴롭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노력을 해서 성공한다고 한들 내 속에 학대받던 나는 지치고 병들게 되어 결국 그 성공을 즐기지 못하고 만다.

우리는 우리 속의 부끄러운 나를 숨기고, 학대하고 억압하며 열심히 그렇지 않도록 살아본들, 학대받던 속이 병들고 허물러짐으로써 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그 길은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 결과 함께 속도 돌보아야 한다. 이 부끄러운 속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떠한 모습에도 자신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담치고 학대하기보다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며, 용납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해와 용납과 위로를 원한다. 그리고 나를 이해 못하고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원망하고 분노하는가?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운 나는 나에게 어떻게 하고 사는가? 어쩌면 내가 나에게 가장 차갑지 않은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에 내가 나에게 가장 엄격하다. 물론 때로 연민의 정으로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이는 잠깐이요 주로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내가 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나만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 줄 수 있어야 한다. 기다려주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 나는 위로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하듯 우리는 가까운 식구들을 용납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발전하느라 그늘지고 소외된 나와 가족의 마음을 이제는 돌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세워진 행복만이 건실하고 참다운 행복이 될 수 있다. 뱀을 돌보는 만큼 우리는 안을 돌보아야 한다. 속을 돌보는 가정, 속을 돌보는 아내와 어머니, 조금 느리고 기다려야 하더라도 조금씩 걸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속과 길이 같이 견고해지고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자아실현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저항을 느낄 때이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도 고칠 점이 많지만 한국보다는 이 면에서

앞서가며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최선옥/ 정신과 전문의,
64년 의학과 졸업

미국에서 사는 햇수가 한국에서 산 것보다 더 길어지기 시작한 것도 몇 년이 넘었다.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아주 가깝게 접촉하고 미국친구도 사귀므로써 배우고 깨달은 것은 한 곳에서만 살았더라면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이 나를 만든 것은 틀림없다.

나의 연세대학교 재학시절은(1958~1964) 남녀공학이 실시된 초기였다.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문화적 영향 아래 여자고등학교를 마치고 남학생들과 한 반에 앉아 공부한다는 것이 현재 학제 속의 학생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항상 여자들끼리 물려다니면서 이 공대 뒷동산 숲속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도시에서는 참 귀한 무성한 숲을 즐긴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남자들을 친구로 사귀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한 교실에서 공존했을 뿐 친구라고 할 수도 없었다. 단지 남녀공학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었고 공부도 뒤떨어지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는데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무언가 성취해야겠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았다. 형식적으로 여학생에게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오랜 남존여비 사상으로 물든 사회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서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어릴 때 고생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다는 말이 진리라는 것이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차별도 받는 외국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이 튼튼해서 굶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했다. 의과대학을 나서느라고 공부 이외에는 많은 활동도 못하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시절을 회고하면 여러 가지 따뜻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했다는 느낌이다. 연세대학의 교육바탕이 좋아서 훌륭한 준비가 됐음을 졸업생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별한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각도로,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 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까 한다. 특별히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각도로 보려

고 한다.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수인 Csikszentmihayi
박사가 최근에 Flow(흐름)

이란 책을 썼다. 그는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했다. 사랑에 빠졌든가, 취미생활을 잘한다든가, 맛있는 음식과 돈이 있다든가 하는 것 모두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낀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자아실현을 한다는 말이고 자신에 대한 도전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 못된 세계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자아 실현이 남성들에 비해 더 어려운 일이다. 훨씬 나은 편이지만 미국도 평등을 완전히 성취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영원히 피해자(Victim) 노릇만 하고 자기의 불행함을 자랑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쥐고 발전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이러한 발전을 저지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2가지 이유를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기로 한다. 이 요소들은 겉보기와는 달라서 오해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이것이 무의식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1. 내적인 저항

자신감이 흔들린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소위 여성담이라는 것은 피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결혼하고, 엄마가 안되면 가치가 없다.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죄다. 등등 우리 심리안에 심어진 저항을 알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2. 외적인 저항

가까운 친척, 친구, 애들

까지 그리고 전 사회구조가

여성의 발전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금지한다. 여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화(Sexual Sterotyping)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 선에서 벗어나면 온갖 비난과 비평을 한다. 여성을 아이처럼 사랑스럽게(?) 다루는 것도 실제로는 동등한 위치를 부인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여성의 모범이 될 만한(Role Model) 성공한 여성들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흠을 보아서 따르지 못하게 한다.

우리 자랄 때 항상 들은 것은 누구누구는 박사고 성공을 했지만 사생활이 불행하다는 그런 말이었다. 실제로 불행했을 것 같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여자는 불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자랐다. 격려가 있어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니 더 힘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이런 저항을 느낄 때이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도 고칠 점이 많지만 한국보다는 이 면에서 앞서가며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1920년대 미국경제공황 때 대학졸업생이 직장이 없어서 공장에서 일을 시켰더니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일꾼보다 훨씬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다. 다시말하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이용하여 일을 하거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말로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 여행 중에 만난 한 여자교수가 한 말이 생각난다.

"인생은 큰 잔치 안에 어리석은 이들은 쪼쪼 굶고 있더라. (Life is a big banquet and most of the fools are starving.)" 이렇게 풍요로운 가능성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방해하니까 주저앉은 것인가?

최고보다는 최선을

과학화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때지만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사랑'과
'남을 섬기는 겸손' 그리고 '봉사정신'인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연세에서 배워 실천해 왔다.



홍인숙/
New York 한인 YWCA 사무국장,
67년 신학과 졸업

이런 시절을 연세동산에서 지냈고 대학 4년
그리고 우리 5남매가 모두 연세를 나왔기에
연세는 나의 고향이 되어 버렸다. 이북이 고
향인 나에게는 돌아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
는 고향이기에 연세동산이 나의 고향이 되었다.

연세동산을 떠난 지 금년으로 29년. 이렇게 시간이
빨리 많이 지난 지도 모르겠어 세월인 것 같다.
졸업 한 달을 남기고 서울YWCA에 들어가서 미국에
온 지금까지 YWCA에 관계하고 있으니 오로지 한길
을 향해 달려온 외국수 생활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동문들, 그리고 뉴욕의 동문회에는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1978년 한 명의 이민 가정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학교로 시작한 뉴욕 한인YWCA가 어엿
한 자체 건물을 가지고 한인사회, 지역사회 나가서
미국사회에서까지 인정받는 기관이 되기까지는 내
나름대로 외국수의 힘든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계를 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정신적
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면 나도 모르게 그 찬란한
눈부신 햇빛이 활짝 비추던 연세동산의 생활들이 필
름같이 확 스쳐 지나가곤 한다.

연세 다닐 때 나는 녹양회 일을 잠깐하고 미안한 이
야기지만 SCA(기독교학생회)활동에 아주 열심히 참가
하였다. 남녀공학이기에 YM/YWCA학생운동을 연세
에서는 SCA라고 하였다. 한경관 꼭대기 지붕 밑방에
서 우리는 사회문제 농촌문제 신앙문제를 토론하였
고 여름과 겨울이면 강원도 경상도를 찾아다니며 계
몽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본관 2층 총장실
옆의 작은 채플에서 학생아침예배를 시작하였다. 이
러한 활동들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나를 적극적
으로 바꾸어 오늘의 YWCA활동을 하게 된 동인이 되
었다. 또한 잊지 못할 남녀 친구들을 남기어 준 곳이
바로 SCA이다. 현재 정외과의 이신행교수와 부인 이
경자교수, 간호대의 김의숙교수, 잠보, 핏대, 돼지,
황새, 모양, 찌찌 그리고 박사인 나 모두가 그리운 연
세의 얼굴들이다. 군사정권 이후 약해진 SCA활동소

식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 중의 하나였다.

1995년 동해안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그 옛날 여
름봉사활동을 나갔던 남에 이리를 찾았다. 동네어귀,
골목길, 발매던 언덕밭, 한없이 펼쳐진 동해바다 모두
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얼굴들은 어디에 있
는지.....

SCA활동은 내가 YWCA간사로서 처음 시작한 서울
YWCA의 지역 활동부 - 공장여직공, 여군, 교도소,
버스여차장, 윤락여성 교육 등 - 사회교육 프로그램
을 감당하게 해주었고, 뉴욕에 와서 DREW에서 공부
한 후 이민사회를 위한 YWCA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
력이 되었다. 1978년 YWCA를 시작할 때 우리는 두
손과 성경말씀 마태복음 7장7절-9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명의 교포 어린이부터 시작하였지
만 지금은 3살의 유치원 어린이부터 80세가 넘으신
노인까지 대식구가 된 것도 나는 연세의 배움과 노천
강당 대강당에서의 채플시간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노천강당에서 있었던 신앙강화주간 행
사에서 강사님이신 한경직목사님께서 그 당시 최희준
씨의 히트곡 '하숙생'을 아시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
셨는지 지금도 궁금하지만 첫 시간 첫 말씀이 "인생
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로 시작
되어 학생들이 웃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다. 연
세동산에 있을 때 내가 미국 뉴욕에서 YWCA활동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곳까지 보
내주시어 계속 한길을 가게 해 주셨고 또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연세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곤 한다.

1992년 졸업 25년이 되어 재상봉에 참석하였다.
교수님께 친구들께 학교에 소식도 전하지 않고 살아
온 25년이었지만 교수님을 뵈고 싶고 연세동산을 보
고 싶어 갔는데 교수님들의 흰머리 또 세상을 떠나신
자동식교수님, 서남동교수님, 김정준교수님, 여학생
에게 늘 엄하셨지만 자상하셨던 최이순교수님,

YWCA회장님이셨던 백낙준박사님의 사모님 최이권
회장님... 그 반자리가 너무나 크고 허전하여 세울의
무상함을 새삼 느꼈다. 그러면서 미국에 오시면 늘
격려하여 주시는 심치선교수님, 한양순교수님 그분
들의 자상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제자로서
바쁘다는 핑계로 소식 하나 전하지 못하고, 찾아 뵈
지도 못하는데 늘 제자를 걱정하여 주시는 교수님들
의 사랑과 연세의 품이 나의 모자람을 늘 감싸주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이 한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항상 아이같이 느끼며
사는 내가 50이 넘는 중년이 된 것을 돌아보며 지금
연세동산에서 열심히 젊음을 불사르는 후배들을 생
각해 본다. 모두가 똑똑하고, 성숙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
학생들, 과학화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때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사랑'과 '남을 섬기는 겸손' 그리
고 '봉사정신'인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연세에서 배
워 살아오는 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살아왔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최고 제일만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외국에 살다보니 비교가 되어 더 두
려이 느끼게 된다. 최고나 제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인정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연세에서 배운 것 중의 하나가 최고보다는 최
선을 다하는 것. '나' 보다는 '우리' 그리고 '사랑' 이
러한 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씀에 있음을 깨닫곤 한다.

연세의 품은 넓고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어머
니의 품과 같다. 연세의 동산은 여전히 아름다운 동
산이다. 지나고 보면 4년은 얼마나 짧은지 모른다. 4
년 후면 사회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이 4년을 신
나게 지내기를 부탁하고 싶다. 우리 나라를 더 배우
고 세계를 배우면서 큰 꿈을 펴기 바란다. 나같이 부
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길러 준 연세는 후배 여러분에
게 끝없는 가능성을 심어주고 열매맺기까지 함께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Better Half가 결여된 사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여대생의 졸업 후 진로를 분석하여 보면

졸업자의 약 7%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28%가 전공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어 35%는 졸업 후 전공과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65%는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거나 사장되고 있다.



조우철/ 정무장관실 제2조장관, 66년 법학 졸

4 에게 있어서 '연세'라는 두 글자는 젊음과 전리와 낭만의 표상이다. 세계는 항상 내 품 안에 있었고, 미래는 나의 것이었던 대학 시절, 수많은 추억이 쌓여 있다. 그 추억 중에 채플시간이 빠질 수 없다. 어느 날 딱딱한 설교만 하 시던 교목께서 재미있는 회람신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인간은 원래 남녀가 같이 있는 한 몸이었는데 겁없이 신에게 도전하므로 패배하게 여긴 신이 이를 둘로 나누어 남녀를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너무 혼란스러워 다시 결합시키기 위하여凹凸의 장치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갈라진 남자와 여자는 반쪽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남녀가 결합해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갈라진 쪽인 better half와 다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룬다. 가정은 이렇게 남녀의 결합으로 형성되고 부부가 같이 삶을 창조해 나간다. 이러한 가정이 모인 사회도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동반자로서 같이 참여하여야 균형있는 발전과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남녀가 갈라진 반쪽으로 존재할 뿐 여성은 사회의 better half로서의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1995)에 의하면 116개 조사 대상국 중 우리나라의 1인당 GNP수준은 32위이고, 인간개발지수는 31위, 남녀 평등지수는 38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여성권한 척도는 90위로 매우 낮다. 이러한 지표가 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인간개발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때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는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 주

고 있다. 국내비교에 있어 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는 타분야의 발전에 비하여 전전이 더디다. 지난 1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GNP는 2천\$대에서 1만\$대로 5배 가까이 급성장하였고, 전체국민중 대졸 여성의 구성비도 3.6%에서 8.3%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여성의 교육수준도 급속히 향상되고 있으나 대졸자 중 여성의 취업비율은 14%에서 25%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정치분야나 공직에서의 여성참여율은 극히 낮으며 15년 전과 비교하여 답보상태이다. 경제활동 부문의 참여는 외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내용면에서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40%가 여성이나 비임금 근로자가 절반을 넘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취업자가 62% 이상이고, 대부분이 1~2년 근속자이고 10년 이상은 6% 정도이며, 관리직은 2.6%에 불과하여 성의 계층화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여대생의 졸업 후 진로를 분석하여 보면 졸업자의 약 7%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28%가 전공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어 35%는 졸업 후 전공과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65%는 전공



을 살리지 못하고 있거나 사장되고 있다. 그 중 18%는 비전공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나 나머지 47%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비전공분야에 취업한 18%는 노동 구조적 실업으로 생산성이 낮은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후진국형 위장실업과 비유되며, 취업을 하지 않은 47%는 3D현상에서 오는 선진국형 마찰적 실업과 비

유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대생 채용에 대한 편견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남녀 대졸자 비율은 60대 40인데 50대 대기업에서의 여대생 채용비율은 8.6%에 불과하다. 여대생의 취업부진은 여성 자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성인력이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여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전체의 발전이 저해되어 남녀간의 평등이 이룩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각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에 필요한 여성 지도자가 양성되지 않아 머잖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최근의 국내외적 여건변화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점차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로 인 관계념이 확산되고 평등이념이 보편화됨으로써 여성의 권익과 남녀평등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잠재된 여성인력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도래이다.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될 정보화 사회는 육체에 의한 노동보다는 두뇌에 의한 노동이 필요하므로 노동의 성별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환점에서 여성 엘리트가 하여야 할 역할은 첫째로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여성 스스로가 프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우선 기업이 채용, 배치, 승진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적이고 성분리적인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다. 그리고 여성들 자신의 문제로는 결혼·출산 등으로 장기근무자가 적으며,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대졸 여성사원은 채용하여 2-3년 훈련하여 쓸만하면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하기 때문에 여성인력의 채용을 처음부터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채용 후에 모성보호비용 등으로 고용부담이 커지는 것도 기피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차별적인 고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고용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행정지도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에서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도입하여 중간관리층에 고급여성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일반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만연되어 있는 성차별 의식과 관행이 사라져야 하며, 아울러 여성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력이 병행되는 데 있다. 여성 엘리트는 차별적인 관행과 구조 때문에 여성의 진출이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피동적으로 안주하거나 혜택을 요구하지 말고, 직업인으로서, 지도자로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도전을 하여야 한다. 끈질긴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여성 엘리트의 중요한 역할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어 탈매스화(de-massification)되고 분권화가 촉진되어 창조성과 개성이 발휘되는 사회이며, 여성의 심성과 감각을 필요로 하는 3F(female, fiction, feeling)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 엘리트는 지혜를 생산하는 여성이어야 한다. 또 지식의 성격이 경험주의를 초월하여 이론적이고 추상적이 될 21세기는 사회의 의식성향이 미래지향성을 나타내게 되므로 여성의 의식도 발전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세계가 지구촌

으로 좁아지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관심영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여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자동화가 확산되어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고 그에 따라 인간관계를 포함한 많은 사회적 경험은 간접적이고 대리적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간을 소외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하므로 인간성을 유지하는 인간적인 여성이어야 한다. 이는 결코 수퍼우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자기 암시 속에서 발전을 한다.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결코 초인간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로 진입하고 있는 전환점에서 연세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역할과 사명은 우리 사회에 결여된 여성의 better half 몫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를 대결구도로 보려는 편향된 시각과 소극적인 단순한 남녀평등을 넘어서 공동책임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적극적인 평등이념을 가져야 한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학문연구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연세는 지난 50년 동안 남녀공학교육을 통하여 각 분야에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이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오늘날의 연세인은 이제 한 차원 높은 세대로 도약할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History의 보조역이 아닌 History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양과 더불어 개성을

말하자면 개성을 갖춘 중간세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공백을 느끼지 않는다.
장미가 아름답다고 해서 장미 이외에
다른 꽃들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성들이 모두 하나같은 삶과 모습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김항석/ 연세대 명예교수

4가 50년대 초반 연세대학교에 부임한 때는
말없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연세대학
출신 교수이며, 미국에서 학문을 했어야 했
고, 크리스천이면 더욱 좋았다. 불행하게도
나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교육에는
자신이 적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임한 다음 해에, 여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입혀야 하며 어떤 색깔과 스타일의 교복이 좋겠느냐는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 때 나는 그런 주장은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다.
여성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개성을 찾아 키우
며 자아의식이 뚜렷한 교육을 받아야 할텐데, 일제
시대에는 생각할 수 있었던 교복을 여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때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이었다. 그래서 학
생처장에게 항의도 해 보고 교수회의 때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워 보기도 했다. 그 결과만은 아니겠으
나 어쨌든 여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일은 취소
되었다.

만일 내 주장이 옳았다면 여학생들은 나에게 약간
의 고마운 마음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개성교육이 아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닐까. 대단치 않은 질문을 우리 연세여
학우들에게 던져보자. '여기 장미와 국화꽃이 있는
데 당신은 어느 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하
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해 볼 것이다. 어느 꽃이
더 아름다울까 하고.

그러나 그 질문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모르
고 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
로 아름다우며, 코스모스나 봉선화는 제각기 나름
대로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당신은 장미와 국화 중에 어느 꽃을 더 좋



아하느냐, 혹은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쩌서 그 질문이 가능한 듯이 착각하는가.
개성 및 개성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사회의 경우 여성들의 개성을 키워주며 자아
의식을 높여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획일적이며 삶의 특수
화보다는 일반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온 여성들도 개성의미를 찾지 못하여 자아의식
이 뚜렷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다행히 요즘 신세대들이 오히려 자기감정에 충실
하며 개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인들의 획일성과 신세대들의 개성의 대조가 뚜렷해
지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구세대들이 신세대들에
게 축소되기도 되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20
대 30대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세대에 속하는 정치인들이 신세대의 흥내를 내는
것을 보면 약간 꼴불견스럽기도 하다. 조순씨가 서
울 시장에 당선된 요인 중의 하나가 창이 큰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풀고 색깔 뚜렷한 셔츠를 입었기 때
문이라는 얘기가 TV에 보도된 다음날부터 차기 대
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흥내를 내는 것을 보면 더욱
속스러워 보인다.

나는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좀더
자기감정에 솔직하며 개성이 뚜렷한 모습의 삶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외형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삶 자체에 개성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이
다. 예술인은 예술인답게, 주부는 주부다운 덕스러
움을,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자답게, 공무원은 공무
원다운 삶을 나타내 주었으면 한다. 여성들에게 국
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여성
다운 교양을 갖추어야 하고, 그 모양의 일반성 위에



개성의 미와 자질을 갖추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여성을 존경하며, 후배들은 선배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선진국가에 가면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거리감이 별로 없다. 구세대 사람들도 옷차림이나 생활 속에 뚜렷한 개성이 있고, 신세대들도 자신들의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젊은 이들이 정장을 하고 대화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며, 노인네들이 젊은이들의 옷차림을 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 각자의 개성에 맞는 자세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개성을 갖춘 중간세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공백을 느끼지 않는다. 장미가 아름답다고 해서 장미 이외에 다른 꽃들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성들이 모두 하

나같은 삶과 모습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 선조들은 오늘의 표현을 본다면 여성들이 예의바르고 품위 있으며 지성인다운 교양을 갖추면 그것으로 최고인듯이 생각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품위 있고 교양을 갖춘 여성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교양과 품위를 갖추지 못한 신세대들이 개성 시대를 맞게 되니까 옷이 과장해지며, 남다른 화장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외형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구세대와의 거리감을 크게 하고 있다. 고루한 구세대의 위치에서 본다면 흉칙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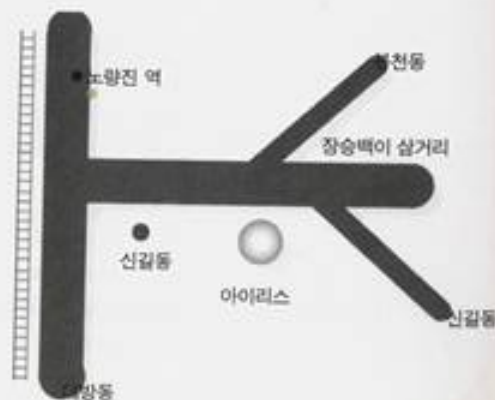
그런데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추고서도 개성이 풍기는 아름다움과 지적인 풍요로움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름다움과 행복을 더해갈 수 있지 않을까.

누가 그런 모습과 삶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했고 이미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세 여성들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사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성미와 지도력을 갖춘 여대생 또는 여성은 연세대생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조오지대학이 같은 인정을 받고 있다. 가톨릭적인 종교적 분위기와 교육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연세대학의 기독교 교육도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갖춘 교육의 특수성이 되어야 하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양과 개성을 갖추고도 신앙적 고매함을 갖춘 연세의 여학우들, 그 모범을 보여 주는 여성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엄마와 아이를 위한 쇼핑공간 아이리스 백화점



대표전화: 820-2114, 2000

1. 여성연구소 개소

1995년 6월 3일 (토)에 모교에서는 여성연구소(Research Center for Women's Concerns)를 개소하였다.

2. 추계학술심포지움 개최

10월 6일(금)에는 추계 학술 심포지움을 장기원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심포지움의 주제는 "여성과 직업"으로 5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1) 2000년대 여성직업의 전망과 대책 (발표자: 조혜정)
- (2) 기업 내에서의 대졸여성 (발표자: 손승영)
- (3) 집안과 일터에서 기대되는 여성의 자질 (발표자: 문은희)
- (4) 학교에서의 여성진로교육 현황과 과제 (발표자: 주은희)
- (5) 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자: 박숙자)

3. 월례 발표회 개최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영역의 국내외 학자들을 초빙하여 최근의 연구 동향과 운동의 방향 등을 접할 수 있는 모임으로 월례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최되었던 모임은 다음과 같다.

● 제1회 월례발표회

- 일 시: 1995. 11. 8 15:00-17:00 장소: 연세대학교 논지당
- 발표자: 윤영구 박사(Dr. Alice Chai), 전 University of Hawaii, 여성학과 교수
- 발표논문: Violence against Asian and Asian-American Women
: History and Contemporary reality

● 제2회 월례발표회

- 일 시: 1996. 3. 20 17:00-19:00 장소: 연세대학교 인문관 101호
- 발표자: 윤가현 교수(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발표논문: 성의 심리학

● 제3회 월례발표회

- 일 시: 1996. 4. 24 16:00-18:00 장소: 연세대학교 논지당
- 발표자: Mary Brinton 교수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
- 발표논문: Married Women in the Economy: A Comparison of Taiwan and South Korea
(동아시아에서의 기혼 여성 노동 참여 비교)

● 유승미 여자동창회장 재선

여자동창회는 3월 14일 오전 11시 알렌관 1층 회의실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 14대 회장에 현 회장인 유승미동문(정외.63졸)을 재선출했다.

신동식동문(정외.62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임원개선에서 회장에 유승미동문, 부회장에 이순희(생물.63졸)동문, 감사에 장명(경제 71졸), 이진안(의생활 71졸)동문을 선출했다.

● 북미지역 여동창회 조직 및 여성연구소 후원금 모금활동

이영 여성연구소장은 96년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애틀랜타, 내슈빌, 워싱턴 D.C., 뉴욕 등과 U.B재단을 방문하여 북미지역 여동창회(북양회)를 조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이번에 조직된 북양회의 뉴욕 여동창회에는 이군자 동문(간호.67졸)이, 워싱턴 여동창회장에는 장현숙(도서관.63졸)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번 모임은 동문들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고, 모교 여성연구소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모금활동도 이루어졌다.

LA여동창회(회장 김영숙·의학·70졸)에서 2천5백달러, 뉴욕지역에서 1만4천달러, 애틀랜타 지역에서 2천달러의 후원금이 모아졌고, 내슈빌에서 2천달러의 후원금을 약정하였다.

● 연세공학연구센터 착공

연세공학연구센터 착공식이 4월 24일 오후 공대열 신축현장에서 있었다.

그동안 10개월동안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주)대우에 의해 건설될 예정이다. 총 550여억원의 공사비가 예상되는 공학연구센터는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지하 5층 지상 4층의 연 건평 20,216평으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공학기술연구센터로 교육의 복합단지를 이루게 된다.

● 노천극장 개축

총동문회는 「노천극장 확장사업」기공식을 5월 11일 오후 6시 노천극장에서 가졌다.

노천극장은 1만2천석에서 1만5천석사이의 석조계단으로 모든 야외 채플과 입학식, 졸업식, 음악행사, 연극 등이 펼쳐지는 연세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동문들로부터 석조계단의 돌 하나씩 기증받아 공사비의 일부로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돌계단에는 기증자의 이름과 함께 졸업년도와 학과명이 새겨질 예정이다.



1. 모집인원: 약 50명

2. 지원자격

- 여성최고 경영인 및 고위직 여성경영인
- 여성공무원 및 전문직여성
- 예비여성경영인 및 전문경영인 배우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수시접수 (접수마감: 1996년 7월 19일)
- 장 소: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사무실
- 제출서류: 입학원서 (소정양식)
증명사진 2매
재직증명서
소속회사의 동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전 형 료: 50,000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개별통지
- 면 접 -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5. 주요학사일정

- 강의기간: 1996년 9월 4일(수) - 12월 18일(수)
- 입학식 및 총장특강
- 면 접: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 때: 1996년 8월 31일(토)
- 곳: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 합숙세미나: 1996년 8월 31일(토) - 9월 1일(일)
- 국내외 산업시찰
- 수료식: 1996년 12월 18일(수)

6. 강의시간 및 장소

-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8시 (회식: 오후 5시 30분 - 6시 30분)
- 강의장소: 연세대학교 알렌관 제1회의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사무실

TEL. 361-2137, 3092/3

FAX. 312-5229

1. 학교발전 기금조성 목적

- 가. 교육시설의 확충
- 나. 연구기자재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충
- 다. 학교전산망 확충
- 라. 도서관입
- 마. 연구활동 진작 및 강화
- 바. 복지시설 확충
- 사. 기타 면학분위기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2. 목표액: 약 500억원

3. 기금출연대상

동문, 학부모, 교직원, 대학(원)생, 기업체, 각종 재단, 일반인(사회단체), 정부, 기타

4. 기탁(납부)방법

- 1) 일시 및 분할기탁
- 2) 적립식 납부

1996년 5월

연세대학교 총장 송 자

기탁금: _____ 원

_____ 원 약정 (기탁 예정 199 년 월 일)

한일은행: 126-353709-01-001 예금주: 여동문 발전기금

* 온라인 입금의 경우 성명과 입금액을 발전·동문사무국 (전화 361-2244, 2248)으로 알려주십시오.

성명:

학과, 입학년도: _____ 학과, _____ 년

주소, 직장:

전화번호:

영예회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탁순희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총장공관 송자 총장 부인	361-2010
이선영	종로구 사직동 262-3 박우영 총동문회장 부인	738-6434

2문(역대역학상임장)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심치선	서초구 반포동 한신 시래APT 2-502 계원여고 교장	532-2866
한양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APT 311-1004	409-0407
윤복자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APT 6-605 연세대 주생화학과 교수	412-3425 361-3131
이양자	양천구 목3동 동신APT 10-104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643-7659 361-3138
이은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53-406 연세대 아동학과 교수	515-5995 361-3148
손경희	송파구 신천동 진주APT 10-305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418-4182 361-3117
윤선	양천구 목1동 신시가지APT 406-307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648-4713 361-2135

2문(역대회장)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소	전화번호
문은희	'83 교육	서대문구 신촌동 66	392-4819
김형순	'58 영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주APT B-113	783-4926
신동식	'82 정치외교	강남구 반포동 구반포APT 107-103 서울신문사 심의위원	533-6675
이정현	'51 영문	마포구 서교동 468-20	337-7679
석현중	'82 도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일광APT 313-1204 연세대 중앙도서관 수서계 주임	0342703-5437 361-3309
김성복	'58 사학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 유원 12차APT 202-1103	675-5468

주소록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소	전화번호
신갑순	'59 음악	종로구 평창동 473-2 『살과꿈』 발행인	395-0423
임호빈	'56 신학	서대문구 연희동 77-7 가봉하이츠 B-301	325-2929
이금영	'80 수학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PT 7-505 미8군 재무처 전산실장	798-5979
이상희	'58 교육	은평구 불광3동 480-171	387-1334

임원

직위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소	전화번호
회장	유승미	'83 정의	성북구 성북동 15-69	762-1722
부회장	이순희	'83 생물	서대문구 연희동 112-12	337-9650
부회장	주순형	'85 물리	서대문구 연희동 123-4	324-0744
총무	정행자	'84 도서관	서대문구 홍제동 331 홍제 현대APT 101-201	395-4990
총무	김영란	'77 정의	종로구 혜화동 15-139	747-1268
서기	박정자	'84 정의	고양시 고양동 화정지구 은빛마을 LG APT 544-402	0344965-9181
서기	고계자	'84 행정	은평구 신사동 현대APT 102-902	306-9401
회계	양은선	'77 사회	종로구 안국동 8-1	732-7655
회계	최해정	'75 영문	은평구 불광동 미성APT 10동 1203호	383-5689
섭외	박길주	'86 성악	성동구 옥수동 현대APT 101-902	297-9991
섭외	박혜원	'73 식영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APT 26동 103호	543-9450
출판	왕세경	'77 정의	과천시 별양동 주공APT 501-202	504-7829
출판	현지혜	'92 국제학	서초구 방배동 871-4	599-4976
문화	정해복	'75 영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APT 33-306	566-6297
문화	김수영	'75 영문	과천시 별양동 주공APT 612-201	503-3967
감사	장영	'71 경제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APT 101-903	573-5171
감사	이진안	'71 의생	종로구 구기동 86-1	391-6644

이시명단

성명	출입년도 및 학과	주소	전화번호
한삼록	'58 영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APT 125-603	0343712-0896
한혜경	'63 사학	서초구 서초동 1486-17 청광아트빌라 202	568-8125
김지영	'70 영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APT 33-103 한국동시통역 연구소	557-0770 557-7703
박충연	'76 영문	종로구 평창동 455-13 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58-7253
최춘애	'77 사회	서초구 서초동 우성APT 12-402 KBS 보도국 경제부장	3474-1522 781-4172
김정자	'64 사학	강남구 대치동 957-8	
이규희	'63 국문	강남구 청담동 63 효성빌라 33-103 한국어학당	542-6768 361-3476
황선례	'67 도서	종로구 평창동 482-3	
이영희	'72 영문	성북구 정릉4동 266-118	914-6122
최연수	'78 불문	서대문구 홍제동 104-6 인왕국APT B-603 상지대학	722-3057 03711730-0154
지순자	'61 영문	서초구 반포4동 85-18 효성빌라 21동 301호	594-7103
추애주	'69 영문	용산구 이태원동 190-7 현대빌라 402호 연세대 강사	792-2390
김용옥	'64 영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86-1301	325-2929
최우숙	'60 영문	서대문구 홍은동 265-428	302-0130
신상옥	'77 불문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현대APT 306-1405	032521-3311
김채련	'58 경제	서초구 잠원동 한신10차APT 331-410	535-6223
이상란	'61 경제	종로구 신영동 150-1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교수	391-8014 710-9313
김은영	'79 응용통계	종로구 동숭동 192-2 성균관대학교 산업연구소	762-3252 760-1285
홍선주	'82 경영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77-705 시키고은행 영업부장	543-1688 316-9720
김혜경	'64 경영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APT 33-703 보석상 미라보(인터콘티넨탈 호텔내)	407-1617 551-0882

주소록

성명	출입년도 및 학과	주소	전화번호
안명숙	'64 상과	중랑구 묵동 163-11	973-7095
맹국강	'64 수학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APT 5-911	567-8241
오정신	'60 수학	성북구 인암동5가 102-67	925-0220
유의경	'64 화학	서초구 양재동 120-8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577-4127
김미영	'66 수학	마포구 서교동 367-5 창이꽃꽃이회 회장	337-0945
김명원	'68 생물	서초구 서초3동 1546-6 현대하이츠빌라 가-301 연세대 문리대 생물학과 교수	585-8806
이항순	'79 천문대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송동 132 간영APT 106-1304	0342704-5127
정학자	'63 생물	강남구 삼성동 31-20	545-1602
문순옥	'76 식품공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APT 11-805 수원대학교 유전공학과	761-3901 033132-2101
손태욱	'78 건축공	강남구 대치동 미도맨션APT 101-1312 강남구 청담동 80-2 두우건축	564-8418 549-2701-3
안혜준	'78 식품공	서초구 서초동 삼호APT 11-603 영등포구 양평동4가 23 롯데그룹 중앙연구소	567-2547 670-6526
조경화	'83 오염공	마포구 공덕동 111-25 대우통신(주) 반도체사업과	712-0914 864-8200
김은지	'84 식품공	대전시 동구 용전동 166-17 한국식품개발연구원(경기도 성남시 P.O. Box 63)	04272-4883 034240-5148
서정도	'58 신학	도봉구 창동 삼성APT 108-1804	903-1455
최만자	'60 신학	서초구 서초동 1565-21	583-2721
최민수	'65 신학	성동구 용봉동 대림APT 6-606 천성교회	296-1005 486-3526
윤정애	'71 신학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APT 114-408	599-3142
정복자	'76 신학	강동구 둔촌동 주공APT 436-706	486-3526
이의숙	'63 정치외교	강서구 발산1동 723-8	603-8634
전혜경	'63 정치외교	서초구 방배동 12-32	599-3437

주 소 록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최 신 자	'84 정치외교	성북구 성북2동 309-4	765-5857
김 혜 원	'77 신문방송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APT 115-705 코리아 헤럴드 문화부장	445-2654 727-0245
강 경 화	'77 정치외교	서대문구 연희3동 344-23 세종대학교 영문과	335-7850
김 영 숙	'84 정치외교	과천시 관문동 71-1	502-5295
진 혜 숙	'80 정치외교	종로구 혜화동 15-11 혜화가든빌라 101호	745-2145
김 희 영	'80 법과	강동구 상일동 174 우성빌라 7-301	427-1555
이 화 숙	'89 법과	강남구 대치동 선경APT3-608 경원대	567-4664 0342750-5240
주 동 금	'76 법과	서초구 서초4동 진흥APT 8-1105 성신여대	567-1989
김 정 신	'88 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579-1984
지 영 림	'90 법과	강남구 논현동 151-8 502호 정부 제2종합청사 법무부 자문위원실 연구위원	549-1406 503-7038
최 영 자	'59 기악	은평구 신사동 21-6	303-8706
박 길 주	'86 성악	성동구 옥수동 현대APT 101-902 서울예고	297-9991
김 익 자	'87 성악	성남시 분당구 탑마을 530 진덕APT 507-1901	0342707-1515
박 태 경	'70 교육	양천구 목2동 왕자APT 7-204	651-1831
양 경 자	'72 기악	서대문구 연희3동 42-20 삼성문화센터	335-6074 525-6278
이 영 자	'88 식생활	강남구 청담동 진흥빌라 3동 105호 리바트 영동대리점	517-0889 544-1656
유 영 희	'70 주생활	마포구 성산동 200-282 웅진출판주식회사	373-2868 777-7133
김 광 경	'71 의생활	서초구 방배동 궁전APT 1-103 대전실업전문대	582-9977
김 정 식	'73 의생활	서초구 방배동 12-12 우성세프라인 탑스리빙	592-3174 3473-2510
신 난 숙	'73 의생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B2 신난숙한복점	512-0110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주 신 아	'77 주생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9-2BL 꿈마을 건영APT 우면리빙 편집부장	0343501-1802 780-0325-7
임 정 심	'59 교육	송파구 가락동 174-20 401호 서울 YMCA 이사	408-9548
신 명 희	'72 교육	서초구 반포동 100-6 삼익반포빌라 301호 연세대 교육학과	534-5055 361-3178
송 은 희	'83 체육	송파구 잠실1단지 주공APT 56-103	421-7243
정 진 희	'84 체육	강동구 명일동 심원APT 102-703	427-9187
정 을 순	'80 의학	영등포구 여의도동 정미APT A-505 고려병원 내과	787-2975 739-3211
김 용 진	'86 의학	서초구 염곡동 160-12 김용진내과	575-2453 422-9030
박 계 숙	'87 의학	서초구 방배동 삼호APT 라-804 연세대 보건진료소	533-1233 361-3345
최 규 옥	'70 의학	서초구 방배3동 신동아APT 7-1025 연세대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	583-4568 361-5834
이 동 화	'73 의학	용산구 한남동 657-58 순천향대학 부속병원 임상병리학교실	566-4315 797-9881
이 성 희	'77 치의학	도봉구 창2동 601-8 이덕은치과	900-5817 993-4463
권 택 건	'78 치의학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APT 1-1402 동작구 상동3동 324-1 권택건치과	846-2198 821-0719
최 돈 옥	'78 치의학	강남구 대치동 선경APT 2-602 강남구 대치동 1019-15 어주빌딩 206호 동남치과	563-3388 566-2512
백 일 수	'80 치의학	군포시 산본동 삼익소월APT 375-200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5-1 평촌이랜드몰리자 4층 아름다움치과	034392-1410 034385-0123
김 영 원	'82 치의학	서초구 서초4동 1312 삼익APT 10-809 서초구 반포동 746-10 한영치과의원	566-5052 548-3482
홍 정 혜	'51 간호	송파구 오금동 오금 대림APT 2-1004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403-8411 735-2966
김 소 인	'61 간호	서초구 방배동 삼호APT 14-408 고려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537-2245 920-6230
김 영 자	'63 간호	동작구 상도1동 764-3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826-1314 361-6760
김 정 자	'68 간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APT 6-810 영등세브란스 간호부	553-5244 569-0110
김 윤 희	'68 간호	성동구 중곡4동 147-95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453-2155 961-0312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소	전화번호
박미영	간호학	간호전문대 간호학과	042-531-5784
김재은		감리교신학대	364-5941
고정미	80/수학과	강릉대 수학과	0391-42-7001
김은경	84/식생활	강릉대 식품과학	0391-640-2306/428-5520
신영숙	70/주생활	간국대(충북) 가정관리학	0441-40-3583/470-0154
권오정	86/주생활	간국대 가정관리	450-3780/598-3968
김양미	84/화학	간국대 화학과	450-3421
박희옥	80/식생활	경기간호보건전문대 식품영양	032-428-3935
채경숙	81/아동학	경남대 유아교육	0551-49-2319
정복례	91/간호학	경북대 간호학과	053-425-0728
손성숙	74	경북대 상악학과	053-955-5001
안환란	78/간호학	경상대 간호학과	0591-52-0041
엄은희	77/기악과	경상대 음악교육과	0591-751-5696
서심미	70/성악과	경상대 음악대	051-622-5331
홍혜선	78/중고음악	경성전문대 생활음악과	
신순자	63/정의	경원대 가정학과	252-1153
천화숙	66/사학	경원대 국사학	0342-750-5110/0342-713-3133
이화숙	69/법학	경원대 법학과	0342-750-5240
이영미	80/식생활	경원대 식품영양학과	0342-750-5971
박충연	76/영문	경원대 영문학과	0342-752-3220
김춘경	82/아동학	경인여대 유아교육	032-547-8825/031-551-1793
김은희	68/간호학	경희대 간호학과	961-0312
최신희	91/간호학	계명대 간호학과	053-425-0728
권연수	68	계명대 교회음악과	053-620-2260
박정숙	87/간호학	계명대 의과대학	053-626-1321
이혜주	79/교육	계명살업전문대 유아교육	053-620-2700
김소인	61/간호학	고려대 간호학과	920-6230
류은순	80/식생활	고신대 식품영양	051-414-6063/414-1317
천희영	83/아동학	고신대 아동학	051-414-6063/247-7257
정혜영	교육	공주교대 교육학	
김갑영	70/식생활	공주대 가정교육과	0416-2-5687/298-7393
서진희	81/영문	공주대 영어교육	0416-53-2151/856-5676
한지연	88/문헌정보	광운대 국문학과	
고영희	84/주생활	광주대 가정관리	062-670-2358/551-5350
옥경희	82/아동학	광주대 가정관리	062-670-2587/062-652-2883
김미혜	82/아동학	구미전문대 유아교육	0546-455-8951/0546-455-6714

주소록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소	전화번호
정명희	78/영문	국민대 영문학과	
김학영		국방참모대	309-3238
유옥순	70/주생활	군산대 가정학과	0654-60-1561/0652-224-5747
김태남	78/수학과	금오공대 전자계산기공학과	0546-467-4276
전우경	81/교육	김천보건전문대 유아교육	0547-32-6813
변난수	76/독문	대구대 독문학과	0541-50-5278
배정숙	76/의생활	대구대 의류학과	053-353-3181
조성희	71/회화과	대구호성카톨릭대 식영	0541-50-3524/783-5625
한정현	77/정의	대유전문 전산과	0342/720-2086/536-7437
김광경	71/의생활	대전실업전문대 의상과	042-623-2541/02-532-9977
이정희	77/아동학	대전실업 유아교육	042-629-6157/042-632-2890
윤정분	77/사학	덕성여대	
박혜영	77/불문	덕성여대 불문학과	
김영옥	73/식생활	동덕여대 식품영양	913-2001/0613/644-5062
이진실	77/생화학	동덕여대 식품영양	913-2001/0615/391-4625
이종희	83/아동학	동덕여대 아동학	913-2001/948-1590
한혜경	영문	동덕여대 영문과	942-7316
강경화	73/영문	동덕여대 영문학과	913-200/532-7316
우남희	71/영문	동덕여대 유아교육	913-2001/0672/481-1397
강현주	81/식생활	동래여전 식품영양	051-553-5182
김현주	79/주생활	동래여전 유아교육	051-200-3234
강은교	68/영문	동아대 국문학과	051-200-7028/254-8821
김영자	국문	동아대 국문학과	
태선영	79/불문	동아대 불문학과	051-200-7121/202-0166
김창현	영문	동아대 영문학과	051-890-1132
윤여복	76/영문	동아대 영문학과	051-200-7049 / 622-4093
박옥숙	81/체육	동희대 불문학과	
오영은	71/생물학과	동희대 일본학과	051-892-1500
황신희	77	동주여전	051-200-3233
박윤란	82/체육학	동해전문대 정의과	
신문영		명지대	307-2319
윤덕희	84/정의	명지대 북한학과	307-6171
김신희	70/국문	목원대 국문학과	042-220-6114
이신희		목원대 신학부	042-220-6110
김혜리		목포전문대 전자과	0631-78-8651
김영순	61/생물과	미국 유기화학	
김모경	61/회화과	미국 회화과	
이명희	78/식생활	배재대 가정교육과	042-520-5423

주 소 록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신 현 욱	75'식생활	배화여전 유아교육	738-0894/549-5486
이 경 순	73'의생활	배화여전 의상학	738-0894/302-8006
진 혜 숙	60'정의	배화여전 정외과	738-0894/7
추 정 신	64'교육	부산교육대	051-503-5055
신 재 신	66'간호학	부산대 간호학과	240-7749
정 은 순	61'간호학	부산대 간호학과	051-254-0171
정 계 숙	77'아동학	부산대 유아교육	051-510-0311/051-752-0563
박 미 욱	81'화학과	부산수산대 화학과	051-620-6217
정 영 자	64'국문	부산여대 국문학과	
서 혜 란	79'도서관학	부산여대 문헌정보	051-309-5290
한 계 문	71'도서관학	부산여대 문헌정보	051-309-5299
손 현 숙	77'사학	부산여대 사학과	051-89-7977
황 연 숙	87'주생활	부산여대 산업미술	051-309-5345
이 순 열	75'영문	부산여대 영문학과	0551-622-3081
이 명 혜	78'식생활	부산여전 식품영양	051-82-0081/83-7438
최 정 심	간호학	삼육간호전문대	212-2527
정 현 숙	82'아동학	상명여대 가정관리	287-5215/646-3218
정 현 숙	82'아동학	상명여대 가정관리	0417-550-5398/533-3869
오 명 희	70'의생활	상명여대 섬유디자인학	287-5101
김 계 숙	75'영문	상명여대 영어교육	0417-550-5500
김 순 자	78'의생활	상명여대 의상디자인학	0417-550-5445
진 기 정	86'도서관학	상명여대 정보처리	398-5024
이 명 재		상명여대 행정학과	03711730-0154/722-3057
최 현 숙	78'불문	상지대 사회복지	0371-42-1121/336-1107
오 혜 숙	89'식생활	상지대 식품영양	062-56-0191/54-1598
최 운 정	76'식생활	서강실전 식품영양학과	395-8011-6
최 욱 신	63'교육	서울간호전문대	580-5114
정 립		서울교육대	760-2882
신 민 섭	심리학	서울대 임상심리 심리학과	0342-40-7157
조 동 숙	76'간호학	서울보건전문대 간호학과	0342-40-7156
추 수 경	76'간호학	서울보건전문대 간호학과	0342-40-7184
한 예 경	80'간호학	서울보건전문대 간호학과	970-6716
정 화 자	71'도서관학	서울산업대 전자계산	032-612-2551
백 금 욱	76	서울신학대 교회음악과	032-349-9381/683-0398
이 소 연	73'주생활	서울신학대 기독교교육학	974-6864
구 본 영	63'도서관학	서울여대 도서관학	970-5545
유 사 라	84'도서관학	서울여대 문헌정보	972-2031
이 효 숙	73'화학과	서울여대 생물학과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조 경 혜	73'화학	서울여대 생물학과	970-566319
이 인 숙	81'화학과	서울여대 응용화학	972-2031
이 명 신	79	서울장로교신학대 성악학과	
위 영 희	77'아동학	서원대 유아교육	0431-62-8613/0343-87-8058
전 형 주	87'식생활	서일여전 식품영양	583-4526
김 기 욱	77'주생활	성균관대 가정관리	0342-702-6767
이 선 경	78'불문	성신여대 불문학과	920-7095/0343-84-7770
안 흥 석	75'식생활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920-7204/520-5739
김 재 인	71'영문	성신여대 영문학과	920-7081/647-0440
정 이 화	영문	성신여대 영문학과	920-7484/3141-3133
이 숙 재	73'주생활	성신여대 유아교육학	920-7236/566-9839
유 회 경	법학	세종대 법학과	
강 경 화	77'정의	세종대 영문학	460-0115/335-7850
유 의 경	64'화학	세종대 화학과	467-5121
김 미 란	75'국문	수원대 국문학과	
맹 장 섭		수원대 법정대	0331-231-7741
문 순 욱	75'식품공학과	수원대 유전공학과	0331-32-2101
고 유 미	73'간호학	수원여전	0331-292-6251
최 욱 순	73'간호학	수원여전	0331-292-6251
남 혜 원	83'식생활	수원여전 식품영양학	0331-292-6251
고 혜 정	88'영문	수원여전 피부관리학과	0331-292-6251
심 은 섭	70'영문	수원장안전문대 영문학과	0331-296-0912
이 춘 실	76'도서관학	숙명여대 문헌정보	051-743-4419
이 상 란	61'경제학	숙명여대 영문학	720-9313
이 혜 란	56'영문	숙명여대 영문학과	710-9314/571-3296
김 교 정	71'화학	숙명여대 전산학	
방 숙	42'의대	순천향대	
한 성 현	64'수학과	순천향대 의학과	
김 명 욱	69'도서관학	송의여전 문헌정보	773-2600
이 주 원	73'주생활	송의여전 의상학과	778-2698/387-9552
홍 길 희	81'아동학	신흥실전 유아교육	0351-873-3630
노 명 희	73'생물	신흥전문대 임상병리	0351-741-4315
김 용 순	71'간호학	아주대 간호학과	0331-219-2114
전 미 선	76'의대	아주대 방사선	0331-219-2114
임 인 경	78'의대	아주대 생화학	0331-219-2114
주 일 로	87'의대	아주대 약리학	0331-219-2114
서 광 욱	85'의대	아주대 의학과	0331-219-2114
소 의 영	79'의대	아주대 의학과	0331-219-2114

주 소 록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왕 희 정	81/의대	아주의대 일반의	0331-219-2114
이 미 경	84/의대	아주의대 임상병리	0331-219-2114
문 혜 원	의대	아주의대 재활의학	0330-219-2114
이 이 형	의대	아주의대 호흡내과	0331-219-2114
권 영 건		안동대	0571-50-5406
김 숙 영	78/식생활	안산공전 식품영양	593-1098
김 영 숙	81/식품공학과	양산전문대 전통조리과	0523-365-7000
홍 신 영	간호학	연세대	
이 혜 리	의대	연세대(영동) 가정의학	
정 우 희	의대	연세대(영동) 병리학	
정 현 주	의대	연세대(영동) 병리학	
송 경 순	의대	연세대(영동) 임상병리	
정 순 희	의대	연세대(원주) 병리학	
유 수 영	의대	연세대(원주) 일반의과	0371-41-6003
조 미 애	의대	연세대(원주) 재활의학	
박 계 숙	67/의대	연세대 가정의학	361-3345/533-1233
유 일 영	간호학	연세대 간호학	
황 애 린	간호학	연세대 간호학	
전 산 초	간호학	연세대 간호학과	
김 모 임	59/간호학	연세대 간호행정학	361-5040/749-6157
김 인 숙	76/간호학	연세대 간호행정학	361-5149/926-7350
이 혜 원	59/간호학	연세대 간호행정학	361-5746/926-8687
전 춘 영	55/간호학	연세대 간호행정학	361-5745/717-7665
신 영 희	72/교육	연세대 교육학과	361-3178/534-5055
곽 동 순	72/교회음악	연세대 교회음악과	361-3028/334-1893
강 규 숙	65/간호학	연세대 기본간호학	361-5130/392-7660
송 인 자	66/간호학	연세대 기본간호학	361-6760/553-8082
정 현 숙	55/간호학	연세대 기본간호학	361-5124
유 지 수	71/간호학	연세대 기초간호과학	361-5132/391-5404
이 경 자	68/간호학	연세대 노인간호학	361-5136/313-2415
임 영 신	58/간호학	연세대 노인간호학	361-5157/391-5147
지 광 신	79/독문	연세대 독문학과	361-2335
고 신 옥	의대	연세대 마취과	
이 정 자	73/수학과	연세대 매지컬퍼스 수학과	0371-760-0226/374-0927
김 혜 숙	69/간호학	연세대 모성간호학	361-5140/312-8013
장 순 복	67/간호학	연세대 모성간호학	361-5135/593-8912
최 연 순	59/간호학	연세대 모성간호학	361-5123/359-9512
정 영 미	71/도서관학	연세대 문헌정보	361-2409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장 수 경	79/물리	연세대 물리학과	361-2615
최 인 흥	의대	연세대 미생물학	
전 수 연	80/사학	연세대 사학과	
원 영 신	체육	연세대 사회체육	
조 혜 정	71/사회학	연세대 사회학	361-2425
강 복 순	의대	연세대 생리학	
김 명 원	68/생물	연세대 생물학과	0371-760-2243/585-8806
구 현 숙	생화학	연세대 생화학	
김 소 선	75/간호학	연세대 성인간호학	361-5748/395-1150
김 조 자	64/간호학	연세대 성인간호학	361-5127/335-6729
이 원 희	69/간호학	연세대 성인간호학과	361-5134/584-9716
이 혜 경	의대	연세대 성형외과	
남 궁 란	의대	연세대 소아과	
김 경 희	80/수학과	연세대 수학과	0371-760-2229/0342-711-5115
이 양 자	63/화학	연세대 식품영양	361-3118
박 태 선	83/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	361-3123/543-9866
곽 동 경	75/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361-3120/648-4090
양 일 선	73/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361-3121
윤 선	71/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361-3119
이 종 호	79/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361-3122/793-8795
김 희 순	77/간호학	연세대 아동간호학	361-5747 420-6272
오 가 실	67/간호학	연세대 아동간호학	361-5131 654-6684
한 정 석	58/간호학	연세대 아동간호학	361-5125 647-4546
박 경 자	79/아동학	연세대 아동학	361-3152/554-2302
이 숙 현	78	연세대 아동학과	361-3151
이 영	72/의생활	연세대 아동학과	361-3150
김 혜 영	80/식생활	연세대 약리학	361-5213/382-5781
김 혜 영	의대	연세대 약리학	
신 경 숙	82/영문	연세대 영문학과	
고 애 란	81/의생활	연세대 의생활학과	361-3106
김 영 인	79/의생활	연세대 의생활학과	361-3105
이 주 연	의생활	연세대 의생활학과	
천 종 숙	의생활	연세대 의생활학과	
이 유 정	의대	연세대 일반의과	
김 현 숙	의대	연세대 임상병리	
김 현 옥	의대	연세대 임상병리	
이 찬 해	68/작곡과	연세대 작곡과	361-3080
박 은 숙	의대	연세대 재활의학	

주 소 록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정 빈	외대	연세대 재활의학	
변 혜 린	80/수학	연세대 전산과학	
김 선 이	83/간호학	연세대 정신간호학	361-5145 735-8667
김 소 아	66/간호학	연세대 정신간호학	361-5128 335-6191
이 연 실	62/간호학	연세대 정신간호학	037-41-6800
조 명 자	음대	연세대 종교음악	
이 연 숙	77/주생활	연세대 주거환경	361-3133/305-6274
하 미 경	81/주생활	연세대 주거환경	361-3145-388-4600
윤 정 숙	72/주생활	연세대 주생활	392-0131 552-0197
윤 복 자	58/화학	연세대 주생활과	361-3131
이 정 렬	74/간호학	연세대 지역사회간호학	361-5139 417-3205
김 의 숙	68/간호학	연세대 지역사회간호학과	361-5129 795-5434
조 원 정	63/간호학	연세대 지역사회간호학과	361-5100 0344-91-4295
최 규 옥	70/외대	연세대 진단방사선	361-5864
서 창 옥	외대	연세대 치료방사선	
성 진 실	외대	연세대 치료방사선	
이 혜 연	외대	연세대 해부학	
김 후 자	간호학	영남전문대 간호학과	053-66-2154
이 인 혜	84/간호학	영남전문대 간호학과	053-625-5651
김 현 숙		영동보건전문대	0391-43-2707
명 춘 옥	81/식생활	오산공전 전통조리	0339-72-1181-9
배 영 희	82/식생활	오산공전 전통조리	0339-72-1181 9/385-8676
곽 금 주		오산전문대 심리학과	0339-72-1181/542-7627
김 선 중	77/주생활	울산대 가정관리	0652-70-3897/77-3076/77-5478
양 세 희	82/주생활	울산대 가정관리	0522-78-2388/47-1915
김 혜 경	76/식생활	울산대 식품영양	78-2363/77-7859
홍 순 명	77/식생활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0522-78-2374/77-2807
이 정 지	유학/정의	울산대 정치외교	0522/78-2812
홍 수 아	84/사회학	울산전문대 여성교육	0522-78-3234/47-7819
송 순	77/주생활	원광대 가정관리	0653-50-6653/52-2366
전 인 영		이화여대	362-6151
김 명 상		이화여대 건강교육	360-2552
장 옥 경	신학과	이화여대 기독교교육	
이 수 영	62/법학	이화여대부속병원	761-5061/216
오 찬 옥	81/주생활	이화여대 정의과	362-6151
최 영 순	72/주생활	인제대 가정관리	0525-20-3244/35-4473
박 은 예	78/교육	인제대 가정관리학	0525-20-3241/21-3786
		인천간호전문대 유아교육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한 면 희	76/물리	인천교육대 사회교육	032-541-9656
장 영 애	79/아동학	인천대 가정관리	032-760-8114/477-7424
최 재 순	73/주생활	인천대 가정관리학	032-760-8170 542-2369
백 승 희	77/전기공학	인천시립대 토목과	032-760-8748
김 영 애	61/사학	인천전문대 교양학과	032-766-5021
남 명 숙	79	인하대	032-860-7739
박 소 라	85/외대	인하대 의학과	032-860-8185
배 해 영		인하대 전자계산	032-860-7445
조 숙 지	66/신학과	장로회신학대	445-3101
홍 정 혜	51/간호학	적십자간호전문대	737-3848
김 미 희	80/주생활	전남대 가정관리	62-500-6942
강 해 영	71/간호학	전남대 간호학과	062-222-2283
박 오 창	69/간호학	전남대 간호학과	062-222-2283
이 영 숙	74/간호학	전남대 간호학과	062-222-2283
홍 현 진	85/문학정보	전남대 문학정보	042-861-2698
박 선 희	76/주생활	전북대 가정관리	0652-70-3837/77-3076
배 순 자	70/도서관학	전주대 도서관학	0652-220-2233
우 자 원	83/식생활	전주유석대 식품영양	0331-46-8878
장 원 희	80/교육	제주대 교육학	
김 정 희	80	제주대 성악학과	
조 은 희	84/생물학과	조선대 생물교육	062-2307114
김 순 경	76/불문	중앙대 불문학과	
윤 현 숙	68/식생활	창원대 식품영양학과	0551-68-7482
이 경 혜	78/식생활	창원대 식품영양학과	0551-68-7486
정 경 희		철도전문대	0343-61-4014
이 정 숙	69/교회음악	총회신학교 음악과	
이 영 신	43/간호학	춘해간호보건의전문대 간호학과	
정 경 애	71/간호학	춘해간호보건의전문대 간호학과	051-805-2212
김 인 순	60/간호학	춘해간호전문대 간호학과	051-805-2211
홍 영 혜	75/간호학	춘해간호전문대 간호학과	051-805-2212
오 경 옥	90/간호학	충남대 간호학과	
홍 춘 실	61/간호학	충남대 간호학과	
김 성 애	식생활	충남대 식품영양학과	042-821-6836
장 수 경	79/의생활	충남대 의생활학과	042-821-6836
조 남 숙	69/화학과	충남대 화학과	042-821-6545 /861-3862
박 경 옥	81/주생활	충북대 가정관리	0341-61-2743/66-2874
김 영 희	75/수학과	충북대 수학과	0431-61-2248
이 승 은	78/수학과	충북대 수학과	0431-54-2111

주 소 록

언론
인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박 경 예	78정의	캐나다 밴쿠버대 정외과	
이 주 옥	83아동학	포항전문대 유아교육	0662-46-5000/0662-47-80004
이 덕 화	74국문	피어선대 국문학과	0333-655-8701-5
최 용 학		피어선대 기획처	0333-655-8701
최 성 옥	80/종교음악과	피어선대 음악학과	0333-655-8701/5
최 기 영	72/교육	한국교원대 유아교육	226-1950
성 숙 진	81/식생활	한국신학대학 재활학과	
박 기 덕	60/영문	한국외대 영문학과	
최 목 화	77/주생활	한남대 가정관리	042-629-7442/633-3989
정 민	81/간호학	한라전문대 간호학과	064-42-1675
소 금 숙	78/수학과	한림대 수학과	0361-58-1405
서 은 경	83/도서관학	한성대 문헌정보	760-4084
김 주 희	64/간호학	한양대 간호학과	290-0700
전 정 자	63/간호학	한양대 간호학과	290-0702
홍 성 주	80/영문	한양대 영문학과	290-0755
이 기 옥	62/행정학	한양대 행정학과	292-2111
전 문 희	74/영문	한양여전 영어과	290-2284/447-6598
유 은 순	83/식생활	호남대 화학과	062-940-5564/364-8159
소 효 자	66/화공과	화공과	
김 문 경	61		
박 동 근	54/신학과	New Brunswick Seminary Place종교교육	908-247-5241
이 인 숙	교육	U.S.A뉴욕주 사학과	
홍 영 선	사학		
안 우 경	85/심리학	Univ. of Louisville Kentucky 심리학과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한 운 정	90/영문	경향신문 경제부기자	730-5151/843-2201/015-223-2144
최 소 영	90/신방	경향신문 매거진기자	3701-1292/0343/729-8942
송 현 숙	95/영문	경향신문 편집부기자	3701-1118/832-1440
최 현 수	85/정의	국민일보 국제부기자	705-4383/705-4415
이 은 경	84/사학	국민일보 문화부기자	705-4363/705-4383(간사)
신 유 용	91/영문	금강기획 제작7실카피라이터	708-2598/813-3300(간사)
조 혜 숙	93/불문	금강기획 제작8실카피라이터	708-2988/605-1236
이 영 선	75/상악	기독교방송 이리방송편성국장	650-7114
김 승 연	89/영문	대우통신 SE부 NetWork과	589-2368/544-1408
김 경 아	89/신방	대우통신 상품기획실대리	589-2443/0342/711-3759
이 최 진	87/전자	대우통신 생산본부기술개발 2부	726-2823/928-3457
이 정 주	95/영문	대흥기획 신입사원(미배치)AE	542-6577
김 수 미	95/신방	대흥기획 신입사원(미배치)카피라이터	481-0654
이 화 자	87/국문	대흥기획 제작2실차장(카피라이터)	724-8454/545-2417
김 재 희	92/아동	대흥기획 제작3실 카피라이터	724-8532/499-1378/462-8488
이 강 하	92/국문	대흥기획 제작7실 카피라이터	724-8425/555-9384
이 명 우	87/국문	대흥기획 특수제작실 카피라이터	724-8583/0342/756-7162(간사)
정 유 경	92/불문	대이콤 국제통신사업본부 사업부사업계획과	220-5113/587-6800
노 지 영	94/영문	대이콤 기업통신사업본부 전용회선사업부	220-5283/516-8383
김 인 숙	85/경제	대이콤 부가통신사업본부 운영부운영4과	220-7292/032/321-2991
양 혜 경	90/전산	대이콤 요금본부 요금전산부 수납정산과	220-7873/305-8745
박 회 정	94/전산	대이콤 정보통신사업단 MIS팀	220-7844/887-4028
이 민 선	86/사회	대이콤 정보통신사업단 행정전산망사업팀	220-7422/435-7084
이 현 숙	90/전산	대이콤 정보통신사업단 행정전산망사업팀	220-7424/435-7084
이 은 경	82/문정	대이콤 총무관리본부 인사부	
한 혜 원	신방	대이콤 홍보실 광고부 광고1과	220-6633
정 경 환	82/사회	동아일보 Life부기자	721-7641/0342/714-8860
서 영 아	90/영문	동아일보 과학동아기자	721-7633/645-9715
박 경 아	86/신방	동아일보 국제부기자	361-0267/476-6412(간사)
방 혜 영	89/문정	동아일보 뉴미디어부기자	361-0844/647-2894
계 수 미	86/법학	동아일보 여성동아부기자	721-7627/815-4828
김 정 희	90/사회	동아일보 여성동아부기자	721-7623/814-7867
김 현 미	90/신방	동아일보 음악동아기자	721-7643/352-2532
김 용 옥	89/문정	동아일보 자료전신부기자	361-0199/032/525-7953
이 영 이	86/영문	동아일보 편집부기자	361-0207/372-9540
박 영 자		디자인하우스문정	263-6900-5
박 민 정	88/주생	리빙센스	774-3272-4/404-6710
고 수 영	83/생물	매일경제신문 교열부기자	276-0209(간사)
신 혜 원	88/국문	매일경제신문 교열부기자	276-0209

주 소 록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오 은 하	91/영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기자	263-1534
최 미 숙	86/문정	매일경제신문 조사부기자	277-6107
김 주 영	92/영문	매일경제신문 편집부기자	276-0201
김 지 수	92/사학	매일경제신문 편집부기자	276-0201
심 윤 희	94/국문	매일경제신문 편집부기자	276-0201
최 희 정	86/영문	문화방송 MBC예술단파견	789-4967
한 경 진	87/세교	문화방송 MBC프로덕션파견	410-5552
김 지 연	87/전자	문화방송 TV기술국 TV보도기술부	789-3574/554-4131
문 수 정	86/전자	문화방송 TV기술국 TV출시기술부	789-3569/0344/64-2776
박 순 미	85/전자	문화방송 TV기술국 영상기술부	789-3643/309-9946
조 희 진	94/영문	문화방송 TV제작국 예능1부PD	789-3266/994-5778
사 화 경	91/신방	문화방송 TV제작국예능3부	789-3285/702-2189
이 모 현	90/영문	문화방송 교양제작국내 다큐멘터리PD	789-3336
박 수 현	87/신방	문화방송 라디오FM2부	789-3467/305-5096
이 은 주	86/신방	문화방송 라디오국제작1부	789-3437/444-8198
백 지 연	87/심리	문화방송 보도국TV편집1부	789-2442/영국유학(94~96)
이 정 혜	85/영문	문화방송 보도국 정치2부	789-2494/780-4648(간사)
박 선 영	92/영문	문화방송 사회부	789-2314/391-7976(비)012-220-1799
오 은 실	92/영문	문화방송 편성국아나운서부	789-3496/554-7443
이 주 연	96/국문	문화방송 편성국아나운서부	789-3494/444-6308
정 혜 정	88/신방	문화방송 편성국아나운서부	789-3494/702-3285
이 보 영	87/신방	문화방송 편성국 편성기획부	789-3143/305-5096
정 혜 승	94/노문	문화일보 사회부기자	3701-5114(대표)015-250-2774
이 미 숙	85/교육	문화일보 해외문화부기자	3701-5106/015-206-2105(간사)
정 영 수	94/국문	미래뉴스 TV 방송PD	786-6123/306-2037
신 갑 순	59/음악	실과공 발행인	756-0109/379-7893
김 민 정	94/전산	삼성데이터시스템	726-3968/537-8143
이 은 영	94/응통	삼성데이터시스템	555-2353
최 혜 영	94/화학	삼성데이터시스템	424-2999
사 혜 진	93/전산	삼성데이터시스템 CM 개발팀	360-5404
이 기 정	94/응통	삼성데이터시스템 SEOL IS실	405-3383/337-3856
박 봉 주	94/전산	삼성데이터시스템 그룹 IS실	726-4709/461-7339/Fax.726-4548
안 상 미	94/전산	삼성데이터시스템 그룹 IS실	726-4546/938-4995
김 경 일	94/물리	삼성데이터시스템 물산 IS실	520-7589/542-1476
김 은 주	94/응통	삼성데이터시스템 손보 IS실	758-7934/583-2791/Fax.758-7888
김 정 은	94/전산	삼성데이터시스템 전자 IS실	726-3975/Fax.726-3969
유 희 정	94/응통	삼성데이터시스템 전자서술 IS실	559-2483/0343-52-8257
하 희 정	94/전산	삼성데이터시스템 증권실 IS실	726-6962/603-8588
송 문 길	94/응통	삼성데이터시스템 중지현 IS실	726-6778/969-2640
김 효 린	93/전산	삼성데이터시스템 컴퓨터 개발팀	360-6325
이 효 영	90/불문	서울경제 국제부	724-2114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문 송 희	73/주생	서울방송 기획실심의부심의의원	369-1081/296-4061
안 수 현	91/신방	서울방송 기획실인사부수습	369-1718/324-5435
한 수 진	92/신방	서울방송 문학부기자	369-2194/323-4504
박 현 정	92/교육	서울방송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사원	369-2418/843-5386
박 광 옥	불문	서울신문 TV가이드 편집	730-8587
이 현 숙	77/신방	서울신문 문학부차장	735-7711/647-4986
신 연 숙	80/신방	서울신문 생활과학부기자	647-4533(간사)
김 혜 경	79/사학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과학부차장	721-5362/359-1979
신 동 식	62/장외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편집국부장	721-5026/533-6675
김 경 화	79/신방	서울신문 출판편집국Queen부기자	782-7259
강 선 임	86/신방	서울신문 출판편집국뉴스피플부기자	721-5463/966-76428
안 미 현	89/영문	서울신문 출판편집국뉴스피플부기자	721-5423
김 연 수	86/아동	세계일보 문학1부	799-4114/720-8398
김 성 희	86/국문	세계일보 문학부기자	799-4264(간사)
권 혜 정	89/영문	세계일보 편집부기자	799-4218
김 미 진	88/사학	세계일보 편집부기자	799-4716
김 현 숙	82/영문	시사저널 문학부	736-3200/142(간사)
장 운 주	85/사회	연합통신 외신2부	389-3384
성 혜 진	94/주생	월간인테리어	384-3056
황 경 애	90/주생	월간인테리어	064-22-5147
박 진 아	92/아동	월드크	702-3611/990-9637
유 지 연	91/주생	제일기획	724-0338/603-0210
장 혜 영	93/영문	제일기획 광고4팀	724-0349/742-6347
전 혜 진	94/신방	제일기획 광고4팀	724-0543/0342-701-4758
김 은 영	92/영문	제일기획 광고6팀	399-7279/724-1612
김 기 령	89/사학	제일기획 광고8팀	724-0389/588-6063
박 현 정	91/심리	제일기획 구인출팀	724-0491/422-4552/012-810-0477
권 성 은	88/대학원(신방)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724-0883/302-7771
김 인 진	90/신방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724-0883/352-3336
현 소 은	84/응통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연구원	724-0672/545-8850(간사)
김 희 은	94/신방	제일기획 마케팅팀	724-0648/417-1857
박 소 연	90/심리	제일기획 마케팅팀	724-0672/546-5788
원 미 혜	90/심리	제일기획 마케팅팀	724-0649
홍 유 진	91/신방	제일기획 마케팅팀	399-7228/659-5547
홍 경 희	90/신학	제주신문 편집국기자	064-40-6343
최 혜 정	82/사학	조선일보 FEEL 부부원	724-5114
옥 은 주	89/영문	조선일보 가정조선	724-5114
손 정 미	89/영문	조선일보 문학부부원	724-5365/302-0955
송 형 숙	91/간호	조선일보 비서실사원	
이 미 경	84/정의	조선일보 생활부부원	724-5383(간사)
이 선 주	88/사학	조선일보 생활부부원	724-5383

주 소 록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이 화 순	84/독문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문화연예부	724-6873
황 성 혜	95/신방	조선일보 주간부기자	724-6125/546-1932
송 미 경	91/주생	주부생활사	780-7328/032-528-1666
임 우 범	88/주생	주부생활사	780-0328/603-5208
진 축 형	93/주생	주부생활사	780-7238/793-5862
신 동 신	91/주생	주부생활사 기자	780-7328/884-0657(간사)
정 희 영	88/경영	중앙일보 경리부	7515-690
손 명 성	88/신방	중앙일보 뉴스속보부	
강 신 혜	88/신방	중앙일보 라벨르	
권 숙 진	87/신방	중앙일보 라벨르	751-9223
안 혜 리	94/사회	중앙일보 문화부	751-5596(백)015-301-1489
홍 은 희	78/신방	중앙일보 생활부	7515-620/562-3032
박 성 혜	93/사회	중앙일보 세비	751-9212(백)015-320-1155
이 강 희	88/신방	중앙일보 세비	7515-483
이 숙 은	88/중문	중앙일보 세비	7515-397
최 운 정	94/영문	중앙일보 세비	
이 신 아	91/신방	중앙일보 월간미술	7515-398
이 경 신	87/국문	중앙일보 유통부	751-5542/015-301-1298(간사)
유 명 순	88/문정	중앙일보 자료부	7515-573
김 정 수	93/노문	중앙일보 편집부	백(백)015-320-1117
고 희 정	94/심리	코레드	564-0066
이 주 은		코레드	영문 564-0066
김 선 영	88/국문	코레드 AE	564-0066/672-5431
이 상 옥	94/영문	코레드 AE	564-0066/418-2586
이 재 연	91/사회	코레드 AE	564-0066/594-5022
전 연 희	88/영문	코레드 AE	564-0066/594-6659
백 혜 진	94/신방	코레드 CW	564-0066/871-6485
이 현 화	88/신방	코레드 CW	564-0066/931-9986
홍 운 주	93/불문	코레드 CW	564-0066/545-2856
배 주 은	92/국문	코레드 Marketing research	564-0066/544-1410
유 신 영	84/주생	코레드 그래픽 디자이너	564-0066/359-5375(간사)
설 재 원	92/문정	코레드 사서	564-0066/544-6947
김 춘 강	94/신방	코레드 프로모션국	564-0066/082-366-0501
김 선 민	92/신방	코레드 한국비전PD	564-0066/379-5523
김 영 진	93/신방	코레드 해외 Marketing	564-0066/(0342)711-5286
김 혜 원	77/신방	코리아헤럴드 문화부부장	727-0245/445-2654(간사)
김 성 애	81/영문	코리아헤럴드 사회부기자	727-0241
배 은 주	95/영문	코리아헤럴드 정치부기자	727-0223
이 신 영	80/불문	코리아헤럴드 해외2부기자	756-7711/364-0340
유 혜 신	73/주생	프리랜서	362-4540
김 경 화	83/주생	학원사 기자	780-0321-4547-5963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주 신 아	77/의생	학원사생활주부사 부장	780-0325/0343/23-0787
송 영 주	93/영문	한국경제신문 국제부기자	360-4114
김 지 희	94/신방	한국경제신문 국제부기자	360-4114
염 정 혜	92/불문	한국경제신문 국제부기자	360-4114
권 성 희	94/식영	한국경제신문 유통부기자	360-4114
박 성 완	94/영문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기자	360-4114
한 온 자	85/문정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기자	360-4114(간사)
전 숙 영	78/정의	한국방송공사 PD	781-4191
김 윤 라	68/영문	한국방송공사 과학부부장	780-9754
이 승 아	92/중문	한국방송공사 국제방송국PD	781-3717/592-7565
문 숙 영		한국방송공사	
김 혜 선		한국방송공사 문화사업단	
강 민 하	95/문정	한국방송공사 방송자료실사서	781-3165/3461-0948
강 희 정	88/문정	한국방송공사 방송자료실사서	781-3165
이 미 경	85/문정	한국방송공사 방송자료실사서	781-3134/689-3533
김 혜 레	신방	한국방송공사 보도국기자	781-4252/0343/82-4575
이 정 옥	80/불문	한국방송공사 보도국기자	781-4193/533-8017
최 춘 예	77/사회	한국방송공사 보도국보도제작부차장	781-4312/556-1522
선 우 경	94/신방	한국방송공사 부산총국아나운서	(051)620-7100/457-2087
현 옥	76/의생	한국방송공사 사회교육방송아나운서	781-5366/832-2323(간사)
임 수 민	90/정의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	781-3816-7/591-3320
장 은 영	94/신방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781-3816-7/796-7174
정 용 실	91/신방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아나운서	781-3816-7/826-2517
이 한 숙	88/심리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현업총괄부아나운서	781-3816-7/백(백)012-840-8582
황 현 정	92/영문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현업총괄부아나운서	781-3816-7/821-6450
이 미 경	83/식생	한국방송공사 관성실PD	781-3183/659-9291
송 영 주	84/문정	한국일보 과학부기자	724-2114(간사)
이 현 주	92/정의	한국일보 사회부기자	
최 성 자	78/사회	한국일보 생활부부장	724-2394-5
정 미 경	90/영문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편집부기자	724-2363
최 희 승	93/독문	한국통신 관리국 종합 TV방송센터	526-5865-7/797-0806
김 인 옥	86/사회	한국통신 구로전국국 영업부	0854-0200
이 혜 영	86/수학	한국통신 기술개발단 TOP기술연구팀	526-5241
김 주 희	91/전자	한국통신 기술개발단 차세대영상통신팀	526-5216
이 지 연	90/식공	한국통신 노량진국국 영업부	814-0200/832-0981
권 은 정	87/야동	한국통신 반포전국국 영업부	532-0200
곽 숙 영	89/야동	한국통신 부산국제전국국	
김 소 정	88/생물	한국통신 상계전국국 업무부	934-0800
강 윤 경	91/전산	한국통신 소프트웨어연구소 DBMES연구팀	526-6560
이 혜 림	90/전산	한국통신 소프트웨어연구소 SE연구팀	526-6514
하 윤 경	88/전산	한국통신 소프트웨어연구소 하이텔개발연구팀	526-6551

주 소 례

출생년도	학 과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75	영문	정 해 북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APT 33-306	566-6297
	영문	최 해 정	은평구 불광동 미성APT 10-1203	383-5689
	영문	김 수 영	경기도 과천시 주공APT 612-201	503-3967
	도서관	이 춘 실	종로구 이화동 57 이화빌딩 702	742-4419
	상학	최 귀 선	과천시 주공APT 405-904	522-4248
	간호	한 경 숙	서대문구 홍은3동 미성APT 1-1201	354-7235
	간호	권 연 숙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APT 225-201	647-0703/361-6427
	간호	조 현 숙	송파구 문정동 현대APT 16-401	403-1432/361-6428
	간호	김 연 지	양천구 목동APT 1306-1206	647-7472/361-6407
	식영	이 희 자	중랑구 중화동 291-60	435-9898
76	국문	진 현 숙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63-13	03711762-4428
	영문	박 총 인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학교 영문학과	
	사학	최 성 자	광진구 중곡 4동 18-132	452-4425
	수학	이 종 미	강남구 일원동 수서12지구 샘터마을 107-104	226-1831
	법학	권 영 애	강동구 명일동 103동 1305	473-6528
	건축공학	오 경 은	상북구 동선동 1가 2-3 동일빌딩 4층	927-3236
	식품공학	문 은 숙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APT 11-805	761-3601
77	불문	신 상 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현대APT 306-1405	0321521-3311
	불문	이 희 자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연희한양APT 2-1106	305-6840
	사회학	양 은 선	종로구 안국동 8-1	732-7655/730-6969
	사회학	최 춘 애	서초구 서초동 우성APT 5-601	3474-1522
	신방	김 해 원	강남구 일원2동 615 우성 7차APT 115-705	445-2654
	사학	윤 정 분	노원구 상계5동 한신APT 3-608	935-1602
	아동학	공 신 화	구로구 구로동 685-124 중앙하이츠APT 4-1207	859-4888
	체육	강 경 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APT 25-403	447-0220
	정의	강 경 화	서대문구 연희3동 344-23	335-7850
	정의	김 영 란	종로구 혜화동 15-139	747-1268
	정의	왕 세 경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APT 501-202	504-7829
	정의	한 정 현	서초구 반포본동 833 주공APT 76-203	533-1312
	생화학	이 진 실	종로구 평창동 179-1 삼호빌라 4-201	379-4625
	생물	서 영 춘	경기 고양시 마두2동 미도파APT 307-1404	03341903-4321
	생물	박 영 애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APT 34-301	535-4890
	간호	문 경 희	도봉구 창동 주공APT 321-207	997-5048/361-6181
	의학	서 창 욱	양천구 목동 904 신시가지APT 406-207	647-6995
	의류	주 신 아	경기도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 건영APT 501-1802	034323-0787
78	사학	이 숙 현	서초구 반포본동 구반포APT 12-201	599-9432
	도서관	윤 여 순	종로구 평창동 64-3 금강 하이츠빌라 7-309	396-7797
	신방	홍 은 희	강남구 도곡동 역삼 한신APT 1-1507	562-3032/751-5620
	불문	최 현 숙	서대문구 홍제1동 104-6 인왕공APT B-603	722-3057
	불문	이 선 경	안양시 관양동 현대APT 10-602	034384-7970

출생년도	학 과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78	교육	주 은 희	고양시 마두동 백마마을 한양APT 403-801	0341904-2498
	식품공학	안 해 준	서초구 서초동 삼호APT 11-603	567-2547/549-2701-3
	건축공학	손 태 욱	강남구 대치동 미도맨션APT 208-1106	564-8418
	음악	임 세 복	마포구 서교동 380-39	337-4522
79	영문	이 은 성	송파구 잠실동 우성APT 26-601	423-1807
	영문	김 현 주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125-404	03421712-1309
	영문	정 인 숙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코오롱APT 117-1202	03421705-1723
	사회학	이 상 경	마포구 서교동 468-20	332-4340/323-0834
	천문대기	이 형 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송동 132 건영APT 106-1304	03421704-5127
	의류	천 종 숙	서초구 반포동 13-504	591-6449
80	국문	전 정 연	마포구 서교동 388-3	322-8194
	불문	이 정 욱	서초구 반포동 미도APT 305-110	533-8017
	아동학	이 정 희	대전시 대덕구 범동 유원APT 3-804	042632-2890
	수학	변 해 란	은평구 녹번동 160-6	385-7447
	수학	고 정 미	양천구 목동APT 932-701	654-2767
	체육	원 영 신	은평구 갈현동 267-1 라이프시티APT 502	361-3198
	식영	강 미 경	서대문구 홍은3동 277-92 금강빌라 101	373-0415
	치의학	백 일 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5-1 평촌 이랜드폴리자 4층	034385-0123
81	신방	방 원 선	과천시 주공APT 636-201	504-4224
82	사회학	박 나 미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성지간영빌라 1503-203	0344912-1760
	아동학	정 현 숙	양천구 목동 930 현대APT 101-811	646-3218
	경영	홍 선 주	중구 소공동 50 동양화학빌딩 15층 시카고은행	316-9720
83	아동학	이 종 희	노원구 하계동 창구APT 7-501	948-1590
	요업공학	조 경 화	마포구 도화동 우성APT 6-808	703-6812
	의류	이 주 현	양천구 목동 231-53 진우빌라 202호	648-6945
84	법학	김 선 업	마포구 아현동 627-20	365-3142
	식품공학	이 상 경	은평구 신사동 1-130	355-4452
	식품공학	이 선 일	서대문구 연희3동 302-12	
	식품공학	김 주 영	마포구 염리동 진주APT 5-703	701-2700/718-7500
	식품공학	김 윤 지	용인시 수지구 보원APT 104-706	034240-5085
	응용통계	현 소 은	상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940-4000(교한517)
	체육	정 진 희	강동구 명일동 삼한APT 102-703	427-9187
	간호	김 완 희	고양시 행신동 기산APT 903-1101	0344970-7018
85	생물	이 해 영	광진구 구의동 36-16	304-4226
	생물	윤 인 선	마포구 상산동 성산APT 11-306	03421716-0395
	경영	이 정 선	성남시 분당구 청자동 정문마을 200 동아APT 102-1602	415-7876/3443-6923
	경영	한 현 주	송파구 잠실7동 우성APT 29-905	428-5520
	식영	김 은 경	강동구 상일동 주공APT 710-404	
	간호	황 현 숙	송파구 송파동 55-5	419-4038/345-2041

* '94년도 이후 여동문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입니다.

편집후기

책을 마감할 때마다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 한편의 책이 연세 3만 여동문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집에 정진했다. 여기에 연세를 거쳐간 그리운 얼굴들이 있고, 현재 그들의 활동을 알수 있다. 또한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이 걸친 대가를 치루며 깨달은 지식, 경험과 시 행적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 인생의 과표를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장 역사가 깊은 대학, 또한 가장 먼저 남녀의 문화를 개명한 선구의 대학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50년 동안 배출한 여동문들이 사회 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세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세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회적 역할을 완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여동문들의 고급인력이 사랑되고 있다. 연세를 통해 다시 재충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연세 곳곳에서 성취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는 과감히 고쳐나 가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인의 우선가치를 사회보다 가정에 두었다면 머뭇거리며 존중받아야 한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 우리 여동문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성을 뛰어 넘어 사회의 공동책임자로서, 조화로운 인간으로, 그리고 프로정신을 가진 전문인으로, 또한 가정의 조율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각자가 품고 있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연세의 울타리 안에서 3만여 전주들을 땀과 땀으로 보듬어 주고 싶다. 이번 특집호에 귀한 글로서, 광고 협찬으로 그리고 편집을 도와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세경

연세대학교 남녀공학 50주년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시작'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백양인 모두 가슴속에 있는 '시작'의 기쁨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는 일상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집호를 마감한다.

한지혜

회비납부안내

평생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5년 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님께서 내시는 회비는 장학사업과 여동문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회비: 년회비 10,000원
평생회비 200,000원(년회비가 면제되며 분할납부가 가능함.)
2. 납부방법:
한일은행 온라인 계좌
126-357575-01-001 연세여동문회



투명하게 세상을 바꾼다!
최고급 프리미엄 맥주-카프리

투명병에 담긴 최고급 품질의 프리미엄 맥주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선보인 카프리는
창공빛 투명함으로 맥주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최고급 품질의 프리미엄 맥주

보다 좋은 맥주를 원하는 대호가들을 위해 탄생한
국내 최고급 프리미엄 맥주, 카프리. 최상의 품질로
마시는 문명의 자리를 한걸 돈보이게 합니다.

카프리
최고급 프리미엄 맥주